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정광민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olicy in South Korea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김봉석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이원석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연구개요

1. 서론

1.1. 연구배경

가. 국제회의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 격차와 경영 여건 악화

- 최근 국제회의산업 관련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들이 강화되고 있으나 기업경영 여건 악화와 지역 발전 격차 심화되고 있음
- 또한, 국제회의 및 마이스산업 관련 정책추진 주체가 상이하여 정책 통합적인 추진과 예산 등의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나. 국내외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현 국제회의산업정책 지원 실태와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

-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및 조직 지원 등 자원 유형에 따라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형태에 따라 수혜자가 상이하고, 지원 범위와 항목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회의산업정책 지원 실태와 현황 파악이 요구되는 실정임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향후 국제회의 관련 유치·개최, 마케팅 등 정책방향과 산업운영 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책현황과 실태 진단을 통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제회의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산업 여건과 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국제회의산업 정책방향을 제시
- ① 국제회의산업 정책 고찰을 통해 정책실태 진단을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 개발과 이를 통한 정책추진실태를 분석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 관련 예산과 유형, 지원제도, 정책추진 절차 등 정책 추진 실태 등을 다각도로 진단

- 국제회의의 관련 예산 유형 및 규모 조사, 국제회의산업 규모 분석, 국제회의 산업 정책 성과와 지원 제도 간 영향 관계 분석
- ③ 국제회의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 집행기관 및 수요자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
- ③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주요 이슈에 따른 개선 방향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

2. 국제회의산업 정책 개념과 제도 현황

2.1. 국제회의산업 현황과 제도 분석

- 국제회의의 분야는 다양한 산업 간 연계 및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국제회의의 개최 국가 및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음
- 현대사회 및 경제가 점점 더 복잡하게 연결되고 교류하며 창출되는 부가가치 증대를 경험하면서 국제회의의 개최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 지식 및 기술적 발전 효과에 대한 인식은 계속 증대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제회의의 개최 및 외국인 참가자 입국 증대는 국가 이미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기반 전략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
- 현재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되지만, 점차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물론,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여하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정책 추진이 요구됨
- 국제회의산업 정책적 대상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유치하는 주최자와 시설공간으로 구분되며, 정책적 목표인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을 위한 수단과 체계로 ‘기본계획수립’, ‘법·제도 제정’, ‘정책예산 배분’, ‘정책 추진체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률에 근거한 정책 대상과 정책사업 예산 유형 등을 토대로 국제회의산업의 정책유형을 구분하면 국제회의 유치·개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반 조성, 국제회의도시·지구 육성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반 조성에는 국제회의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의 업계지원, 국제회의 기술 등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정보 제공, 국제협력 촉진으로 등으로 구성됨

〈표 1〉 국제회의산업 정책유형과 영역

정책유형		정책 내용	정책대상과 주체	정책수단
국제회의 유치·개최		- 국제회의 유치, 해외홍보, 국제회의 개최, 국제회의 육성	- 주최자, 개최자, 국제회의업	- 배분정책, 상징정책 - 법 제7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역컨벤션뷰로, 국제회의업	- 구성정책 - 법 제5조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국제회의 인프라 확충 및 운영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 국제회의업, 관련 시설	- 배분정책, 구성정책 - 법 제8조, 제9조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 국제회의업, 지역컨벤션뷰로, 학계	- 배분정책 - 법 제8조, 제10조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및 기술육성 - 국내외기관과 협력사업	- 국제회의업	- 배분정책 - 법 제8조, 12조
	전문 정보 제공 및 유통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가공 및 유통	- 국제회의업, 학계	- 배분정책, 구성정책 - 법 제6조, 제8조, 13조
	국제협력 촉진	-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 -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예의 참가	- 국제회의업, 관광사업	- 배분정책, 상징정책 - 법 제8조, 제11조
국제회의도시·지구 육성		-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국제회의업, 전담조직, 관련 시설 및 공급자 등	- 배분정책, 구성정책 - 법 제14~15조

2.2. 시사점

-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법정 당시(1997년)의 기준으로,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 국제회의 참가 방식 등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현재 국제회의의 개최실적, MICE 산업통계 등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법률에 정의된 국제회의의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제회의기획업과 시설업은 정책범위에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주최자와 간접공급자에 대한 지원과 육성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지원이 요구됨

3. 국제회의산업 정책 실태와 성과 분석

3.1. 국제회의산업 정책 예산 및 성과 탐색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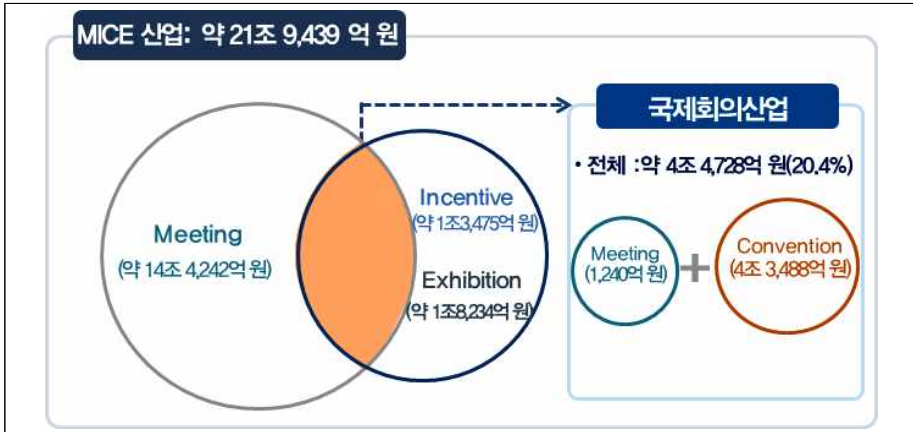
- 국제회의산업 정책 예산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3,28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과 광역지자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중앙부처 예산의 경우 5개년 누적 예산 중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이 약 6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이래로 2020년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비중의 예산은 MICE 유치·개최 지원(약 193억 원, 63.5%) 부분으로 나타남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5개년(2016~2020) 정책 예산유형의 경우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이 63.3%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이 전 시장 등의 인프라 구축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3.2.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분석

-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발간된 MICE산업의 통계 자료 및 보고서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MICE 산업의 수요 규모를 산출하고 이 중 정책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의 지원 범위와 기준을 재검토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를 재도출하였음
-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범위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

상이 참가하는 2일 이상의 국제회의를 기준으로 재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미팅 부분에서 약 1,240억 원, 컨벤션 부분에서 약 4조 3,488억 원으로 총 국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총 수요 규모는 약 4조 4,728억 원으로 분석됨

[그림 1] MICE산업 중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 재분석(안)



주: 본 연구에서 기존 MICE 관련 통계를 토대로 산업 전체 수요규모를 재분석하고 이에 따라 제시한 국제회의의 3가지 유형 중 2안을 토대로 국제회의산업 규모를 재도출한 결과임

3.3. 국제회의산업 재정투입과 성과 영향관계 분석

- 국제회의산업 재정투입과 성과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MICE 산업 지원 유형별 예산과 성과 지표간의 영향관계를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음
- MICE 산업의 6개 지원예산 유형 중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은 MICE산업 주요성과변수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MICE 산업에서 정부의 지원 역할을 기존의 직접적인 지원인 유치개최 지원과 더불어 간접지원인 홍보 마케팅과 MICE 산업의 전문적인 정보제공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담조직지원예산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MICE산업을 지원할 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MICE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4. 국제회의산업 정책 인식조사 분석

- 국제회의 정책 인식조사 분석을 위해 MICE 관련 이해관계자를 공무원, 마이스 관련 학계 전문가, 업계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절차 및 방식과 산업발전에 대한 의견은 모두 보통이상으로 국제회의산업 정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회의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속 유지해야할 정책은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과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나타났고, 추진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집중 개선 노력이 필요한 정책은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조사되었음
- 정책 사업 목표의 중요도 및 실행 가치의 재설정 또는 혁신이 필요한 정책은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국제회의 업계 및 인력 지원’, ‘국제회의산업 관련 지식·통계 연구 지원’으로 나타남
-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단기간으로 활용·효과 미흡’,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흡’ 순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주된 원인으로는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부족’과 ‘추진 거버넌스 체계 한계’가 높은 순위를 차지함
- 국제회의산업 지원/제도와 정책수립/집행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지원 금액, 유형,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회의산업 명칭 의견으로는 ‘마이스산업’이 가장 높지만, 현행 ‘국제회의산업 유지’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 시점은 ‘2022년 상반기 중’, 국제회의산업 수요 정상화 시점은 ‘2022년 하반기 중’ 응답이 가장 높아 국제회의산업이 이전과 같이 정상화가 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국제회의산업에서 변화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분야는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 관련’, ‘국제회의 활용 기술 관련’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며, 비대면 방식의 국제회의 활성화 및 화상,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제회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방식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바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개최 방식 변화에 대응한 정책지원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 인식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정부의 인식이 낮게 나타난 반면, 학계와 업계의 문제점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지원의 효율과 효과 측면의 문제점과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책 지원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실효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정부보다 학계와 업계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나 나타나 정부와 산업계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됨

5. 국제회의산업 정책 관련 이슈와 정책 과제

5.1. 국제회의산업 정책 이슈 분석

- 국제회의산업 현황과 제도 분석, 예산 실태 분석과 성과와의 영향,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의 산업 규모 분석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제회의산업 정책방향과 제도’, ‘국제회의 지원체계와 방식’, ‘국제회의 산업육성 체계와 방식’ 3가지 항목별로 이슈를 도출함
- 국제회의 산업 정책방향과 제도 이슈로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 가치 정립과 정책 목표 재설정, 법제도 체계 및 통계 정비, 정책 실효성 강화에 대한 이슈가 도출됨
- 국제회의 지원체계와 방식 이슈로는 재정투입 효율성 제고, 정책지원체계 개선, 국내외 국제회의산업 여건 변화 대응 이슈가 도출됨
- 국제회의산업 육성체계와 방식 이슈로는 정부와 산업계의 인식차이, 산업생태계 강화와 국가/지역 특화산업 육성 견인을 위한 정책방향, 생존과 혁신의 방향, 기업경영 여건 개선 이슈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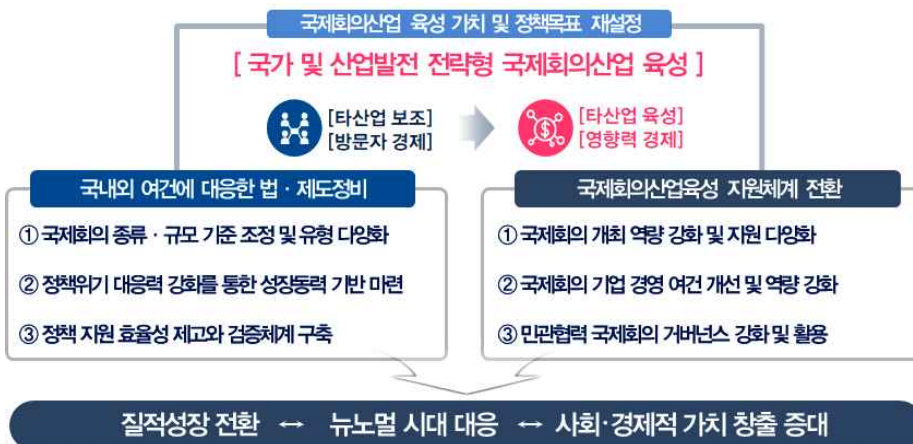
[그림 2] 국제회의산업 실태분석 결과와 개선방향

국제회의 산업 정책 방향과 제도	→	실태분석 결과와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유치개최 관점의 정책 한계 • 국제회의 및 MICE 정책 범위 혼재 • 국내외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회의 유형과 범위 개선 필요 	→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 및 방향 재설정 필요 • 정책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 필요 • 국제회의의 기준과 유형 재검토 필요
국제회의 지원 체계와 방식	→	실태분석 결과와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의 및 전시 등 정책지원 범위와 방식 재검토 • 유치-홍보-개최 프로세스 효율성 저하 • 코로나 19영향에 따른 유치 개최 방식 변화 	→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원 실효성 및 효율성 강화 • 정책지원 방식과 절차 재정립 • 코로나 19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
국제회의 산업육성 체계와 방식	→	실태분석 결과와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 및 인력지원 등 산업부분에 대한 정책만족도 저하 • 코로나 19영향에 따른 업계 경영 유지 어려움 • 수도권과의 지역의 산업여건 격차 	→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식 발굴 • 국제회의산업계 생존 및 전략 수립 •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5.2. 국제회의산업 정책방향 및 과제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슈와 개선방향을 토대로 정책목표와 가치의 재설정과 이에 따른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그림 3] 국제회의산업 정책목표와 과제



가. 국내외 여건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과제

- 국제회의산업 정책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의 정의 및 기준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및 산업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등의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건의되었음
- 또한, 최근 코로나 19 영향에 따라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방식의 변화’, ‘국제회의의 개최 장소 및 시설 관련 변화’ 의견이 제시되면서 참가 방식 등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기준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기준의 장단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표 2〉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기준 개선 방향(안)

구분		방향	세부 내용
개선 (안)	[단기]	재난재해시 지원가능한 근거와 종류 추가	- 시행령 3호에 감염병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준을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정하여 기준과 기한을 별도 제시
	[장기]	1안	- 기존 2가지 유형은 유지 하되 외국인참가자수(50명)와 참가국수(2개국) 및 개최일수(2일)를 완화 * 세부 연구 등 통한 완화 수준 제시 필요
		2안	- 단기 예외 조항 3호 신설 이후 시행령 4호를 신설하여 시행령 1,2, 3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회의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기준(MICE 유형 및 기준)을 별도 명시

- 산업 위기에 따른 상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기능 강화 및 전담기관 지정과 위기 단계별 피해 기업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응 지침 등의 위기상황에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비한 국제회의산업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 마련이 필요함
-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의 재정 투입에 따른 실제 성과 및 효과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시기와 기간, 규모와 방법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함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체계 전환 과제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국제회의업을 대상으로 기획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회의기술 및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개발 등 국제회의 R&D 사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국제회의 참가자의 성향, 관심도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제회의의 기획, 고객 유치 마케팅, 수익률(ROI) 분석 등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회의의 관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로도 큰 변화 양상이 예상되는 바, 국제회의산업 관련 기업이 생존, 나아가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형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한 ‘뉴노멀 마이스(MICE)분야 공정거래 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지원 부여와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국제회의 주최자 대상의 수시 교육 및 국제회의 기업 대상의 온·오프라인 정기 교육, 공정거래 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이 필요함
-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며, 프리랜서 인력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 인력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제회의산업 노동환경 실태 점검과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컨벤션뷰로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차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이를 민간차원에서 보다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체계가 요구됨
- 향후 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의 행사 유치지원 업무에서 벗어나 마이스참가자의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와 체계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과 절차	8
 제2장 국제회의산업 정책 개념과 제도 현황	11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3
1. 정책의 개념과 이론	13
2. 선행연구 검토	17
제2절 국제회의산업 정책 개념과 유형	22
1. 국제회의산업 개념과 특성	22
2. 국제회의산업 구조와 정책범위	34
제3절 국제회의산업 현황과 제도 분석	39
1. 국제회의산업 현황	39
2. 국제회의산업 예산 현황	50
3.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체계	53
4. 국제회의산업 정책 지원 및 추진 체계	62
제4절 국제회의산업 정책 현황 분석 시사점	69
1.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성과 의의	69
2. 국제회의산업 정책유형과 영역	71
3. 국제회의산업 정책 현황과 시사점	72

제3장 국제회의산업 정책 실태와 성과 분석 75

제1절 국제회의산업 정책 예산 및 성과 탐색적 분석	77
1. 분석개요	77
2. 탐색적 데이터 분석 결과	81
제2절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분석	114
1. 분석개요	114
2.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분석결과	116
제3절 국제회의산업 재정투입과 성과 영향관계 분석	130
1. 분석방법 및 모형	130
2. 분석결과	136
제4절 분석 종합 및 논의	145

제4장 국제회의산업 정책 인식조사 분석 147

제1절 조사 개요	149
1. 조사 개요	149
제2절 조사 결과	151
1.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전반적 인식	151
2. 국제회의산업 정책 이슈와 개선 방향	156
3. 이해관계자 집단 간 차이 분석	166
제3절 주요결과 및 시사점	173

제5장 국제회의산업 정책 관련 이슈와 정책 과제 177

제1절 국제회의산업 정책 이슈 진단과 분석	179
1. 국제회의산업 정책 이슈 진단	179
2. 국제회의산업 정책 이슈에 따른 개선방향	183
제2절 국제회의산업 정책과제	185
1. 국제회의산업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185
2. 국내외 여건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과제	187
3. 국제회의산업육성 지원체계 전환 과제	191

제6장 결론 및 제언	197
-------------------	-----

제1절 결론	199
--------	-----

제2절 정책 제언	201
-----------	-----

제3절 연구 한계	203
-----------	-----

참고문헌 /	205
--------	-----

ABSTRACT /	209
------------	-----

부록 /	211
------	-----

【부록】 설문조사지 /	213
--------------	-----

표 목차

〈표 1-1〉 연구 수행 전반적 절차	9
〈표 2-1〉 정책효과 및 효과측정 분석기법 선행연구	17
〈표 2-2〉 정책 투자성과 분석 사례	21
〈표 2-3〉 UNWTO의 MICE 분류체계 및 포괄범위	24
〈표 2-4〉 MICE 유형별 범위(산업통계 기준)	26
〈표 2-5〉 UIA 국제회의 구분기준	27
〈표 2-6〉 국가별 국제회의 구분기준 비교	28
〈표 2-7〉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주요 내용	37
〈표 2-8〉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	39
〈표 2-9〉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및 순위(2018기준)	40
〈표 2-10〉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2018기준)	41
〈표 2-11〉 MICE산업 현황(2014~2018년) 개최건수 및 참가자 수	42
〈표 2-12〉 국제회의업 매출액 추이	43
〈표 2-13〉 국제회의업 관련 현황	44
〈표 2-14〉 국제회의기획업 지역별 현황	45
〈표 2-15〉 국제회의기획업 매출액 규모 현황	46
〈표 2-16〉 국제회의기획업 종사자 규모 현황	46
〈표 2-17〉 MICE산업의 총 규모	47
〈표 2-1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48
〈표 2-19〉 국제회의 시설업 및 전시시설사업자 종합	49
〈표 2-20〉 중앙정부 국제회의산업 관련 예산	50
〈표 2-21〉 산업통상자원부 전시회 관련 예산	52
〈표 2-22〉 국제회의업 관련 법률	53
〈표 2-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계(2017년 11월 28 개정)	55
〈표 2-2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개정문 내용)	57
〈표 2-25〉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59
〈표 2-26〉 지자체 국제회의 및 마이스 조례 주요내용	61

〈표 2-27〉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항목	64
〈표 2-28〉 2018년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사업 내용	66
〈표 2-29〉 2012~2018 지역특화컨벤션 현황	66
〈표 2-30〉 컨벤션부로 현황 및 조직 형태	68
〈표 2-31〉 국제회의산업 정책유형과 영역	72
〈표 3-1〉 예산 항목별 세부 내역	78
〈표 3-2〉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예산	82
〈표 3-3〉 광역자치단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예산	90
〈표 3-4〉 유형별·대상별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예산	93
〈표 3-5〉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예산(2020년): 중앙부처,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94
〈표 3-6〉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예산(5개년 문화체육관광부)	98
〈표 3-7〉 국제회의산업 전체성과(5개년)	109
〈표 3-8〉 광역자치단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성과	110
〈표 3-9〉 시도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성과	112
〈표 3-10〉 국내 MICE산업의 수요 규모	116
〈표 3-11〉 국내 MICE산업의 수요 규모(주최자 수요 규모 포함)	118
〈표 3-12〉 국제회의 구분 기준	120
〈표 3-13〉 ①안에 따른 Meeting 부문 재분류(개최건수,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121
〈표 3-14〉 ①안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122
〈표 3-15〉 ②안에 따른 Meeting 부문 재분류(개최건수,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123
〈표 3-16〉 ②안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124
〈표 3-17〉 ③안에 따른 Meeting 부문 재분류(개최건수,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125
〈표 3-18〉 ③안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126
〈표 3-19〉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수요 규모 확대(안)	127
〈표 3-20〉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도출(안)	129
〈표 3-21〉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량 특성	133
〈표 3-22〉 기술통계	136
〈표 3-23〉 상관관계분석	137
〈표 3-24〉 외화획득액에 대한 가설검증	138
〈표 3-25〉 MICE 참가자수에 대한 가설검증	138
〈표 3-26〉 국제회의업 매출액에 대한 가설검증	139
〈표 3-27〉 UIA 개최건수에 대한 가설검증	140
〈표 3-28〉 ICCA 개최건수에 대한 가설검증	141

〈표 3-29〉 전체와 지자체 구분 연구결과 요약	143
〈표 4-1〉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문항	150
〈표 4-2〉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영향	151
〈표 4-3〉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절차 및 방식	151
〈표 4-4〉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	152
〈표 4-5〉 MI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	153
〈표 4-6〉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	154
〈표 4-7〉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	155
〈표 4-8〉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	156
〈표 4-9〉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주된 원인	157
〈표 4-10〉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158
〈표 4-11〉 국제회의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 개선의견	159
〈표 4-12〉 국제회의산업 명칭에 대한 개선의견	160
〈표 4-13〉 국제회의산업 명칭에 대한 개선의견	161
〈표 4-14〉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 시점	162
〈표 4-15〉 국제회의산업 수요 정상화 시점	163
〈표 4-16〉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분야	163
〈표 4-17〉 온/오프라인 행사 형태 대체 정도	164
〈표 4-18〉 온라인/하이브리드 정책 지원 필요성	164
〈표 4-19〉 응답자 특성	165
〈표 4-20〉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 집단간 차이 분석	166
〈표 4-21〉 M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 집단간 차이 분석	167
〈표 4-22〉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	168
〈표 4-23〉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	169
〈표 4-24〉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	170
〈표 4-25〉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171
〈표 4-26〉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172
〈표 4-27〉 국제회의산업 정책 전반적 인식 요약	174
〈표 4-28〉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이슈 요약	174
〈표 4-29〉 국제회의산업 정책 개선 의견 요약	175
〈표 4-30〉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방향 요약	176
〈표 5-1〉 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 개선 방향(안)	188

그림 목차

[그림 2-1] 정책과정과 유형	16
[그림 2-2] MICE산업의 순환 구조	31
[그림 2-3] MICE 산업의 수요·공급 구조	34
[그림 2-4] 국제회의 정책범위영역	35
[그림 2-5]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36
[그림 2-6]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38
[그림 2-7] UIA·ICCA 국가 및 도시별 개최건수	40
[그림 2-8] MICE 유형별 개최건수 및 참가자수(2017~2018년)	42
[그림 2-9] 국제회의업 1개소 평균 매출액 추이	43
[그림 2-10]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체계	62
[그림 2-11]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 지원 프로세스	65
[그림 2-12] 국제회의 정책 추진 체계	67
[그림 3-1] 분석과정 및 방법	80
[그림 3-2]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예산 변화(2016~2020)	81
[그림 3-3] 중앙정부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예산 변화(2016~2020)	83
[그림 3-4] 광역자치단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예산 변화(2016~2020)	84
[그림 3-5] 광역시 중심 8개 광역지자체 전년대비 예산 증감율	86
[그림 3-6] 광역시 중심 8개 광역지자체 연도별 예산규모 변화	87
[그림 3-7] 도(道)단위 8개 광역지자체 연도별 예산규모 변화	88
[그림 3-8] 도(道)단위 8개 광역지자체 전년대비 예산 증감율	89
[그림 3-9] 2020년 예산유형 비중	91
[그림 3-10] 유형별 예산 비중(5개년 합계)	91
[그림 3-11] 유형별·연도별 예산 규모 및 비중(2016~2020) 및 증감율	92
[그림 3-12] 중앙정부 유형별 예산규모 변화	95
[그림 3-13] 문화체육관광부 유형별 예산(5개년 합계)	96
[그림 3-14] 문화체육관광부 유형별 예산(2020년)	97
[그림 3-15] 문체부 유형별 전년대비 예산규모 증감율	97

[그림 3-1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예산규모 변화	99
[그림 3-17]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	100
[그림 3-18]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예산	101
[그림 3-19]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지원 예산	102
[그림 3-20]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전문정보 제공 등 연구 및 학계 지원 예산	103
[그림 3-21]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인프라 구축 예산	104
[그림 3-22]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전담조직 지원 예산	105
[그림 3-23] 중앙정부 정책성과Ⅰ: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외화획득액	106
[그림 3-24] 중앙정부 정책성과Ⅱ: 국제회의업 매출액	107
[그림 3-25] 중앙정부 정책성과Ⅲ: 국제회의업 종사자수	108
[그림 3-26] 중앙정부 정책성과Ⅳ: MICE 참가자 수 및 행사의 전반적 만족도	108
[그림 3-27]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 산출 과정	115
[그림 3-28] MICE산업 중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 재분석(안)	128
[그림 4-1] 국제회의산업 정책 주요 효과	152
[그림 4-2] MICE산업 유형별 정책지원 성과 효율성	153
[그림 4-3]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	154
[그림 4-4]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	155
[그림 4-5]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이슈	156
[그림 4-6]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158
[그림 5-1] 국제회의산업 실태분석 결과와 개선방향	184
[그림 5-2] 국제회의산업 정책목표와 과제	186
[그림 5-3] IT 기술을 접목한 주요 회의 기술	192
[그림 5-4] 국제회의의 CVB/DMO 역할 확대 방향(안)	196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국제회의산업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으로까지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1998년(1차), 2005년(2차), 2013년(3차), 2019년(4차)에 수립해 나가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산업은 숙박, 쇼핑, 식음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해 파급효과가 높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산업으로(문화체육관광부, 2019) 2009년부터는 국제회의산업을 확대한 융·복합산업으로서 MICE¹⁾산업을 정부의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하며 적극 육성하였다. 국제회의산업을 통해 획득한 외화획득액은 2012년 16.7억 달러에서 2016년 27.8억 달러로 연평균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2,941달러(2017년 기준)로 일반 방한외래객 지출액 1,481달러(2017년)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MICE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회의 시설 확충, 별도의 법률 제정,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내 MICE산업은 짧은 시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2019년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실적 세계 2위를 달성하였다. 최근 지역 간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격적이고 다양한 마케팅과 유치·개최 지원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 관련 예산도 2019년 기준 259억 원에서 2020년

1)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각 단어의 첫 글자를 합성한 용어로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303억 원으로 약 50억 원 증액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관련 법률인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4차: 2019년)을 시의성 있게 수립하여 지원 중이다.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래객 유치 증대를 위해 MICE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기업회의·인센티브’, ‘컨벤션 활성화’, ‘전시이벤트’, ‘기반조성’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하여 추진 중이며, 그 외에 ‘인력양성 및 연계지원’, ‘PCO업계 양성 강화 사업’ 등은 협회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MICE산업 추진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국제회의산업 관련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들이 강화되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 비율 역시 서울·부산·제주가 우리나라 전체의 84.8%(756건)를 차지(서울 688건, 부산 212건, 제주 139건, 경주 18건, 고양 13건, 광주 10건 등)하는 등 국제회의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개최되고 있다. 관련 대표 사업체인 국제회의기획업은 서울에 약 554개(64.8%)로 편중되며 MICE산업의 지역 발전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MICE 회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관련 부처와 법률이 다르게 설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 지자체의 국제회의 관련 정책 및 집행 현황 등의 실태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범위는 “MICE” 산업의 회의산업 전체를 포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투어, 이벤트 및 전시 등은 법적인 정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범위도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 행정단위별로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미팅(Meeting), 컨벤션(Convention), 인센티브 투어(Incentive Tour) 분야는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전시(Exhibition)는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분리되어 별도의 지원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MICE산업 전체의 통합적인 실태파악에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 중 기업회의의 형태인 미팅과 이벤트 분야는 그 범위와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라 정부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의 개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형태는 유치와 개최 및 조직 지원 등 재원 유형에 따라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형태에 따라 수혜자가 상이하고, 개최 지원금이 오·만찬, 기념품 제작, 놀이공원 방문 등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2019년 국정감사 등)이 제기되는 등 국제회의산업정책 지원 실태와 현황 파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가 현재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내 관광시장 역시 방한관광객 및 국민 해외여행객이 전년대비 각각 97.7%, 98.7% 급감하였으며, 국내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은 평균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2020.06.19. 기준)되어 국내관광 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향후 국제회의의 관련 유치·개최, 마케팅 등 정책방향과 산업운영 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산업 여건과 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국제회의산업 거버넌스 체계 및 제도적 지원방안 재정립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제회의산업과 관련된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관련 지원 조례, 단계별 지원 제도 등 제도적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 예산 추진 실태와 규모 분석, 투입 성과 등 정책추진 실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국제회의의 산업정책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국제회의의 산업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첫째, 정책의 개념과 이론 분석을 토대로 국제회의의 관련 정책 범위를 고찰하고, 타 분야에서 정책진단을 위해 활용한 연구 분석 방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방법론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진단해 오던 연구 분석과 해석 방법이 아닌 정책 추진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측면에서 국제회의산업 정책 실태를 진단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국내 관광정책 연구에 모색해 봄으로써 실제 추진 결과를 비교, 진단해 보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더욱 불확실하고 복잡해져 가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미래 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한 접목이 요청된다. 이러한 명제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한 미래 국제회의산업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한 기회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방법 및 분석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관련 예산과 유형, 지원 제도 등 정책 추진 실태 등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향후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국제회의의 관련 정책개념 고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현재 정책 범위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회의의 관련 정책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본다. 더불어 중앙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국제회의 유치·개최 관련 다수의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한 예산 집행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의의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유형 등을 재분류하여 수요자(국제회의참가자) 관점에서 수요 규모를 재분석하고, 주체(중앙/광역)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지원 유형과 비중 및 정책성과 등 연도별 정책 변화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성과와 지원 제도 간 영향 관계 등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국제회의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 집행기관 및 수요자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제도는 단계별(유치-개최-지원) 지원 체계와 형태, 방법 등에 따라 지원 수혜자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 집행기관과 수요자 관점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이슈를 진단하고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성취도 분석을 통해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실제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국제회의의 관련 제도의 현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 정책의 효과성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제회의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system), 유치·개최(process) 지원을 포함한 중앙과 민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실행과 집행을 위하여 정책의 정합성(policy coherence)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고려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정책 목표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집행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등 향후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국제회의의 유치 과정 상 주체 간, 수혜자 간 연계성과 협력, 정책적 협력 기제 등이 반영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의 틀 속에서 도출된 결론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국제회의산업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체계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통하여 지원 예산이 집행되는 전국의 17개 광역시와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한다.

나. 대상적 범위

본 연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와 유형에 의거하여 제16조(재정 지원)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된 정책, 관련 예산 및 조례 등을 대상적 범위로 한다. 단, 현재 전국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MICE산업’이라는 용어 및 형태로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현황분석(제도 및 예산 등)과 인식조사는 MICE산업의 범위를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다.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률 및 조례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과와 관련된 분석, 기준 연도는 국제기구 통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라.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앙 및 지자체의 국제회의 관련 법률과 예산 등 관련 제도 현황, 이와 연계된 지원 체계 등 정책 거버넌스 체계 파악, 지자체의 국제회의 추진 계획 및 개최·유치 현황, 기관별 지원 제도 유형과 예산추진 실태 등의 국내 정책 현황 및 문헌 고찰이다. 둘째, 조사 및 정제된 전국 데이터를 활용한 예산 현황 실태와 성과와의 영향관계 분석, 국제회의 정책 담당자(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회의산업 정책 실태 및 이슈 분석 등 조사·분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된 두 가지 단계를 통해 향후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정합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과제 도출이다.

2. 연구 방법과 절차

가.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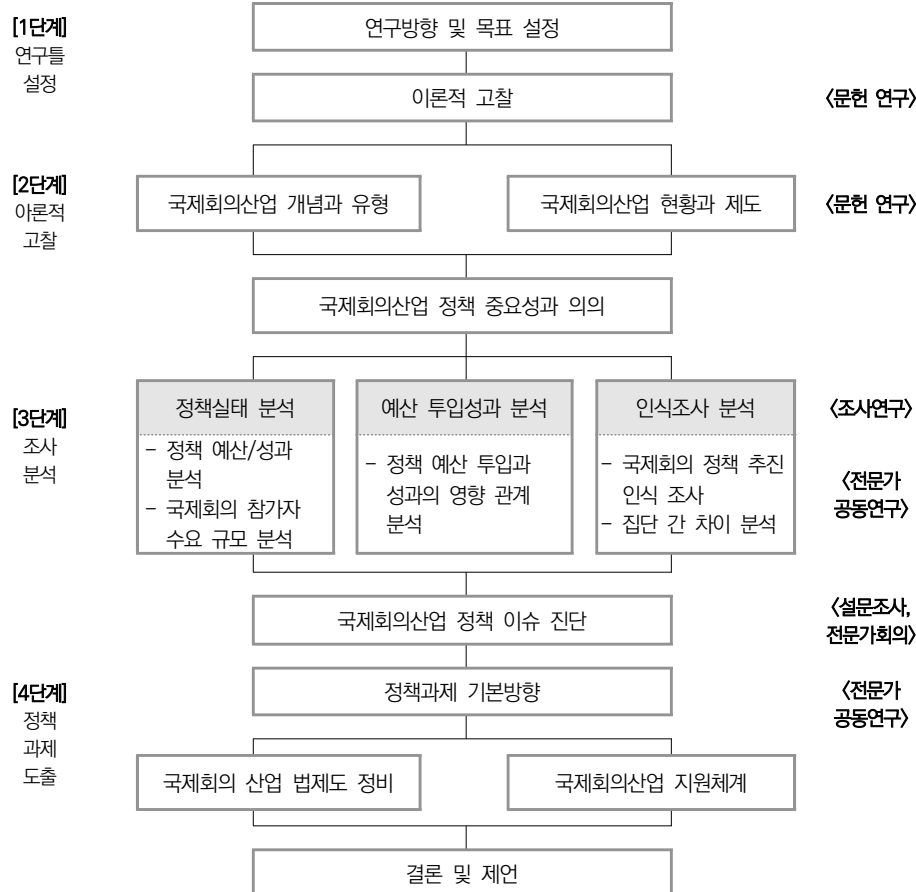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조사 연구, 전문가 협동 연구로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정책 필요성과 의의 등을 고찰하기 위해 현행법상 국제회의산업, MICE산업 등 선행 서적과 논문 및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연구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항목 현황 조사, 관련 기관 예산 항목 현황 조사, 국제회의 관련 정책 계획 및 조례 현황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정제하여 활용하였다. 전문가 협동 연구는 관련 전문가(경제 및 국제회의의 관련)와 공동 연구 및 자문 원고를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의 국제회의 추진 실태 및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회의, 전문가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나. 연구 수행 절차

연구 수행 절차는 <표 1-1>과 같으며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기존 문헌과 자문회의 및 연구심의회를 통해 연구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부처별) 및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회의 관련 법·제도 등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 분석 및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회의 관련 정책현황을 파악하였다. 3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책 예산 추진 실태를 분석(2015~2019년)하고, 기존 통계를 활용하여 법적 기준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규모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회의 정책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현행 국제회의 정책 추진의 문제점 및 이슈 진단과 개선방향 등의 인식 조사를 위해 정책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앞서 실시한 현황 검토 및 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 및 산업 분야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1-1〉 연구 수행 전반적 절차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제2장

국제회의산업 정책 개념과
제도 현황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책의 개념과 이론

가. 정책의 개념과 유형

정책 개념의 정의는 사회 시대별 또는 분야 및 학자별로 차이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나, ‘사회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익에 연관된 일련의 결정’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으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6),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만들기 위해 권위를 부여 받은 정부 기관의 공식적, 합리적,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연구의 대상은 정책의 3요소인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그리고 ‘정책 대상자’이며(이동수, 2020), 여기에 추가로 이들 3요소에 대한 정책 문제가 제기되고, 대안이 분석되고, 과제가 결정되고, 과업이 집행되고, 결과가 평가되는 ‘정책 과정’이다(차재권, 2010).

정책 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미래(desirable future state)’이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현재 사회 상태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사회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참여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공익의 달성’을 의미한다. 정책 목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치유적 목표’와 미래 발전 지향적인 ‘창조적 목표’로 구분되거나, 궁극적 목표인 ‘상위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적 목표인 ‘하위 목표’로 구분하는 ‘목표-수단의 계층화(ends-means hierarchy)’로 구분된다(정정길 외, 2011; 황병상, 2019). 여기서 하위 목표는 상위 목표에 대한 수단적 성격과 수단 자체의 목

표적 성격을 모두 가지기에 ‘도구적 목표(instrumental goal)’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정정길 외, 2011).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분야에 대한 정책 목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의 형태로 규정된다(임현, 2014).

정책 수단은 말 그대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책의 상위 목표에 대한 수단적 하위 목표라 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과 이를 실제 수행하기 위한 ‘실행적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정길 외, 2011; 황병상, 2019). 실질적 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수단의 계층화’에 의해 계속 하위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실질적 수단을 계속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정정길 외, 2011). 예를 들어 ‘국제회의 개최 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 수단은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설명회 개최’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적 수단을 계속 구체화시키면 마지막에는 이를 직접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정책 실행의 ‘조직 및 인력’과 ‘예산’으로 결부된다(정정길 외, 2011).

정책 대상자는 ‘정책의 적용이나 영향을 받는 집단 또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정책 대상자는 정책 적용의 성격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정책수혜자’이며, 다른 하나는 정책 실행으로 희생을 받는 ‘정책비용부담자’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수혜자는 정책에 찬성이나 순응하기 쉬우며, 정책비용부담자는 정책에 반대나 불응하기 쉬운데 정책대상자들의 반응은 바람직한 정책의 입안 및 성공적인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정길 외, 2011; 황병상, 2019).

나. 정책추진 과정

정책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바로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인데, 정치학과 행정학의 의해 만들어진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대한 접근방식 또한 행정학적 접근방법과 정치학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진다(박순애·최경희, 2020).

행정학적 접근방법은 주로 정책과정의 결과로 드러난 산출물(output)로서의 정책(policy)이 어떤 요인과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는데, 즉 산출물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차재권, 2010). 이러한 산출중

심의 정책결정모형은 산출물을 토대로 정책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내용이나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적 목적을 갖고 있다. 반면, 정치학적 접근방법은 주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분석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의 산출(output) 요소보다는 투입(input) 요소에 관심을 갖는다(차재권, 2010).

Dunn(1981)은 정책과정을 1) 의제설정, 2) 정책형성, 3) 정책채택, 4) 정책집행, 5) 정책평가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책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책과정의 이론적 모델은 바로 이 Dunn의 5단계 모형이라 할 수 있다(차재권, 2010).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구분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환류(feedback)의 4단계로 구성된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6).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 있어 분석과 결정 등을 포함하여 ‘정책 문제’, ‘정책 분석’,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보완’의 순환적 흐름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 정책 문제: 정부 조직이 해결하고자 의제로 선정한 사회문제
- 정책 분석: 정책 문제 해결 여건을 분석하여 최상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대안에 대한 식별과 검토
- 정책 결정: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대한 결정
- 정책 집행: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 수단을 실행하는 활동
- 정책 평가: 정책 집행 후에 그 결과(효과성 등) 및 원인 요인에 대한 평가
- 정책 보완: 정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의 미래발전 지향적 재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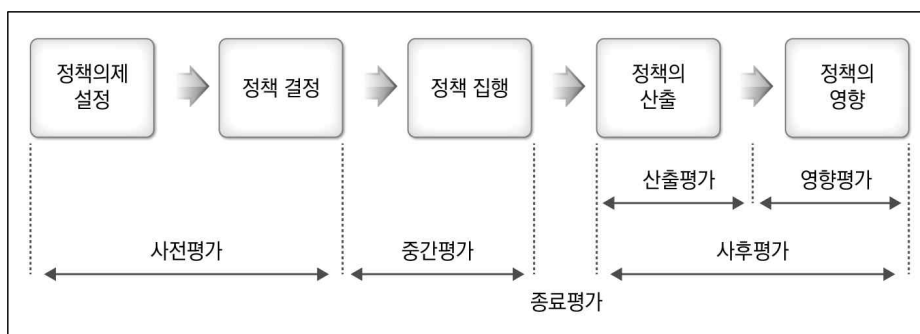
이러한 정책 과정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위생, 기술 관련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정책과정에 대한 갈등은 일반적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비용을 좌우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갈등이 야기된 후, 결국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결정이 합리적 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며, 궁극적으로 많은 정책과정 중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책 추진 실태를 진단함은 이모든 정책의 과정과 성과를 진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효과성 모형은 정부의 개입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려고 만든 모형으로써 정부

의 개입형태의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효과성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성의 다차원적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효과성 모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차원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시각으로 효과성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평가모형의 다양성으로 귀결된다(류영수 외, 2013: 46).

박홍운(2012: 36)은 정책과정과 성과의 유형을 다음 [그림 2-1]과 같이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평가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사후평가는 산출평가와 영향평가로 구성하여 산출평가를 통해 정책으로 인한 산출물(output) 즉 정책 프로그램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들을 평가하고 영향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한 효과와 영향이 계속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그림 2-1] 정책과정과 유형



자료: 윤수재(2019),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재구성, 한국행정연구원.

본 연구는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3요소인 국제회의산업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자’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산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책예산’, ‘정책 추진체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 추진 과정과 인식 및 성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정부의 정책 진단과 효과분석은 특정기준에 의해 정책효과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연구자가 정책이나 프로그램 특성과 분야에 따라 정책효과 측정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효과 및 영향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조건부가치평가법, 중요도-성취도 분석, 비용편익분석, 회귀분석, 논리모형(Logic Model), 시나리오기법, 델파이기법, 산업연관분석, 서브윅, 비용편익분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산업지원형태인 R&D, 재정정보조금 분야 등의 <표 2-1>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당 분야들의 정책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수혜자 대상에 따른 차이분석과, 상대적 효율성 분석(DEA),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 및 문화 정책분야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1〉 정책효과 및 효과측정 분석기법 선행연구

구분		저자(년도)	효과(성) 측정방법	내용	정책효과
R & D	중소 기업 R&D 지원	육헌영, 노동기, 서종현 (2019)	계량분석 (회귀분석)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기여도 파악	지업기업과 미지원기업간 성장성 (매출,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의 차이
		노민선, 조호수, 백철우 (2018)	계량분석 (패널모형)	R&D 조세지원제도와 정부 R&D 지원의 영향 비교분석	기업의 R&D 투자액, 고용한 연구원 수(명)
		배영임 (2014)	설문조사, Kruskal-Wallis 검정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5개에 대하여 성과분석 (① 효율성, ② 효과성)	① 단기적인 성과: 효율성, ② 중·장기적인 성과: 효과성 - 효과성: 경제적 성과 + 파급효과
		박경주 (2007)	계량분석 (회귀분석)	중소기업 기술혁신분야 R&D 투자가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용창출 효과, 인력감출 효과, 생산비 절감 효과, 이윤증대 효과
	성과 평가 제도	배정희 (2018)	계량분석 (시계열분석)	한국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시행이후 나타난 부가 효과 분석	과학생산성(SCI논문수), 기술 생산함수(내국인 국내특허 출원건수)
	학술 연구비 지원 정책	김태일, 남궁근 (2003)	계량분석 (회귀분석)	연구비 지원방식과 연구결과물의 수준관계를 중심으로 학술 연구비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계제 학술지 등급(교내 학술지, SCI, SSCI 등)을 5등급으로 평가

구분	저자(년도)	효과(성) 측정방법	내용	정책효과
	폐자원 에너지 R&D 산업	우희진, 윤혜리, 박종구 (2018)	회귀분석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	폐자원에너지산업의 R&D 효과 성 분석
	지역 연구 개발 사업	한정숙, 안성용, 김학균 (2017)	분산분석 (MANOVA)	사업 기획주체와 사업성격에 따 라 사업평가 결과의 차이분석
	인건비 지원 사업	노민선, 김석필, 이기종 (2013)	계량분석 (회귀분석)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과 R&D자금 출연 지원사업의 효과성 비교
	지역 산업 진흥 사업	윤윤규, 고영우 (2011)	계량분석 (프로빗 회귀분석 등)	정부 R&D지원(지역산업진흥 사업)의 순효과(net effects) 추정
재 정 보 조 금	재정 지원	최 훈, 박만희 (2019)	계량분석 (이중차이분석)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 의 재해감소 효과 분석
	재정 분권	정재진, 김지연 (2011)	계량분석 (회귀분석)	제도 도입 및 개편에 따른 재정분권정책의 효과 분석
	보조금	김근식 (2009)	설문조사, 계량분석 (회귀분석)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원인분석
관광정책	금기용, 서위연 (2009)	설문조사, 갭분석,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분석	서울시 외래관광객 관광진흥정 책의 효과성 분석: (2007년/ 2009년) 서울의 관광여건과 환경변화 분석	관광지인지도-선호 (Cognition-Preference, C-P) 갭 차이
문화예술	한국 조세연구원 (2012)	만족도설문 단순DEA	문화예술위원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된 문화예술행사 관람객 만족도 조사 각 분야별 문화예술 관련 NPO에 대한 단순 DEA분석	만족도 설문 투입물: 총 공연 전문인원, 총 지출액, 총 인건비성 지출 산출물: 총 관람객수, 총 공연 횟수, 총 공연일수
귀농·귀촌	전익수 (2019)	계량분석 (이중차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들에 대한 효과분석	귀농정책 수혜를 입은 가구와 입지 않은 가구 간 소득 차이 (소득효과)

자료: 윤수재(2019),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재구성, 한국행정연구원.

이중 예산 투입과 관련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한 로봇산업 R&D 투자성과 측정방법(2013)과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시행한 산업재정정책 평가분석구축에 관한 연구(2010) 등 <표 2-2>와 같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에서는 환경분야 관련 정책에 투입되는 정부재원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의 예산을 수질, 상수도, 하수도, 대기, 폐기물, 토양, 자연보전, 환경기술개발 등 총 11개의 주요 분야로 구분하여 종합하고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OECD 환경지표, EPI, SDI 등 다양한 환경분야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과 환경통계포털, e-나라지표에 공시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성과지표의 현황을 파악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또한 11개 주요 분야로 종합한 환경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실시하여, 환경관련 예산과 성과지표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구원(2013)에서는 로봇산업의 대한 정부의 R&D 투자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1차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여 로봇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였으며 2차로 로봇산업 정책의 대한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7~2012년까지의 로봇산업 실태조사 데이터와 자체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방법론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얻어진 분석결과를 하우스만 검증을 통해 비교하여 확률효과모형을 분석모형으로 선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는 로봇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다수의 선행연구가 도달하였던 결론이 로봇기업의 경우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2)에서는 산업재정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분류를 크게 4가지(우량, 성장, 축소, 침체)로 분류하고 산업단위의 정책금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도출된 산업분류와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산업별 중소기업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 식별에 유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조세연구원(2019)에서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추진되는 정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재정지출 흐름과 재정지출의 경로별 특징을 분석

하여 각 경로별 규모를 추정하였다. 다음 1)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과정에 대한 평가(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2)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단체 NPO가 제공한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최종소비자들의 평가(문화예술기금으로 지원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리고 3) 문화예술 관련 NPO의 효율성 분석(각 분야별 문화예술 관련 NPO에 대한 DEA분석결과)을 실시하였다(손원익, 2012).

경기관광공사(2019)에서는 경기도의 MICE산업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사업별 성취도 성과분석을 위한 IPA와 전체 사업의 궁극적 목표 성과분석을 위한 경제파급효과 IOA 및 도민의 정책 지지도와 만족도를 반영한 공공가치인식 CVM, 그리고 세부사업과 목표달성 간에 업무 추진의 효율성 성과분석을 위한 DEA의 4단계 성과분석 체계를 구성하고 자료 구득의 한계에 의해 DEA 실행을 제외한 IPA, IOA, CVM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2〉 정책 투자성과 분석 사례

구분	환경분야 재정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로봇산업의 R&D 투자성과 분석과 시사점	산업 및 기업재정정책 효율화를 위한 동태적 산업재정정책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민간비영리조직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2019년 경기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
주관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12.12)	산업연구원 (2013.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12)	한국조세연구원 (2012.12)	경기관광공사 (2019.12)
분야	환경정책	로봇산업	산업정책	문화예술	MICE 산업
평가 항목	1. 환경분야 재정투입 현황분석 2. 환경관련 예산과 성과지표간의 연관성을 분석	1. 경제적 기여도 2. R&D 투자가 기업매출에 미치는 영향	1. 동태적 기업분류 2. 산업단위 정책금융효과	1.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과정 평가 2. NPO가 제공한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평가 3. 문화예술 관련 NPO의 효율성 분석	1. 경기도 마이스산업의 상대적 중요도 및 성취도 평가 2. 경제적 효과 3. 공익가치 평가
방법론	1. 환경부의 예산을 수집하여 총 11개의 주요 분야로 구분하여 종합하고, 우리나라 환경관련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진단 2. 11개 주요 분야로 종합한 환경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실시	1. 산업연관분석 2. 방법론: 확률효과모형 사용 자료: 시계열 데이터 + 설문조사 독립변수: R&D투자, R&D 주제별 투자 종속변수: 로봇기업 매출액	1. 기업분류: 4가지로 분류(우량, 성장, 축소, 침체) 2. 패널고정효과분석 통제변수: 1년전 기업 매출관련 데이터 정책변수: 1년전 금융지원금액 종속: 1년간 총자산영업이익률증분	1. 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2.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3. 각 분야별 문화예술 관련 NPO에 대한 단순 DEA분석	1. IPA 매트릭스 4개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 2. 경제적 파급효과 3. 통합 WTP 로짓모형

자료: 배수호(2012). 환경분야 재정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신윤성 외 3인(2013), 로봇산업의 R&D 투자성과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장우연 외 2인(2019), 산업 및 기업재정정책 효율화를 위한 동태적 산업재정정책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손원익·박태규(2012). 민간비영리조직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허준(2019), 2019년 경기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절 국제회의산업 정책 개념과 유형

1. 국제회의산업 개념과 특성

가. 국제회의 개념

국제회의(International Meeting)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국내회의(National Meeting)와 비교하면 간단하다. 국내회의가 말 그대로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회의라면 국제회의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회의를 뜻하며, 여기서 국내적이라 함은 회의의 주목적 참가자가 내국인에 국한된 것을 의미하기에, 국제적이라 함은 회의의 주목적 참가자가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제회의란 ‘외국인이 주목적으로 참석하는 회의’로 이해할 수 있다.

‘회의(Meeting)’는 그 개최 목적과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개최 방식과 형태를 가지는데, 회의의 개최 목적을 ‘문제 해결 회의’ 또는 ‘이해 조정 회의’, ‘정보 전달 회의’, ‘운영 회의’, ‘판매 회의’, ‘친목 회의’ 등으로 구분하거나, 분야를 ‘정부 회의’ 또는 ‘산업 회의’, ‘단체 회의’, ‘개인 회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최 규모도 ‘대규모 회의’, ‘중규모 회의’, ‘소규모 회의’, ‘장기 회의’, ‘단기 회의’ 등으로, 개최 형태도 ‘컨벤션’, ‘컨퍼런스’,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으로, 개최 방식도 ‘회의 중심’, ‘전시회 동반’, ‘이벤트 중심’, ‘관광 중심’ 등으로 다양하다(서승진·윤은주, 2018). 결국 국제회의는 ‘다 국가의 참가자를 모여 다양한 유형으로 개최되는 국제적 회의’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지칭하는 명칭 및 용어는 국가별로, 분야별로, 전문가 관점별로 다양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제회의 개념을 MICE란 용어에 적용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정책의 범위에서도 MICE를 포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MICE는 Meeting(기업회의/회의), Incentive Trip/Travel(포상관광),

Convention/Conference(컨벤션, 국제회의), Exhibition/Event(전시/이벤트) 영문의 앞 자를 조합한 용어이다. 초기의 MICE 용어와 개념은 주로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통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포상관광, 이벤트 등을 포함하여 개별 분야를 통합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철원·허준, 2011). 전 세계적으로 MICE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연합(United Nation)의 관광분야 전문기구인 UNWTO(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도 MICE의 각 산업을 분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국가 및 기관에 따라 각 산업 분류 및 범위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황희곤, 2010).

MICE란 용어의 유래는 1990년대 초 싱가포르 혹은 호주나 영국 등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거론되는데, 현재에는 한국 외에도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황희곤,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MICE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통용되는 명칭이라 할 수는 없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UNWTO가 ‘MICE Industry’라는 용어보다는 ‘Meetings Industry(회의산업)’ 또는 ‘International Meetings Industry(국제회의산업)’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UNWTO(2006)가 발간한 『Measur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Meetings Industry』 보고서에서 MICE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의 합성어로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지는 하였으나,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로 ‘The Meetings and Events Industry’의 사용을 제안하였다가, ‘event’라는 용어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제외한 후 ‘Meetings Industry’ 또는 ‘International Meetings Industr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황희곤, 2011). 그리고 이 ‘Meeting Industry’에 구체적으로 컨퍼런스(conventions), 콩그레스(congresses), 컨퍼런스(conferences), 심포지엄(symposia), 세미나(seminars), 기업일반회의(company general meetings)와 인센티브 이벤트(incentive events), 대중전시회(public show), 산업전시회(trade show) 등을 포함시켰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MICE 용어의 유래로 거론되는 싱가포르의 STB(Singapore Tourism Board)는 국제회의를 ‘BT-MICE(Business Travel & MICE)’로 지칭하고 있으며, 호주의 Tourism Australia와 영국의 British Tourist Authority는 ‘Business Events’로 캐나다의 CTC(Canadian Tourism Commission)는 ‘MC&IT(Meetings, Conventions

& Incentive Travel)’을 사용하는 등 국제회의산업의 유사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관광청에서 MICE 범위를 포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의한 국제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국제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회의라 함은 회의, 토론회, 강습회, 이 외 다른 유사한 집회(부수되는 전시회 포함)에 상당수의 외국인의 참여가 예상되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 및 교류가 발생하는 회의를 의미하고 있다(정광민, 2018).

이처럼 MICE 산업은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넓은 의미에서는 포상 관광과 박람회, 대규모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의미하는 등 MICE 산업의 관련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정광민, 2018). UNWTO(2008)에서는 <표 2-3>과 같이 기업회의(Meeting), 총회 및 협의회의(Convention, Congresses and Conferences), 전시회(Exhibition), 인센티브(Incentive)로 분류하고 있다.

<표 2-3> UNWTO의 MICE 분류체계 및 포괄범위

구분	내용
기업회의 (Meeting)	- 기업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목적의 회의로, 참가자는 동일 기업 내 회의, 기업의 그룹사 내 회의, 고객사·사업제공사 등의 관계 간에 개최되는 회의를 의미함
총회 및 협의회의 (Convention, Congresses and Conferences)	- 비즈니스 외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를 총칭하며, 참가자를 소집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소 섭외 및 시간 선정 등의 요인이 결정되어야 함. 이 같은 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됨 ① 공공컨퍼런스 및 강의(Public conferences or lecture): 기본적으로 큰방향성이 없는 회의로, 청중에게 요구되는 과거경험이나 특별지식이 없는 회의 ② 정부회의(Government conferences): 전문적·정치적 회의로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대 민간담당자간에 개최되는 회의 ③ 일반소집회의(General assembly): 조직내구성원 또는 내부관계자에게만 한정하여 소집되는 회의 ④ 컨벤션(Convention): 입법기관, 사회적 또는 경제적 그룹간에 개최되는 일반 적, 공식적인 회의로 참가자들에게는 정보제공, 의견·정책의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⑤ 과학적 총회(Scientific congress): 여러 가지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 학술적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참가자들간에 상호적인 담론이 요구되는 회의 * 예: 포럼(forum), 콜로키움(colloquium), 세미나(seminar), 심포지엄(symposium) 등
전시회 (Exhibition)	- 무역전시회(trade show) 관련활동만을 포괄함
인센티브 (Incentive)	- 인센티브활동(Incentive activities)과 관련한 행사를 의미함

자료: UNWTO(2008). Global Meeting Initiative. 1. 2-3.재인용

나. 국제회의의 법·제도적 정의

1) 국제회의의 법적 정의

우리나라는 국제회의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 따르면 국제회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함
 - ①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②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회의의 유형별 법적 기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국제회의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정책을 MICE 범위로 확대하여 MICE 유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MICE 산업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MICE의 유형을 미팅(Meeting), 인센티브 투어(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 총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국제회의’라는 용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5).

- 미팅(Meeting)은 컨벤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전체 참가자가 10명 이

상인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 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업

- 인센티브 투어(Incentive Tour)는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Inbound) 외국인이 10명 이상 참가하며, 국내 숙박시설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보상관광을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업
- 컨벤션(Convention)은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이며 동시에 전체 참가자가 250명 이상인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업
- 전시(Exhibition)는 전문 전시시설에서 유통업자, 업자, 관련 종사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거래, 마케팅 활동을 하는 1일 이상의 각종 전시를 의미

〈표 2-4〉 MICE 유형별 범위(산업통계 기준)

구분	정의	범위
Meeting	•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vention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전체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 * 단,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행사는 국내 Meeting으로 간주함
Incentive Tour	•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순수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	•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inbound) 외국인이 10명 이상 참가하며 국내 숙박시설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보상관광
Convention	•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이며 동시에(and) 전체 참가자가 250명 이상인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
Exhibition	• 유통·무역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회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회로 무역전시회, 소비자전시회 및 혼합전시회(1일 이상)

자료: 『2015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한국관광공사

3) 국제기구 및 타국가 국제회의 유형별 기준

국제회의 및 컨벤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단체로 세계 100여 개국 1,100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국제콩그레스컨벤션협회(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이하 ICCA)에서는 국제회의의 구분기준을 참가규모가 50인 이상이고, 3개국 이상을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두고 있다.

국제기관 및 협회 간 정보교류와 발전 목적으로 1907년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세계 6만 8천여 국제기관 및 협회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이하 UIA)은 국제회의의 분류기준을 A, B, C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A+B 기준을 바탕으로 통계를 수집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 A Type은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주최하거나 후원하고, 최소 50명 이상이 참석하거나 참석자 수가 알려지지 않은 회의
- B Type은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지는 않으나 국가조직 혹은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해외 참가자 비율이 40% 이상이며 참가자 출신지역은 5개국 이상이고, 최소 3일 이상 개최되거나 개최일수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300명 이상이 참가하거나 전시회를 동반하는 회의
- C Type은 ①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지는 않으나 국가조직 혹은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해외 참가자 비율이 40% 이상이며 참가자 출신지역은 5개국 이상이고, 최소 2일 이상 개최되거나 개최일수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250명 이상이 참가하거나 전시회를 동반하는 회의

〈표 2-5〉 UIA 국제회의의 구분기준

종류	분류기준
A	①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주최하거나 후원하고, ② 최소 50명 이상이 참석하거나 참석자 수가 알려지지 않은 회의
B	①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지는 않으나 국가조직 혹은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② 해외 참가자 비율이 40% 이상이며 참가자 출신지역은 5개국 이상이고, ③ 최소 3일 이상 개최되거나 개최일수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④ 300명 이상이 참가하거나 전시회를 동반하는 회의

종류	분류기준
C	①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지는 않으나 국가조직 혹은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② 해외 참가자 비율이 40% 이상이며 참가자 출신지역은 5개국 이상이고, ③ 최소 2일 이상 개최되거나 개최일수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④ 250명 이상이 참가하거나 전시회를 동반하는 회의

* B와 C의 차이: B그룹은 최소 3일 이상 개최되고 300명 이상이 참가하거나 전시회를 동반하는 회의를 포함하는 한편, C그룹은 최소 2일 이상 개최, 250명 이상 참가 혹은 전시회 동반 회의를 포함하므로 C그룹은 B그룹을 반드시 포함

자료: UIA(2017),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국가별로는 일본의 경우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의한 국제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를 동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약 오십 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
- 개최에 필요한 경비가 약 2,500만 엔 이상
- 국제회의의 개최 관련 실시 및 자금 계획이 적합
- 주최자의 책임 범위 명확

스페인의 경우 스페인 관광청은 50명 이상, 4시간 이상, 3개국 이상 참가, 외국인 비중이 40% 이상일 때, 호주미팅산업협회(MIAA)는 4개국 이상 참가, 외국인 비중이 45% 이상인 경우를 국제회의로 간주하고 있다.

기타 호주미팅산업협회(Meetings Industry Association of Australia, MIAA)와 핀란드컨벤션뷰로, 미국이벤트산업협회(Events Industry Council)에서 간주하는 국제회의의 기준 역시 국가별로 다양하며, 이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국가별 국제회의의 구분기준 비교

구분	참가자수	기간/빈도	참가 국수	기타 (외국인 참가 등)	적용기관
회의 (Meeting)	최대 250명	1일	-	-	독일컨벤션뷰로(GCB)
	15명 이상	6시간 이상, 2일 이하	-	-	Hughes(1988)
	15명 이상	-	-	민간 회의시설에서 개최된 회의	호주미팅산업협회 (MIAA)

구분	참가자수	기간/빈도	참가 국수	기타 (외국인 참가 등)	적용기관
	10명 이상	-	-	-	핀란드컨벤션뷰로
	10명 이상	-	-	-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International Meeting)	300명 이상	3일 이상	5개국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1호
	300명 이상	3일 이상	5개국 이상	외국인 40% 이상	UIA B-type
	250명 이상	4시간 이상	-	외국인 10명 이상	한국관광공사
	-	2일 이상	-	외국인 150명 이상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2호
	-	-	-	외국인 50명 이상 개최비 2,500만엔 이상	일본 「국제회의 유치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에 의한 국제관광진흥에 관한 법률」
	50명 이상	4시간 이상	3개국 이상	외국인 40% 이상	스페인관광청
	100명 이상	-	5개국 이상	외국인 40% 이상 또는 80명 이상	대만컨벤션전시협회 (TCEA)
	-	-	-	2대륙 이상 참가한 회의	태국컨벤션전시뷰로 (TCEB)
	-	-	-	국제회의: 외국인 15% 이상	미국 국제컨벤션뷰로협회 (IACVB)
	-	-	4개국 이상	외국인 45% 이상	호주미팅산업협회 (MIAA)
	50명 이상	정기적 개최 (매년 or 격년)	3개국 순환	-	ICCA
국제이사회의 (International Board Meeting)	10명 이상	-	-	UIA소속협회	UIA
기업회의 (Corporate Meeting)	기업 대표자 또는 직원 모임. 숙박비 포함 여행경비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				컨벤션산업협의회 (CIC)
정부회의 (Government Meeting)	정부기관 공무원 모임				컨벤션산업협의회 (CIC)

주) 미팅산업협회: Meetings Industry Association of Australia, MIAA

스페인관광청: Instituto de Turismo de Espana

컨벤션산업협의회: Convention Industry Council, CIC → 현재 이벤트산업협회(Events Industry Council)로 변경

미국의 경우 참가국수나 참가자수의 기준이 아닌 외부 참가비율과 참가자가 개최지역으로부터 거리 등을 적용

자료: UNWTO(2006), Measur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Meetings Industry 등 내용 재정리

다. 국제회의산업 특성

1) 타산업과의 연계 융복합성 및 다양성

UNWTO(2008)는 국제회의산업 관련 구조를 크게 회의 공급 중심 측면의 핵심 산업(Core Industry)과 회의 수요 중심의 측면의 확장 산업(Extended Industry)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의 핵심 산업과 확장 산업에 포함되는 개별산업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국제회의산업이 발달된 국가나 도시 지역에서는 PCO 및 PEO 등과 같은 회의전문기획업과 회의전문시설업, 지역기반 회의서비스제공업, 컨벤션뷰로 등의 핵심 산업군 이외에 관광산업이 포함하고 있는 숙박, 교통, 레저,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쇼핑 분야 등에 대한 집약적 발전은 물론이고, IT, 통신, 인쇄출판, 광고, 건축, 금융, 의료, 교육 분야 등의 다양한 확장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융복합 산업의 특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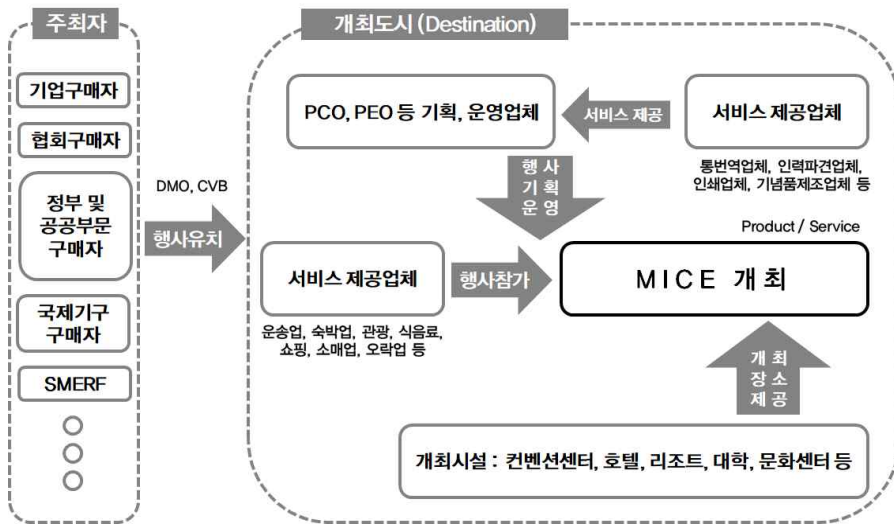
국제회의산업이, 교류와 혁신을 추구하는 회의 주제 산업과의 동반 성장과 상생 실현을 통한 고부가가치 및 파급효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협치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전·중·후 과정의 복잡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기획·준비·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 휴먼웨어(human-ware)의 유치와 개발, 집적이 필요하며, 국제회의산업 내적, 외적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고부가가치성 및 지역 경제 파급성

국제회의산업의 구조는 회의 개최의 주제를 제공하는 대상인 ‘주최자’와 회의에 참가하는 대상인 ‘참가자’, 회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상인 ‘국제회의 서비스 제공자’라는 3가지 대상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각 대상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획득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국제회의 개최 과정에서 투입되는 지출은 상호 연동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연계 분야로의 지속적인 확산 및 파급을 가져온다(한국관광공사, 2018). 예를 들어 [그림 2-2]와 같이 주최자의 회의 개최 예산은 관련 산업 내 지식의 생산과 혁신 가치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국제회의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기획 및 운영업(ex. PCO, PEO 등), 개최 서비스 제공업

(ex. 장치 및 장비 제공업, 통번역 제공업, 인쇄 및 제작물 제공업 등), 관광 서비스 제공업(ex. 숙박업, 교통운송업, 식음료업, 쇼핑업, 유흥 및 오락업 등), 개최국 및 개최도시 정부(ex. DMO, CVB 등)의 지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유발하며, 국제회의 참가자는 자신의 거주 장소와 개최 장소 간 이동 및 회의참가, 체류, 관광 활동 과정에서 소비 지출을 통해 관련 서비스 제공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림 2-2] MICE산업의 순환 구조



자료: 한국관광공사(2018). 2018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과 비교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소비지출 규모 또한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 MICE 참가자 조사에 따르면 MICE산업의 전시 분야를 제외한 미팅, 컨벤션(국제회의) 그리고 인센티브 투어 내·외국인 참가자의 1인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USD \$2,667로 나타났고,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와 2018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외국인 일반관광객의 1인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USD \$2,146로 나타났다. 이에 MICE 참가자의 소비지출 규모는 일반 관광객 소비지출 규모의 약 1.2 배 수준으로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다.

3) 국가 관광산업 진흥 효과 극대화

국제회의산업이 속한 MICE산업의 참가자는 규모가 수백에서 수천 명 이상의 규모가 보통이며, 대규모 행사의 경우 수십만 명 이상이 참가하기 때문에 국제회의 유치는 곧 대량 관광객의 유치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국제회의 전·후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개최국·개최도시의 전통적인 문화나 관광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켜 장기적으로 개최국·개최도시의 관광홍보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국제회의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관광진흥 측면의 체류 기간 연장과 평균 외화소비액 증대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상기된 국제회의산업의 특성은 국제회의 개최 지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 각국 및 각 도시 정부들은 저마다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의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자기 지역의 전략 산업과 관광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 특색과 차별적 강점을 발굴·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경기관광공사, 2019). 국제회의 개최에 관련된 산업 각각이 독립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개별적인 부가 가치 창출 증대도 중요한 반면, 개별 산업 간 상호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적 육성에 따른 상생적 발전과 시너지 효과 창출 증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은 시장 논리 기반의 민간 영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공공성 기반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특화 국제회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추구한다(인천광역시, 2018).

4) 산업 동반 성장 및 혁신성

보통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거나 이슈가 되는 경우 국제회의산업과 활발히 연계하여 관련 행사들을 개최하게 된다. 이는 해당 산업 내에서 비즈니스 기회 확보, 고객 관계 형성, 정보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목적에서 '만남'과 '교류'에 대한 수요의 증폭에서 비롯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만남과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제회의산업을 동반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회의산업 역시 만남과 교류의 주제가 되는 타 산업의 성장을 전인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성장하는 선순환적 특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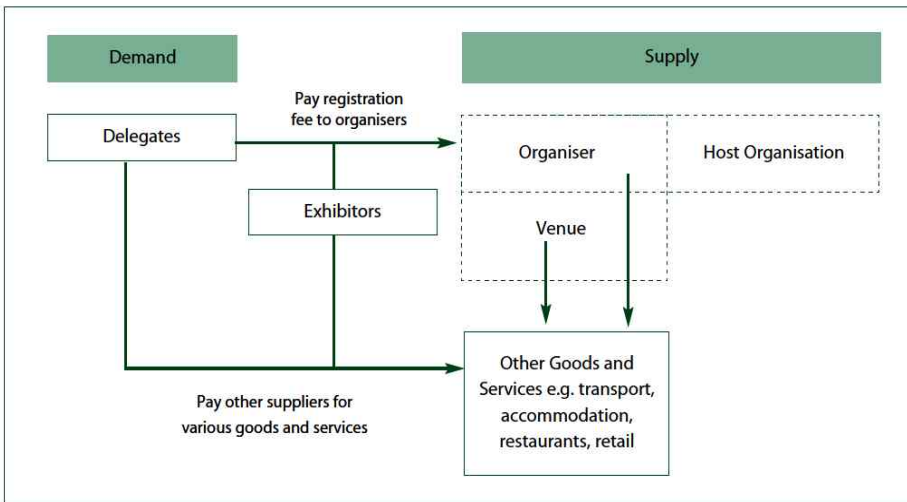
국제회의산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인프라 등의 외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국제회의 개최의 주제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지식의 집적,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유통 등을 촉진하고 융합하는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각각의 관련 산업들이 개별적이며 독립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적으로도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상호의존성이 강해 관련 연관 산업과 통합하여 육성할 경우 시너지효과 창출이 용이한 종합 서비스산업이다.

상기한 것과 같이 국제회의산업은 만남과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의 주제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지식의 집적,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혁신, 상품화된 혁신 지식의 거래와 유통 등을 촉진하는 혁신성과 교류성의 특성을 가진다. 혁신 지식과 기술 발전의 교류를 추구하는 국제회의산업이기에 자체적으로도 MICE Technology로 통칭하는 회의 개최 관련 기획 및 운영 기술의 혁신과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직접 대면 만남을 통한 교류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회의 개최를 통한 만남과 교류는 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 회의 관련 MICE Technology 혁신과 발전이 촉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국제회의산업 구조와 정책범위

UNWTO(2008)에 따르면 마이스산업 구조를 [그림 2-3]과 같이 Meetings Industry 구조를 크게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MICE산업의 경우에도 4가지 MICE 유형별 특성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국제회의 성격에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를 구분하여 정책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정광민, 2017).

[그림 2-3] MICE 산업의 수요·공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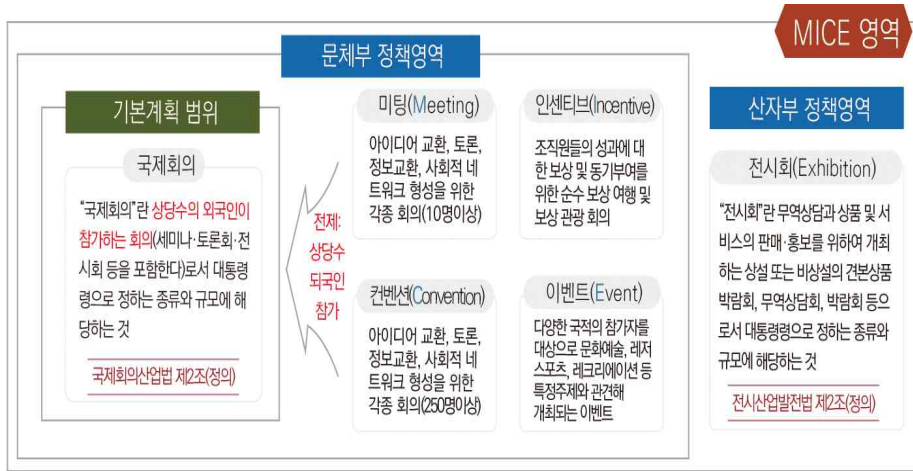


자료: Measur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Meetings Industry (UNWTO, 2006)

국제회의산업 관련 정책범위는 MICE영역 중 [그림 2-4]와 같이 미팅(Meeting), 컨벤션(Convention), 인센티브(Incentive)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영역에 포함되며, 전시(Exhibition)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영역에 포함된다. 단, 이벤트(Event)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대응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회의산업의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MICE 산업 육성지원’ 계정을 통해 유치개최, 홍보지원,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 관련 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그림 2-4] 국제회의의 정책범위영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산업생태계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business)뿐만 아니라 공급자 및 수요자, 경쟁업체 및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이며, 관련된 제도, 기관 및 연관 산업의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Iansiti & Levien, 2004). 산업연구원(2012)에서 제시한 산업생태계 기본구조 분석틀을 바탕으로 「제4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2018)」에서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을 협의 및 광의의 국제회의산업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협의의 국제회의산업은 핵심상품인 국제회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접공급자(주최자, 국제회의기획업, 시설업)와 직접수요자로 구성된다. 직접공급자는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주최자, 국제회의를 기획·운영하는 기획업,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업 등으로 구성된다. 주최자는 어떤 목적에 의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집단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국제기구, 정부, 협회 및 단체, 기업 등이 있다. 기획업과 시설업은 「관광진흥법」상에 국제회의 기획업과 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 기획업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국제회의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개최하는 역할을 하며, 시설업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를 제공한다. 직접수요자는 핵심상품인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관련 지식을 얻는 참가자로, 타 지역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광의의 국제회의산업은 협의의 국제회의산업을 포함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 간접공급자, 보완공급자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부·관련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이스협회, 한국PCO, 지역 CVB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관광공사 및 컨벤션뷰로는 각 지역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주최자를 대상으로 개최비 지원,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개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MICE협회 및 PCO협회 등은 신입 및 경력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정광민, 2018).

[그림 2-5]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간접공급자는 직접공급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통역업, 장치업, 인쇄업, 기념품제작업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회의의 기획과 운영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의 기획업과, 장소를 제공하는 국제회의의 시설업 두 업종 이 외에도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없지만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인쇄, 경호, 통번역, 회의시설 장치, 조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 보완공급자는 국제회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국제회의의 참가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숙박 및 음식점업, 식음료업, 운수업, 문화예술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이 있다. 직접공급자인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을 제외한 간접(통역업, 장치업, 인쇄업 등) 및 보완(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 공급자에 대한 지원 근거

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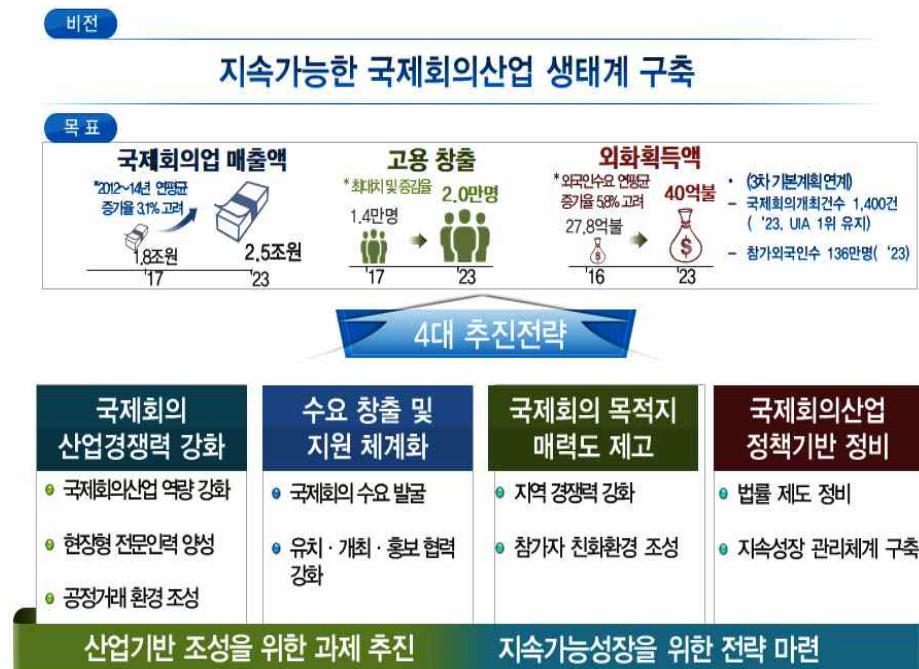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내외 국제회의 산업의 동향과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법률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수립·시행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①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 ② 원활한 개최, ③ 인력 양성, ④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 ⑤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항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 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시행령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에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표 2-7〉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제1차 기본계획(1998~2005)	제2차 기본계획(2006~2010)
산업 발전 기틀 마련	양적 성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A 국제회의 200건 개최 - 외화획득 1.5억달러 달성 - 대형전문회의시설 3개소 건립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전문국제회의시설 건립 - 지자체차원의 전담조직 설립 -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강화 - 전문 교육과정 확대 및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 국제회의용역업 지원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A 국제회의 220건 개최 - 외화획득 2.5억달러 달성 - 국내총생산(GDP) 비중 0.04%로 확대 →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센터 등 주요 인프라 확장 - CVB, PCO, 협회 및 공사 등 핵심 주체 역할 정립 - 국제회의도시 지정 확대, 홍보사이트 구축 - 조직과 제도의 정착, 인력 육성 - 수요 및 시장의 확대 추진 - 정부·공공부문의 재정지원 확대 및 전략 육성
제3차 기본계획(2014~2018)	제4차 기본계획(2019~2023)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확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A 국제회의 790건 개최 - 외화획득 14.5억달러 달성 -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40만명 달성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화, 고부가가치화 추진 - 건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조성 - 국제회의 기업의 수익성 향상 및 수익구조 다변화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표 국제회의 발굴 -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업 매출액 3조원 달성 - 국제회의업 인력 2만 명 고용창출 - 외화획득 27억 달러 달성 - ICCA 국제회의 참가자수 18만명 달성(건수) →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 경쟁력 강화 - 국제회의 수요 창출 및 지원체계 개선 - 국제회의 목적지 매력도 제고 - 국제회의산업 정책기반 정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1차 계획(1차 '98~'05)을 통해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2차 계획(2차 '06~'10)을 통해 시설, 조직 등에 대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유치에 대한 중점지원을 통한 국제회의산업의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었으며, 3차 계획(3차 '14~'18)을 통해 국제회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2019년 1월에 발표한 제4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내 각 주체 간 상생 협력 증대 및 동반 성장을 모색하면서, 미래형 산업으로써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9대 정책 분야 3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그림 2-6]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제3절 국제회의산업 현황과 제도 분석

1. 국제회의산업 현황

가. 국제회의 개최 현황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경기침체와 더불어 세계 금융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2012년까지 세계 국제회의 개최 성장세는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2013년 이후 점차 국제회의 개최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확실한 세계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국제회의의 소통과 교류를 주도하는 국제회의산업의 역할과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2-8〉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최건수	11,503	11,513	10,743	10,498	11,135	12,212	12,350	11,000	10,786	11,240
증감률	3.8%	0.1%	-7.2%	-2.3%	6%	9.7%	1.2%	-11%	-1.9%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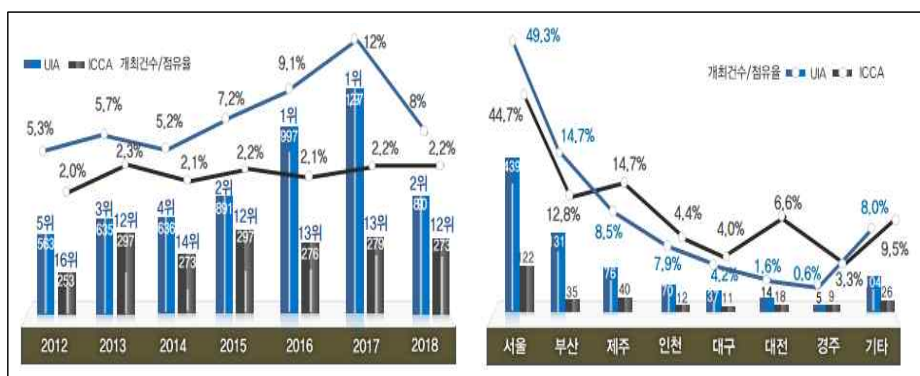
자료: UIA(2019),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60th Edition

국제회의연합(UI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국제회의연합 기준 개최건수가 916건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 11,240건 중 916건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8%를 기록하고 있다. 1위는 1,313건을 개최한 싱가포르, 3위는 860건을 개최한 벨기에가 차지했다. 특히,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MICE산업에서의 아시아 국가의 위상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컨벤션협회(ICCА)의 결과에서는 2018년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273건으로 12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세계시장 점유율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컨벤션협회(ICCA)는 비정부기구나 민간협회가 개최하는 회의의 대상으로 참가자가 50명 이상인 행사 가운데 3개국 이상을 돌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제회의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단발성 행사나 개최지가 한 곳으로 고정된 행사를 포함하는 국제회의연합(UIA)의 기준과 상의하여 각 기구의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2-7] UIA·ICCA 국가 및 도시별 개최건수



〈표 2-9〉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및 순위(2018기준)

국제회의연합(UIA)기준			국제컨벤션협회(ICCA)기준		
순위	국가명	개최건수	순위	국가명	개최건수
1위	싱가포르	1,313	1위	미국	947
2위	대한민국	916	2위	독일	642
3위	벨기에	860	3위	스페인	595
4위	미국	619	4위	프랑스	579
5위	일본	601	5위	영국	574
6위	오스트리아	495	6위	이탈리아	522
7위	프랑스	470	7위	일본	492
8위	스페인	464	8위	중국	449
9위	영국	334	9위	네덜란드	355
10위	독일	305	12위	대한민국	273

자료: UIA(2019),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60th Edition
 ICCA 홈페이지(<https://www.iccaworld.org>)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 있어서 국제회의연합(UI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울이 449건으로 싱가포르(1,313건, 1위)와 브뤼셀(735건, 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컨벤션협회(ICCА)의 기준으로는 122건으로 15위를 기록하였다.

〈표 2-10〉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2018기준)

국제협회연합(UIA)기준			국제컨벤션협회(ICCА)기준		
순위	국가명	개최건수	순위	국가명	개최건수
1위	싱가포르	1,313	1위	파리	212
2위	브뤼셀	735	2위	비엔나	172
3위	서울	449	3위	마드리드	165
4위	비엔나	405	4위	바르셀로나	163
5위	도쿄	328	5위	베를린	162
6위	파리	264	6위	리스본	152
7위	마드리드	208	7위	런던	150
8위	런던	198	8위	싱가포르	145
9위	바르셀로나	153	9위	프라하	136
10위	리스본	147	15위	서울	122

자료: UIA(2019),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60th Edition
 ICCA 홈페이지(<https://www.iccaworld.org>)

국제회의를 포함하고 있는 MICE산업에서의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개최건수의 경우 2018년 기준 지난 5년간(2014~2018년) Meeting은 215,470건으로 연평균 0.9% 감소하였고, Incentive는 12,827건으로 연평균 10.9%, Convention은 4,960건으로 연평균 5.2%, Exhibition은 887건으로 연평균 5.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가자 수의 경우 2018년 기준 지난 5년간(2014~2018년) Meeting은 19,787천 명으로 연평균 1.1%, Incentive는 538천명으로 연평균 0.04% 감소한 반면, Convention은 3,508천 명으로 연평균 9.0%, Exhibition은 16,625천 명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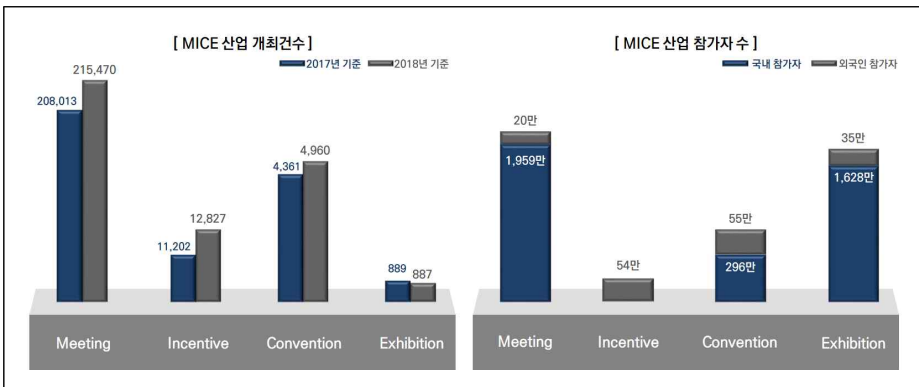
〈표 2-11〉 MICE산업 현황(2014~2018년) 개최건수 및 참가자 수

(단위: 건,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 건수	Meeting	234,909	236,633	237,880	208,013	215,470
	Incentive	8,641	8,616	8,827	11,202	12,827
	Convention	4,315	5,045	5,809	4,361	4,960
	Exhibition	709	805	869	889	887
	합계	248,574	251,099	253,385	224,465	234,144
외국인 참가자수	Meeting	257,124	246,279	300,106	226,409	198,195
	Incentive	568,642	550,303	580,592	444,637	537,893
	Convention	474,991	494,015	568,673	415,160	552,520
	Exhibition	267,333	277,256	345,831	317,979	349,334
	합계	1,568,090	1,567,853	1,795,202	1,404,185	1,637,942
내국인 참가자수	Meeting	20,466,691	20,432,205	20,085,897	19,806,231	19,588,741
	Incentive	-	-	-	-	-
	Convention	2,462,869	2,110,721	3,345,320	2,377,477	2,955,947
	Exhibition	14,699,935	15,952,045	16,471,606	14,679,038	16,275,985
	합계	37,629,495	38,494,971	39,902,823	36,862,746	38,820,673
전체 참가자수	Meeting	20,723,815	20,678,484	20,386,003	20,032,640	19,786,936
	Incentive	568,642	550,303	580,592	444,637	537,893
	Convention	2,937,860	2,604,436	3,913,993	2,792,637	3,508,467
	Exhibition	14,967,268	16,229,301	16,817,437	14,997,017	16,625,319
	합계	39,197,585	40,062,524	41,698,025	38,266,931	40,458,615

자료: 한국관광공사.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각 년도.

[그림 2-8] MICE 유형별 개최건수 및 참가자수(2017~2018년)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나. 국제회의산업 사업체 및 인력 현황

2018 관광사업체 조사에서는 국제회의업을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2-12>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2018년 기준 국제회의기획업 수는 886개소로 전년대비(89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1조 3,033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국제회의기획업은 1조 6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제회의시설업은 2,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제회의업의 종사자 수는 9,100명으로 2017년 대비 2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업종별로 국제회의기획업은 8,419명으로 전년대비 2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회의시설업은 681명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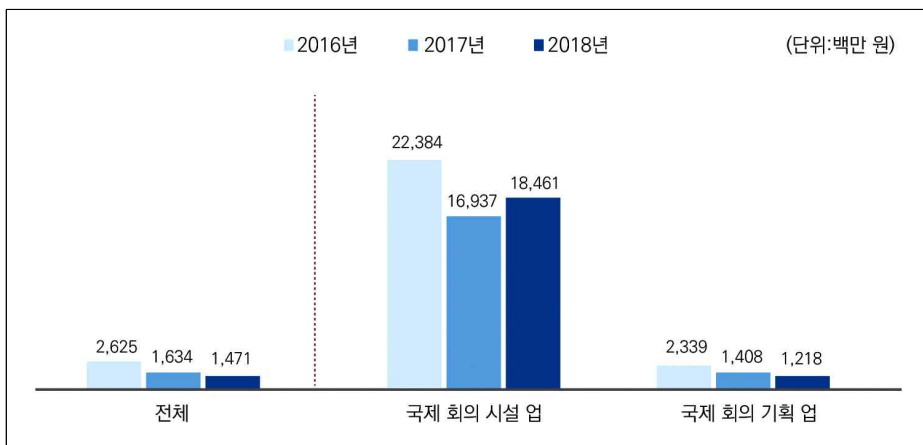
<표 2-12> 국제회의업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 증감률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	1,837,698 (12,596)	1,454,581 (12,166)	1,303,342 (9,100)	[-10.4]
국제회의시설업 (종사자 수)	223,838 (622)	220,182 (722)	239,993 (681)	[9.0]
국제회의기획업 (종사자 수)	1,613,860 (11,974)	1,234,399 (11,444)	1,063,349 (8,419)	[-1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관광사업체조사

[그림 2-9] 국제회의업 1개소 평균 매출액 추이



2018년 MICE산업통계와 2018 관광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표 2-13>과 같이 MICE산업의 총 사업체 수는 3,327개로 시설업이 1,304개(39.2%), 국제회의기획업이 873개(26.2%), 인센티브 여행업이 319개(9.6%), 전시기획업이 831개(25.0%)로 나타났다.

MICE산업의 총 매출액은 5조 4,351억 원으로 그 중 시설업 매출액이 2조 8,270억 원(5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시기획업 1조 2,610억 원(23.2%), 국제회의기획업 1조 633억 원(19.6%), 인센티브 여행업 2,83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 종사자 수는 28,329명으로 그 중 시설업 종사자 12,459명(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회의기획업 8,419명(29.7%), 전시기획업 4,895명(17.3%) 인센티브 여행업 2,556명(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3> 국제회의업 관련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명, %)

구분	사업체		매출		인력	
	업체수	비율(%)	매출액	비율(%)	종사자수	비율(%)
전체	3,327	100.0	5,435,121	100.0	28,329	100.0
시설업	1,304	39.2	2,826,980	52.0	12,459	44.0
국제회의기획업	873	26.2	1,063,349	19.6	8,419	29.7
인센티브 여행업	319	9.6	283,796	5.2	2,556	9.0
전시기획업	831	25.0	1,260,996	23.2	4,895	17.3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관광사업체조사

국제회의기획업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회의기획업은 총 873개 중 전체 대비 64.4%의 국제회의기획업 사업체가 타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기업의 매출액의 경우 서울권에 약 63.3%, 종사자수의 경우 약 68.5% 이상이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국제회의기획업 지역별 현황

지역	국제회의기획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사업체 수 (개소)	비율(%)	매출액 (백만원)	비율(%)	종사자 수 (명)	비율(%)
서울	562	64.4	673,243	63.3	5,768	68.5
부산	59	6.8	103,856	9.8	510	6.1
대구	34	3.9	49,938	4.7	281	3.3
인천	10	1.1	7,225	0.7	63	0.7
광주	21	2.4	20,667	1.9	135	1.6
대전	31	3.6	99,138	9.3	279	3.3
울산	9	1.0	1,148	0.1	29	0.3
경기	49	5.6	44,095	4.1	735	8.7
강원	16	1.8	16,560	1.6	125	1.5
충북	4	0.5	40	0.0	38	0.5
충남	5	0.6	1,900	0.2	13	0.2
전북	9	1.0	10,247	1.0	79	0.9
전남	3	0.3	-	-	3	0.0
경북	13	1.5	14,021	1.3	111	1.3
경남	16	1.8	14,633	1.4	107	1.3
제주	32	3.7	6,640	0.6	144	1.7
전체	873	100.0	1,063,349	100.0	8,419	100.0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관광사업체조사

국제회의기획업의 매출액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의 매출액 규모를 나타낸 사업체가 332개소(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천만 원 미만의 매출액 규모를 나타낸 사업체가 275개소(31.5%), 5억 원~10억 원 미만 85개소(9.7%), 3억 원~5억 원 미만 81개소(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억 원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의 매출액 규모로 나타난 사업체 수는 417개소(47.8%), 5억 원 미만의 매출액 규모로 나타난 사업체 수는 456개소(52.2%)로 비교적 5억 원 미만의 매출액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국제회의기획업 매출액 규모 현황

매출액 규모	사업체 수(개소)	비율(%)
3천만 원 미만	275	31.5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	3	0.3
5천만 원~1억 원 미만	19	2.2
1억 원~3억 원 미만	78	8.9
3억 원~5억 원 미만	81	9.3
5억 원~10억 원 미만	85	9.7
10억 원 이상	332	38.0
전체	873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관광사업체조사.

국내 국제회의기획업의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1~5명 미만으로 나타난 사업체가 340개소(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0명 미만 사업체는 232개소(26.6%), 10명~20명 미만 사업체는 222개소(2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대비 65.6%에 해당하는 국제회의기업업체가 10명 미만의 종사자로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국제회의기획업 종사자 규모 현황

종사자 규모	사업체 수(개소)	비율(%)
1명~5명 미만	340	39.0
5명~10명 미만	232	26.6
10명~20명 미만	222	25.5
20명~50명 미만	57	6.5
50명 이상	21	2.4
전체	873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관광사업체조사.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의 경우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년도의 MICE산업통계 조사연구를 토대로 MICE산업의 참가자 수를 설정하고 최근 4개년(2015~2018)의 MICE 참가자조사의 참가자 지출액의 평균을 토대로 참가자 지출액을 설정하여 MICE산업의 총 규모를 산출한다.

2018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MICE산업의 총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조 5,710억 원(내국인 지출액 약 16조 5,653억 원, 외국인 지출액 약 3조 5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Meeting이 약 14조 4,137억 원(내국인 지출액 약 13조 9,145억 원, 외국인 지출액 약 4,992억 원), Incentive가 약 7,148억 원(외국인 지출액 약 4,230억 원), Convention이 약 4조 1,105억 원(내국인 지출액 약 2조 3,392억 원, 외국인 지출액 약 1조 7,713억 원), Exhibition이 약 6,238억 원(내국인 지출액 약 3,116억 원, 외국인 지출액 약 3,121억 원)으로 나타났다. MICE산업의 총 규모 약 19조 5,709억 원 중 Meeting이 약 14조 4,137억 원으로 약 73.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onvention이 약 4조 1,105억 원으로 약 21.0%, Exhibition이 약 6,238억 원으로 약 3.2%, Incentive가 약 4,230억 원으로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MICE산업의 총 규모

구분	총 규모	기준	비고
MICE 산업	19조 5,710억 원	-	-
Meeting	14조 4,137억 원	한국관광공사 Meeting 산업 구분 기준(참가자 10명 이상, 개최시간 4시간 이상)	전체 참가자 수 - 19,786,936 내)19,588,741 / 외)198,195 내국인 지출액 - 710,331 외국인 지출액 - 2,518,644
내국인	13조 9,145억 원		
외국인	4,992억 원		
Incentive	4,230억 원	한국관광공사 Incentive 산업 구분 기준(외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참가자 수 - 537,893 외국인 지출액 - 786,386
외국인	4,230억 원		
Convention	4조 1,105억 원	한국관광공사 Convention 산업 구분 기준 (25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전체 참가자 수 - 3,508,467 내)2,937,793 / 외)552,520 내국인 지출액 - 791,340 외국인 지출액 - 3,205,917
내국인	2조 3,392억 원		
외국인	1조 7,713억 원		
Exhibition	6,238억 원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회로 무역전시회, 소비자전시회 및 혼합전시회(1일 이상)	전체 참가자 수 - 16,625,319 내)16,275,985 / 외)349,334 내국인 지출액 - 19,147 외국인 지출액 - 893,481
내국인	3,116억 원		
외국인	3,121억 원		

자료: 2018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활용하여 연구자 재작성

주1) 2018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는 2018MICE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의 전체 모집단을 활용하여 분석함

주2) 2018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는 2018MICE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의 MICE산업의 유형별 참가자 수와 MICE참가자조사 보고서의 참가자 지출액을 토대로 4개년(2015~2018) 평균값 산출하여 MICE참가자 지출액으로 활용함

주3) 전시참가자 1인당 비용은 신규조사의 부재로 MICE산업통계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2009년 1인당 비용을 활용함

다.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따르면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부대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MICE산업통계 조사에서는 전문회의시설과 준회의시설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법률상 구분기준과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다.²⁾

〈표 2-1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구분	내용
전문회의시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준회의시설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전시시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부대시설	전문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주차시설, 음식점시설,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

현행 법률상 회의 및 전시 관련 시설업인 「관광진흥법」 상 국제회의시설업과,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시설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관련 인프라를 파악해보면 전국에 28개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상 국제회의 시설업에 등록된 곳은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14개소가 있으며, 수도권 3개, 중부권 1개, 강원권 3개, 호남권 2개, 경북권 2개, 경남권 2개, 제주권 1개로 파악된다. 「전시산업발전법」 상 전시시설사업자로 구분된 시설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14개로 수도권 5개, 중부권 1개, 호남권 2개, 경북권 3개, 경남권 2개, 제주권 1개로 파악된다.

국제회의 시설업과 전시시설사업자는 각각 14개로 사업체 개수는 동일하나 (주)용평리조트,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강원랜드는 국제회의시설업에만 등록되어 있고, aT센터, SETEC, 구미코는 전시시설사업자로만 구분되어 있다.

2) 마이스 산업통계에서 조사하는 시설 중 일부 호텔은 준회의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MICE산업통계 조사 보고서에는 이를 준회의시설로 구분하지 않고, 시설 관광사업 형태(호텔)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법률상 시설 구분이 어려움

〈표 2-19〉 국제회의 시설업 및 전시시설사업자 종합

구분	컨벤션센터	건립연도	전시장면적 (㎡)	회의장면적 (㎡)	비고
수도권	aT Center	2002	7,422	1,610	-
	COEX	1988	36,007	11,568	2000년 15,291㎡증축
	KINTEX	2005	108,566	13,303	2012년 54,508㎡증축 3전시장 확정 추진중
	SETEC	1999	7,948	816	-
	Songdo Convensia	2009	8,416	2,154	2018년 전시 8,416㎡, 회의 4,355㎡ 증축 예정
	수원 컨벤션센터	2019	7,877	3,478	2019.3 개장
	소계		168,359	29,451	-
충부권	DCC	2008	2,250	4,862	-
	KOTREX	1995	4,200	-	2019년 철거 후 2021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신축
	충북 청주전시관	2022	10,368	3,089	2022년 개장예정
	소계		6,720	4,862	-
호남권	KDJ Center	2005	12,027	4,111	2013년 2,955㎡증축
	GSCO	2014	3,697	2,512	2014년 신축
	소계		15,724	6,623	-
대경권	EXCO	2001	22,159	5,134	2011년 10,543㎡증축 2021년 전시15,000㎡증축예정
	GUMICO	2010	3,402	953	-
	HICO	2015	2,273	5,137	-
	소계		27,834	11,224	-
동남권	BEXCO	2001	46,380	8,723	2012년 13,197㎡증축
	CECO	2005	7,827	2,784	-
	소계		54,207	11,507	-
제주권	ICC JEJU	2003	2,395	7,929	2021년 전시 6,360㎡, 회의 1,710㎡ 증축예정
	소계		2,395	7,929	-

주: 2019년 기준으로 최초 승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면적 등은 실제 가동 면적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국제회의산업 예산 현황

국제회의 관련 정책 지원과 관련된 예산 집행은 관광공사와 지역 CVB, PCO, 여행업, 학회 등에게 집행되고 있지만, 각 지원금의 성격과 형태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수요자도 상이하여 지원 유형 사업에 대한 재분류를 통해 집행 현황(직접/간접 수혜 구분 등) 파악 필요하다. 현재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국제회의 관련 예산을 “MICE산업 육성 지원”, “MICE인력 및 업계지원”, “MICE전문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 “MICE 인프라 구축 지원” 4개 형태로 구분하여 총 30,347백만 원의 사업지원 및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MICE산업 육성지원(26,785백만 원)은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활성화(7,475백만 원),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활성화(7,483백만 원), 해외마켓 참가·국제이벤트 활성화(4,136백만 원), MICE산업통계 조사 및 운영(1,210백만 원), 지역 MICE활성화 지원(6,481백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ICE인력 및 업계지원(MICE협회, PCO 협회 1,075백만 원)은 MICE 인력양성 및 업계 지원(518백만 원), PCO 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557백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MICE 전문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관련 학회 지원 등 487백만 원)과 MICE 인프라 구축 지원(지자체 공모 2,000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2-20〉 중앙정부 국제회의산업 관련 예산

사 업 명	2018	2019(A)	2020(B)	증감(B-A)
MICE 산업 육성 지원	24,978	25,878	30,347	4,469
○ MICE 산업 육성	22,376	23,316	26,785	3,469
-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활성화	7,475	7,475	7,475	-
• 기업회의 해외 유치마케팅 및 단체지원	(1,800)	(1,800)	(1,800)	-
• 인센티브 관광 해외 유치 마케팅 및 단체지원	(5,675)	(5,675)	(5,675)	-
-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활성화	6,583	7,083	7,483	400
• 컨벤션 유치, 개최 지원 활성화	(4,233)	(4,733)	(5,133)	(400)
• 중대형 컨벤션 유치, 개최 지원	(1,300)	(1,300)	(1,300)	-
• 컨벤션 유치 기반 조성	(1,050)	(1,050)	(1,050)	-
- 해외마켓 참가·국제이벤트 활성화	2,990	2,990	4,136	1,146
• KOREA MICE EXPO 개최	(540)	(540)	(486)	(△54)
• 해외 MICE 전시박람회 참가	(1,650)	(1,650)	(1,650)	-
• 국제이벤트 유치	(800)	(800)	(2,000)	(1,200)

사 업 명	2018	2019(A)	2020(B)	증감(B-A)
- MICE산업통계 조사 및 운영	770	1,210	1,210	-
• MICE 통계조사	(370)	(370)	(370)	-
• MICE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00)	(400)	(400)	-
• MICE산업 조사연구 고도화		(440)	(440)	-
- 지역 MICE활성화 지원	4,558	4,558	6,481	1,923
• 국제회의전담조직 지원	(2,500)	(2,500)	(2,500)	-
• 지역특화컨벤션(K-컨벤션) 육성	(500)	(500)	(1,500)	(1,000)
• Meet in Korea 캠페인	(200)	(200)	(200)	-
• 한국MICE육성협의회 운영	(470)	(470)	(393)	(△77)
• 국내MICE 산업 해외홍보	(888)	(888)	(888)	-
• 회의기술(미팅테크놀로지) 육성 및 활용 확대	-	-	(1,000)	(1,000)
○ MICE인력 및 업계 지원	1,115	1,075	1,075	
- MICE 인력양성 및 업계 지원	488	518	518	-
- PCO업계 경쟁력 강화	627	557	557	-
○ MICE 전문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	487	487	487	-
- 글로벌 MICE 인사이트 발간	117	117	117	-
- MICE 학술연구 지원	50	50	50	-
- 시도국제관광전 지원(국제관광과 소관)	320	320	320	-
○ (330) MICE 인프라 구축 지원	1,000	1,000	2,000	1,000
- 스마트마이스지구 조성('14~'18)	1,000	-	-	-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19~)	-	1,000	2,00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 내역 및 내부 자료 재구성(2020)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수출 지원 및 전시산업 관련 예산은 “전시 산업경쟁력강화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세계엑스포 참가 지원”, “인천경제 자유구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BTL)” 4개 형태로 총 71,985백만 원의 사업지원 및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국내 전시개최와 산업 부문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부분은 약 9,054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4,561백만 원) 부문은 국내전시회개최지원(2,442백만 원), 전시산업기반구축(2,119백만 원)으로 구성되며 인프라 부분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BTL)(4,943백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외 기업의 수출지원 정책차원의 수출경쟁력강화지원(40,723백만 원) 부문은 해외전시회(단체)(25,233백만 원), 해외전시회(개별)

(9,670백만 원),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3,825백만 원), 글로벌 기술컨설팅(1,995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세계 엑스포 참가지원(22,208백만 원)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부처 이외 광역시 등 국제회의산업과 관련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자체 국제회의산업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은 관련 예산 항목 수집분석을 위해 제 3장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21〉 산업통상자원부 전시회 관련 예산

사 업 명	2018	2019(A)	2020(B)	증감(B-A)
(1139) 전산산업지원	25,971	58,063	67,492	9,429
○ (301) 전산산업경쟁력강화지원	4,113	4,113	4,561	448
- 국내전시회개최지원	2,088	2,088	2,442	-
- 전산산업기반구축	2,025	2,025	2,119	-
○ (305) 수출경쟁력강화지원	21,858	41,585	40,723	△862
- 해외전시회(단체)	16,258	26,145	25,233	-
- 해외전시회(개별)	-	9,120	9,670	-
-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3,500	4,325	3,825	-
- 글로벌기술컨설팅	2,100	1,995	1,995	-
○ (308) 세계엑스포참가지원	-	12,365	22,208	9,843
- 세계엑스포참가지원	-	12,365	22,208	-
○ (447)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BTL)	-	4,493	4,493	-
-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BTL)	-	4,493	4,49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세입세출 자료

3.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체계

가. 국제회의산업 법률 체계 및 연혁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 정책 변화와 산업 변천 파악을 위해 관련 법률 및 관련 계획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제회의와 관련된 제도는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와 관련된 조항에 국제회의업의 종류와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의 관련된 정의와 지원 및 산업육성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율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회의업은 1986년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3910호, 1986. 12. 31.) 되면서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의 형태로 법에 규율대상이 되었다. 이후 1999년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5654호, 1999. 1. 21.) 되면서 지금의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討論會·展示會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으로 국제회의업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표 2-22〉 국제회의업 관련 법률

구분		내용
「관광진흥법」	법률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구분		내용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 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과 진흥과 관련된 규정은 1996년에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산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되었다(신용석, 2013). 이후 법률 제7조에 따라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친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며, 2005년 국제회의 도시 지정, 2017년 국제회의복합지구 등과 같이 국제회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당시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지역 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국제회의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제회의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제회의 유치에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기반이 취약한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재정하였다.

-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을 하고, 국제회의유치를 위한 해외홍보를 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③ 문화체육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의도시안의 국제회의 관련사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④ 국제회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표 2-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계(2017년 11월 28 개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
제3조(국가의 책무)	-	-
제4조 삭제	-	-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	제2조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신청) 제3조(지원 결과보고)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	제4조(국제회의시설의 지원)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	제7조(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	제8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	-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의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수립 등)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3조의4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9조의2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신청)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	-
제16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등)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96년 12월 30일에 제정됨에 따라 국제회의 산업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사항, 즉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에 대한 지원과 조직 설치 및 산업육성기반 마련 등 산업 육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그 후 2017년 11월 28일까지 총 7번의 일부개정과 12번의 타법개정을 하였으며, 가장 최근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법률은 전문 18조와 부칙, 시행령은 16조, 시행규칙은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 16조의 내용에는 주로 국제회의 전담조직,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국제회의도시,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집적시설 등의 내용이 있으며, 시행규칙 10조의 내용에는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전문인력 교육·훈련, 국제협력, 정보유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의 제5조 전담조직, 제7조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제14조 국제회의도시 지원, 제16조 재정지원 등에 따라 국제회의를 포함한 MICE산업 영역의 관련 회의에 대하여 유치/개최 등의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국제회의산업 법률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 「관광기본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29호)되어 관광진흥에 관한 정부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2003년 현재 무공해산업·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제회의 산업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현재의 18개 조문체계가 완성된 시점이다.

그 이후 2009년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2015년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2-2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개정문 내용)

제·개정 일시	변천 내용
1996.12.30.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5조(국제회의의 유치등의 지원) - 제6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등) - 제7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권한의 위탁)
2001.3.28. [일부개정]	<p>(개정이유)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제4조제2항중 "관광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로 함 - 〈개정〉제6조제1항중 "국제회의도시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도시로"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로 함
2003.8.6. [일부개정]	<p>(개정이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의 책무) 〈신설〉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제5조(국제회의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개정 일시	변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 지원) - 〈신설〉제8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 - 〈신설〉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촉진 등) - 〈신설〉제10조(국제회의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 〈신설〉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 〈신설〉제12조(전자국제회의기반의 확충) - 〈신설〉제13조 (국제회의의 정보의 유통촉진) - 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 〈신설〉제16조 (재정 지원) -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8조 (권한의 위탁)
2007.12.21. [일부개정]	<p>(개정이유)법 문장의 이해도 개선을 위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제2조(정의) "국제회의"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討論會·展示會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등
2009.3.18	<p>(개정이유)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삭제〉제6조제2항
2015.3.27. [일부개정]	<p>(개정이유)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신설〉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 〈신설〉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2016.12.20. [일부개정]	<p>(개정이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제5조제2항 중 "설치할 수 있다" →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
2017.11.28. [일부개정]	<p>(개정이유)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하고, 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제회의산업 관련 조례

1) 국제회의산업(MICE 등) 조례 제정 현황

법제처 국제회의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검토한 결과 광역지자체 14개, 기초지자체 15개 총 3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회의 및 마이스 산업 육성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30개의 지자체의 조례명을 살펴보면, ‘국제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강원도, 강원도 고성군, 전라북도 전주시 등 6개의 지자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마이스’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는 등 ‘국제회의산업’에서 ‘마이스 산업’으로 정책범위를 확장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통해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표 2-25〉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구분	지자체	조례명	제정시기
광역 지자체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20.03.0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8.05.17
	충청북도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2018.04.06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7.11.1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4.01.0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4.01.01
	경상북도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3.09.16
	경기도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2.01.05
	전라남도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2.07.27
	강원도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1.09.23
	경상남도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01.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8.06.2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5.07.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4.03.30
기초 지자체	경기 평택시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20.06.05
	서울 송파구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20.07.09

구분	지자체	조례명	제정시기
	경기 성남시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20.05.18
	경기 광명시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20.03.25
	전북 고창군	「고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9.02.01
	경북 안동시	「안동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9.01.04
	경기 수원시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2018.11.16
	강원 고성군	「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7.06.23
	경북 문경시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7.06.12
	경기 안산시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6.04.20
	경북 청송군	「청송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5.10.13
	경남 창원시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4.05.15
	전남 여주시	「여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3.06.05
	경기 고양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3.01.08
	경북 경주시	「경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0.08.25
	전북 전주시	「전주시 대규모 회의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4.03.30
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54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2006.02.2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2) 국제회의산업(MICE 등) 조례 제정 주요 내용

지자체의 국제회의산업 또는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는 기본계획의 수립, 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 국제회의 지원협의회 설치, 전담조직 설치 및 지원, 사무위탁의 조항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기금조성, 전문 인력 양성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상위 법률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전시산업발전법」 목적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브랜드 제고’,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하명희·김철원, 2020).

국제회의 관련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대부분 상위 법률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르고 있으나 마이스 관련 조례의 경우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형이벤트(Event)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범위 내에서 ‘국내 및 해외홍보’,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마이스 행사 유치 발굴 또는 개최지원’ 등의 국제회의 및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항목을 명시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 개최, 인력양성, 시설 설치·확충, 산업의 육성 진흥과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은 재정적 지원, 국내·외 홍보, 각종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회의 지원협의회 및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국제회의 업무 추진 및 재정 지원의 근거로 두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국제회의시설 설치 운영,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통계조사 등을 통해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 2-26〉 지자체 국제회의 및 마이스 조례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기본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마이스)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마이스)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마이스)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마이스)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제회의(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국제회의(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마이스)의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국제회의(마이스)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외 홍보 - 국제회의(마이스)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 그 밖에 국제회의(마이스)의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회의(마이스) 지원협의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마이스)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마이스)산업 육성 및 전담조직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 설치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마이스)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사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국제회의(마이스) 시설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마이스)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회의(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가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 가능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 실시 -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 가능 - 통계조사를 전문통계조사 기관에 의뢰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해당지자체 조례 주요내용 정리

4. 국제회의산업 정책 지원 및 추진 체계

가. 국제회의산업 관련 지원체계

국제회의산업은 회의를 개최·유치하는 주최자(협회/학회)와 개최자 및 참가자, 이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역CVB와 개최시설 및 사업자(PCO) 등을 비롯하여 관련 유관산업 공급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회의산업은 핵심상품인 국제회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최자, 국제회의 기획업, 시설업 등의 ‘직접공급자’와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주최자, 국제회의를 기획·운영하는 기획업,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업 등의 ‘직접수요자’로 구성된다. 이때, 직접 수요자는 핵심상품인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관련 지식을 얻는 참가자로, 타지역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직접공급자 중 주최자는 어떤 목적에 의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집단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국제기구, 정부, 협회 및 단체, 기업 등이 있다. 기획업과 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상에 국제회의 기획업과 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기획업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국제회의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개최하는 역할을 하며, 시설업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를 제공한다.

[그림 2-10]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1) 지원체계 및 제도

국제회의산업과 관련된 조직 및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역 CVB(Convention & Visitors Bureau), 관련 협회 등이 있으며,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산업과 관련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외 국제회의에 대한 유치 및 지원 정책은 지자체 또는 지역 CVB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① 국제회의 유치’와 ‘② 해외홍보’, ‘③ 국제회의 개최’, ‘④ 국제회의 육성’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다. 국제회의 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국내 주최·주관단체(학회, 협회, 조직위원회 등), 국내 주최·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PCO 등),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PCO, DMC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 회의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소형 국제회의를 별도로 규정하여 지원 하고 있다.

유치지원은 국내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전개 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홍보 지원은 국내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의 직전차 대회에서 홍보 활동 전개 시에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한하여 개최시 회의 규모(국제회의법률기준 또는 국제기구 기준 등)를 고려하여 개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나의 국제회의에 유치, 해외홍보, 개최 단계별로 각 1회씩 총 3회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 주관단체 대상으로 컨벤션 행사 유치단계 - 해외홍보 단계 - 개최 단계 등 단계별 지원 제도를 컨벤션 행사의 규모를 고려하거나 파급효과(기간, 개최지역 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현금/현물) 보조 및 차등 지원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우대 및 가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조직·실무 위원회 위원 등을 구성하여 각종 자문 등의 수행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국제회의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 CVB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회의의 유치·개최·홍보 지원, 국제회의산업 인력양성, 지역 특화 국제회의의 발굴, 국제회의 통계조사, 개최지 마케팅홍보, 연계지원 등이 있다.

현재 국제회의 유치·개최 관련하여 국내 주관단체 대상 유치보조금 지원(500백만 원), 국내 주최단체 대상 해외홍보 보조금 지원(428백만 원), 국내 주관단체 대상 개최 보조금 지원(2,180백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대부분의 지원은 개최 지원금에 해당한다.

〈표 2-27〉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항목

구분		지원내용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주최·주관단체 (학회, 협회, 조직위원회 등) - 국내 주최·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PCO 등) -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PCO, DMC 등) ※ 단,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여야 함.
지원대상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소형국제회의의 대상 지원(UIA 및 ICCA 국제회의의 기준에 충족하는 회의)
지원 유형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제안서, 유치발표용 PT, 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물 등), 기념품 제작비 - 본부단체 VIP 사전답사(3인 이하): 왕복항공, 체제기간 숙박비 - 해외현장 유치활동 경비
	해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물/외국어 홈페이지 등) 또는 기념품 제작 - 홍보부스 임차료 및 설치비, Korea Night 등 공식연회 및 공연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관광 또는 이색체험활동 진행(보조금 전액 활용 시 우대) - 산업시찰(Technical Tour) 관광 운영비 - 한국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 문화공연, 공식 오·만찬 연회 식음료비, 커피브레이크 - 자체 기념품 제작(2종류 이하) - 국제회의 참가자 전용 외국어 앱(App)

자료: 한국관광공사(2018). 국제회의의 지원제도 안내

2) 유치 지원

국제회의의 유치는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회의의 발굴을 시작으로 국내외적 환경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공식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한 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국제회의의 유치업무 프로세스는 1. 유치계획 수립 → 2. 유치 의사 표명 → 3. 유치활동 → 4. 유치확정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관광공사, 2018). 이러한 유치 과정 중 국제회의의 유관 기관 간 협력 및 유치단계별 지원을 통해 국제회의의 유치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유치지원은 유치 초기 의향서 제출을 위한 국제회의의 유치 타당성 검토 및 자문, 유치 제안서 및 PT, 홍보물 제작 등 주최자 해외 현장유치활동 지원 및 관광홍보물 제공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의 본부 관계자 및 주요 의사 결정권자 대상 방한실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국제회의의 유치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3) 해외홍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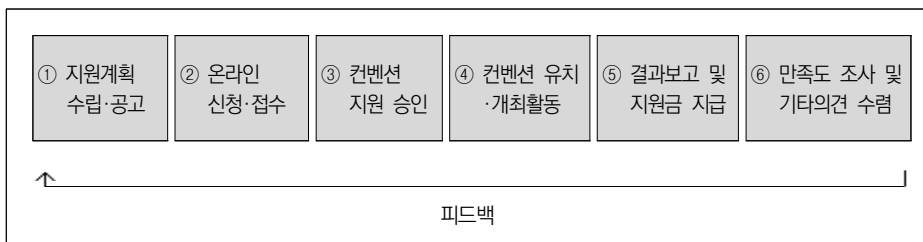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사전 홍보를 통한 국제회의 참가자를 증대를 목적으로 전차 대회 연계 홍보를 위한 회의 인쇄물, 영상 등의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해외 현장 홍보부스 운영, 공식연회 및 공연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홍보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4) 개최 지원

국내 국제회의의 주관단체 개최 경쟁력 강화와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기념품 제작, 한국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문화 예술 공연 및 공식 오·만찬 비용, 관광 및 이색체험활동, 산업시찰 등을 통해 국제회의의 개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회의의 유치·홍보·개최의 프로세스는 ① 지원계획 수립·공고를 통해 ②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조건에 충족한 신청 및 접수 건에 대하여 ③ 컨벤션 지원을 승인한다. ④ 컨벤션 유치·개최활동을 통해 지원하여 컨벤션 유치 및 개최 활동에 따라 ⑤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한다. ⑥ 만족도 조사 및 기타의견 수렴을 통해 국제회의의 유치·홍보·개최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기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컨벤션 유치·개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유치 수요 발굴 활동(1,300백만 원), Korea MICE 앰버서더 프로그램 운영(83백만 원), 국제회의 전문시설 VR 콘텐츠 제작 지원(200백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2-11] 국제회의의 유치·홍보·개최 지원 프로세스



자료: 한국관광공사(2020). 국제회의의 지원제도 안내

5) 국제회의의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군인 컨벤션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을 통한 시너지 및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국제회의의 지정 도시 및 국제회의의 전담기구 보유 시도의 지역특화 컨벤션을 발굴 지원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회의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발굴을 위해서는 해외 순회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와 더불어 국내기반 회의 육성사업인 K-컨벤션(Conventions Made in Korea)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표 2-28〉 2018년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사업 내용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 산업군인 컨벤션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을 통한 시너지 및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행사 참가자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의 지정 도시 및 국제회의의 전담기구 보유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경기, 경주, 인천, 대전, 광주, 경남, 대구, 부산, 고양 등 					
사업절차	① 지역별 사업계획 접수	② 전년도 사업 실적평가 및 지역특화 컨벤션 선정	③ 보조금 교부	④ 지역특화 컨벤션 컨설팅, 현장평가	⑤ 지역별 사업추진 결과보고	⑥ 개선방향 도출
	<div style="text-align: center;"> <p>↑ 피드백</p> </div>					
중장기 추진방향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육성 단계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우수 단계 글로벌 컨벤션 육성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대표 단계 브랜드 컨벤션 지정 </div> </div>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 컨벤션 지원금 교부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500백만원 행사별 2천~7천만원 지원 (단계별 차등) 					

〈표 2-29〉 2012~2018 지역특화컨벤션 현황

연도	지역특화컨벤션 지역별 현황	
2018	8개 지역 15개 컨벤션	경기(1), 강원(1), 대전(1), 대구(5), 광주(2), 부산(3), 고양(1), 경남(1)
2017	10개 지역 18개 컨벤션	경기(3), 인천(1), 강원(1), 대전(2), 대구(2), 광주(2), 부산(3), 경남(1), 고양(2), 제주(1)
2016	7개 지역 15개 컨벤션	경기(4), 인천(1), 강원(1), 대전(2), 대구(3), 광주(2), 부산(2)
2015	6개 지역 15개 컨벤션	경기(3), 인천(2), 대전(1), 대구(4), 광주(2), 부산(3)
2014	6개 지역 13개 컨벤션	경기(2), 인천(1), 대전(2), 대구(3), 광주(2), 부산(3)
2013	6개 지역 11개 컨벤션	경기(1), 인천(1), 대전(2), 대구(3), 광주(2), 부산(2)
2012	5개 지역 7개 컨벤션	경기(1), 대전(2), 대구(1), 광주(1), 부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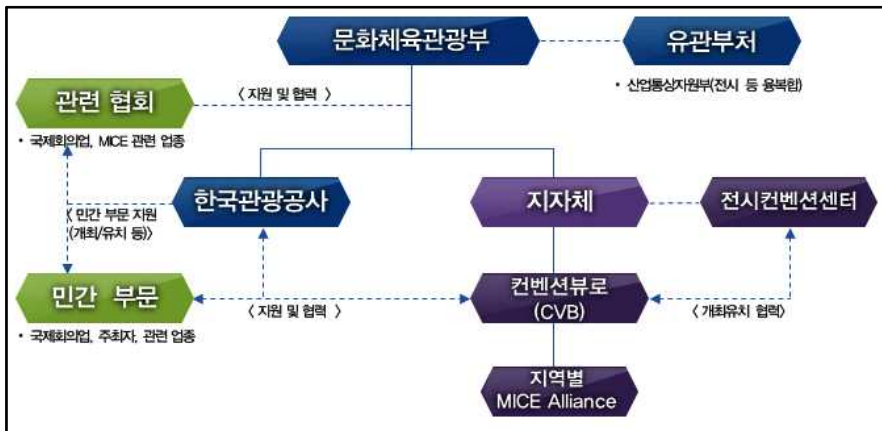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2018)

나. 국제회의산업 정책추진 체계

국제회의산업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국제회의 관련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 MICE실과 민간단체의 성격인 한국마이스협회, 한국PCO협회 등 유관기관에 국제회의 관련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그림 2-1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제회의 관련 사업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제7조~제16조에 규정된 내용(회의 개최 촉진 및 유치지원, 시설 운영촉진, 교육 훈련지원 등)을 바탕으로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 이벤트(MICE)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전술한바와 같이 관련 법률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업무 영역은 MICE산업 전반을 포괄하여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2] 국제회의 정책 추진 체계



컨벤션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는 1979년 설립된 현 코리아 MICE뷰로인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부를 필두로 대구컨벤션뷰로(2003년), 서울컨벤션뷰로(2005년), 부산MICE뷰로(2008년) 등이 전국적으로 국제회의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제회의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 13개의 컨벤션뷰로가 설립되어 있다. 컨벤션뷰로 주요업무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국제회의,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등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홍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컨벤션센터, 호텔, 국제회의기획업,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MICE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지역 내 MICE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초기에는 컨벤션전담기구는 해당 국가나 지역을 대표해 국내 및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회의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특정지역을 컨벤션 개최지로 마케팅하고 이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와 관광 발전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점차 그 역할의 범주가 확대되었다(한국관광공사, 2018).

2019년 기준 14개 CVB는 크게 별도의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지역 DMO 내부 부서로 구분되며 최근 경주와 같이 컨벤션센터의 내부 부서 등의 형태로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CVB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건전한 경쟁환경 유도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 9개 CVB에 MICE 유치·개최 활성화와 MICE 기반조성 등을 위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기준 약 25억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0〉 컨벤션부로 현황 및 조직 형태

구분	지역
별도 조직형태 (8개)	강원컨벤션뷰로, 대구 컨벤션뷰로, 경주 컨벤션뷰로, 경남 컨벤션뷰로, 제주 컨벤션뷰로, 청송마이스뷰로, 고양컨벤션뷰로, 수원컨벤션뷰로
DMO내 부서형태 (6개)	서울관광재단, 인천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광주광역시관광재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내용 토대로 재작성(2020년 기준)

제4절 국제회의산업 정책 현황 분석 시사점

1.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성과 의의

국제회의 분야는 다양한 산업 간 연계 및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국제회의 개최 국가 및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사회 및 경제가 점점 더 복잡하게 연결되고 교류하며 창출되는 부가가치 증대를 경험하면서 국제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 지식 및 기술적 발전 효과에 대한 인식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 및 도시 정부들은 국제회의 시장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된 만큼 국제회의산업 정책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분배와 집중’, ‘규제와 촉진’, ‘구성과 재분배’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 수혜자와 비용 지불자 간의 찬반 논란이나,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 및 지역들 간의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정해가면서 국가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회의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정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의 의의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 산업 생태계 및 국민 개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 이미지 향상과 국가경제(외화획득)에 기여한다. 국제회의 개최지 국가는 국제회의 개최 주제 분야 및 연관 분야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알려지는데, 개최 주제 및 프로그램과 연관한 국가 이미지는 물론 개최지로의

주요 방문 매력 요인들이 부각된다. 대규모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세계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가 집중 증가되며 선진 국가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가능하다. 국제회의 개최는 회의 참가 목적의 외국인 입국 증가를 동반하고 이들은 일반 관광객 대비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지출도 더 많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외화획득 측면에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나아가 국제회의가 전시회나 비즈니스이벤트 등을 동반할 경우 이를 통한 산업 수출 증대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에 따른 국제회의 개최 및 외국인 참가자 입국 증대는 국가 이미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기반 전략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을 통해 핵심 산업군인 국제회의기획업, 지역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등의 회의 개최 공급 관련 업종과 확장 산업군인 숙박업, 식음료,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등 회의 개최 수요 관련 업종의 육성과 더불어 국제회의 개최 주제와 관련된 지역 기반 전략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통합적인 지역 발전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은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외에도 지역의 국제회의 산업 분야와 다른 산업 분야의 공동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자산을 축적하며 장기적이고 다자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은 산업 생태계의 확장 및 국민 일자리 창출 증대의 의의를 가진다.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 발전 효과 인식 증대는 국제회의 개최 시설과 기획·운영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회의 및 연계 관광 서비스 공급 기업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의 컨벤션센터가 건립·가동 중인 가운데 향후 10여개 이상의 추가적인 컨벤션센터 건립이 진행 또는 예정 중이며,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관광 및 관광호텔 건립 증가 등과 같이 호텔·리조트가 보유한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의 규모 및 유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별로 국제회의의 전담기구 및 관련 정부 조직 설치가 증가하였고, 국제회의 기획업 및 서비스 공급자의 연간 매출액이 장기간에 걸쳐 성장세와 더불어 국제회의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학과는 물론 고등학교의 설립도 증대되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한 국제회의 기업의 등장과, 국제회의 관련 국제기구 본사나 지사의 지역 유치, 유니크베뉴 지정, 일반 대기업의 국제회의 전담팀 및 인력 확보 등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 고도화된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은 이러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장에 기여하며, 이는 국민 일자리 창출 증대로 연결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되지만, 점차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물론,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여하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나아가 다양한 산업 내 생태계의 협력 거버넌스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글로벌 환경변화에 국제회의 정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회의산업 정책유형과 영역

본 연구는 국제회의의 제도와 산업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책추진 실태분석을 위한 항목과 범위 설정을 위해 국제회의산업 정책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의 정책 목적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책적 대상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유치하는 주최자와 시설공간으로 구분되며, 정책적 목표인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을 위한 수단과 체계로 ‘기본계획수립’, ‘법·제도 제정’, ‘정책예산 배분’, ‘정책추진체계 구축’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정책추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회의산업 법률에 근거한 정책 대상과 정책사업 예산 유형 등을 토대로 국제회의산업의 정책유형을 구분하면 [그림 5-2]와 같이 국제회의 유치·개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반 조성, 국제회의도시·지구 육성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반 조성에는 국제회의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의 업제지원, 국제회의 기술 등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정보 제공, 국제협력 촉진으로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정책대상과 주체는 정부를 포함하여 관련 업제와 지자체가 대상이며 정책수단은 예산유형과 방식에 따라 배분정책, 구성정책, 상징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성상문, 2013). 이와 같이 <표 2-31>와 같이 구분된 국제회의산업 정책유형과 영역 및 대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의 및 MICE 관련 정책수단인 예산 집행현황과 산업규모 분석 및 성과와의 영향관계 분석,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국제회의산업의 정책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31〉 국제회의산업 정책유형과 영역

정책유형		정책 내용	정책대상과 주체	정책수단
국제회의 유치·개최		- 국제회의 유치, 해외홍보, 국제회의 개최, 국제회의 육성	- 주최자, 개최자, 국제회의업	- 배분정책, 상징정책 - 법 제7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역컨벤션뷰로, 국제회의업	- 구성정책 - 법 제5조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국제회의 인프라 확충 및 운영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 국제회의업, 관련 시설	- 배분정책, 구성정책 - 법 제8조, 제9조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 국제회의업, 지역컨벤션뷰로, 학계	- 배분정책 - 법 제8조, 제10조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및 기술육성 - 국내외기관과 협력사업	- 국제회의업	- 배분정책 - 법 제8조, 12조
	전문 정보 제공 및 유통	- 국제회의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가공 및 유통	- 국제회의업, 학계	- 배분정책, 구성정책 - 법 제6조, 제8조, 13조
	국제협력 촉진	-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 - 국제회의의 관련 국제행사와의 참가	- 국제회의업, 관광사업	- 배분정책, 상징정책 - 법 제8조, 제11조
국제회의도시·지구 육성		-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국제회의업, 전담조직, 관련 시설 및 공급자 등	- 배분정책, 구성정책 - 법 제14~15조

3. 국제회의산업 정책 현황과 시사점

중앙행정기관(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의 관련 법·제도와 관련 추진 현황 등의 내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정부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국제회의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회의의 범주 및 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해 실제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국제회의를 포함한 MICE 범위로 확대하여 인센티브, 이벤트 등 MICE 유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제회의산업’에서 ‘MICE 산업’으로 정책범위를 확장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법제정 당시(1997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구 UIA나 ICCA를 비롯하여 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이 참가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영향 등 국제회의의 참가 방식 등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현재 국제회의의 개최실적, MICE산업통계 등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법률에 정의된 국제회의의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8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MICE산업의 총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조 5,71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미팅부분이 차지하는 규모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는데 이는 유형별 기준, 내국인/외국인 조사 방법, 국제회의의 주최자, 개최자 등의 대상 표본의 한계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재 국제회의의 업 수와 매출액 및 종사자 수가 하락 추세에 있어 산업의 경영 여건 등의 조사항목과 지표가 개발을 통해 경영실태와 여건 파악이 요구된다.

넷째, 국제회의산업 관련 정책범위는 MICE영역 중 미팅(Meeting), 컨벤션(Convention), 인센티브(Incentive)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영역에 포함되며, 전시(Exhibition)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 이벤트(Event)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대응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MICE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위한 유치·개최 분야를 포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수출 관련 해외전시회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끝으로 국제회의의 정책 지원에 있어서는 국제회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최자, 국제회의기획업, 시설업 등의 '직접공급자'와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주최자, 국제회의를 기획·운영하는 기획업,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업 등의 '직접수요자'로 구성되어 이외 '간접공급자'인 통역업, 장치업, 인쇄업, 기념품제작업 등의 다양한 사업군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제회의기획업과 시설업은 정책범위에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주최자와 간접공급자에 대한 지원과 육성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제3장

국제회의산업 정책 실태와 성과 분석

제1절 국제회의산업 정책 예산 및 성과 탐색적 분석

1. 분석개요

가. 분석 목적

본 분석은 그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제회의산업 및 MICE 분야의 정책 분석을 위해 정책 절차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책 예산 집행 실태와 성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현재 국제회의산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와 법률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실제 정책과 집행 현황 등 실태파악에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라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있어 산업 활성화 측면 및 정책의 방향 검토 등을 위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예산에 대한 실태와 성과 등 실태파악이 필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약 5년간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 지원예산 추진 실태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유형별, 지원 예산의 유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분석 과정과 방법

본 분석 목적에 따라 최근 5년간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국제회의 및 MICE 관련 정책 예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관련 세출예산 및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 및 MICE 관련 예산을 수집하였다.

1) 예비 조사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의 정책 예산 유형을 선별하기 위해 국제회의, MICE, 컨벤션 항목의 중앙부처 및 8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의 세입·세출 자료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 150건에 대해 중앙과 지역의 예산특성과 앞서 검토한 국제회의산업 정책 영역과 유형을 고려하여 6개 정책 유형별로 예산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항목별 세부 예산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예산 항목별 세부 내역

항목	중앙 및 지역별 세부 예산 내용
① (유치/개최) MICE 유형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MICE 행사 유치/개최 및 관련 지자체 행사 개최 지원 등 - (M)기업회의 해외유치마케팅 및 단체 지원 - (I)인센티브 관광 해외 유치 마케팅 및 단체 지원 - (C)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활성화, 지역특화컨벤션(K0컨벤션) 육성, 중대형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컨벤션 유치기반 조성, 지역별 컨퍼런스 개최 - (E) 국내전시회개최지원, 컨벤션 전시회 참가, 국제이벤트 유치, 해외전시회(개별) 지원, 지역별 전시회 개최 지원
② (홍보/마케팅)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MICE산업 해외홍보, 캠페인 등 - 해외 박람회 참가 - 공동마케팅 홍보물 제작
③ (산업/업계 지원)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 인력양성 및 업계 지원 - 한국MICE육성협의회 운영 - 회의기술(미팅테크놀로지) 육성 및 활용 확대 - PCO업계 경쟁력 강화 - 전시산업기반구축 - 청년 창업지원
④ (연구/학계) MICE 전문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 통계조사 - MICE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MICE산업 조사연구 고도화 - MICE 학술연구 지원 - MICE 콘텐츠 공모전 개최
⑤ (인프라) MICE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원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 전시장 운영 관련 예산
⑥ (조직) 전담 조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전담조직 지원 - 컨벤션센터 지원 - 마이스종합지원센터 운영 - 국제회의의 기구 및 단체 지원

자료: 정부 세입세출 자료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부예산 조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 데이터 수집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 예산을 분석 가능한 데이터 형태(CSV)로 추출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자체로 나누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단위는 세 부사업단위의 각 지자체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광역자치단체 예산 원데이터 약 70,000개를 대상으로 MICE, 마이스, 컨벤션, 국제, 컨벤션 시설별 명칭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MICE 관련 예산을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데이터는 다시 6개 분석 변수(항목)에 대한 정제 작업을 통해 최종 1,855개의 데이터를 6개 분석 변수(항목)로 구성된 분석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2차로 1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회의 및 MICE산업 전문가들과 관련 자료 검토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였다.

3)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성과 지표 조사

1~4차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정책목표 및 지역 마이스 관련 개최건수 등의 성과 검토를 통해 마이스 성과지표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성과지표 관련 통계인 국제회의개최 실적 관련 국제통계(UIA, ICCA)와 마이스산업통계 및 마이스참가자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까지 파악이 가능한 성과지표를 재분류하여 최종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4) 탐색적 데이터 분석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부예산은 대상별, 연도별, 유형별로 다층적 데이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층위의 자료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예산규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대상별 예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별 예산분석 또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예산추이를 살펴본 후 대상별 특이점 분석을 통해 정책예산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6개의 분석 변수로 유형별 정책예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별 분석은 정책예산의 추진 실태를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떤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시계열적으로 정책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림 3-1] 분석과정 및 방법

절차	구분	단계	세부 과정
[1단계] 유형 구분	STEP 1	국제회의산업 정책 유형 구분 및 예비 조사	1. 문헌/행정 조사를 통한 관광/국제회의 관련 예산 전수 조사 2. 법률/조례 지원 범위 및 유형 분석
		↓	
[2단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STEP 2	중앙부처 예산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세입/ 세출 자료 조사하여 유형별 분류
		광역자치단체/ 시·도 재정 예산 조사 (Open API)	(행정안전부)지방재정 365 - (절차) 광역자치단체별 전체 예산 추출 → 키워드별 분류 - 검색어: 국제회의, 마이스, 컨벤션, 시설업 명칭 등
	STEP 3	분석데이터 추출 (약 731,240건)	- 데이터 확인 및 정제
		데이터 정제 (7개 분석 변수/1,855건)	- (유치/개최) MICE 유형별 - 홍보/마케팅 등 총 6개 분야
	STEP 4	탐색적 데이터 분석	[1단계] 정책예산 총규모 분석 - 총규모 및 증감을 시계열 분석
			[[2단계] 대상별 정책예산 분석 - 대상별 예산 규모·비중 및 증감을 시계열 /특이점 분석
			[3단계] 유형별 분석 - 유형별 정책예산 규모·비중 및 증감을 시계열/특이점 분석
[3단계] 성과 지표 분석	STEP 5	마이스 성과 지표 분류	- 정책 성과지표 항목 분류 검토
		MICE 산업 통계와 MICE 참자가 조사 추출	- 정량, 정성 성과 지표 분석

2. 탐색적 데이터 분석 결과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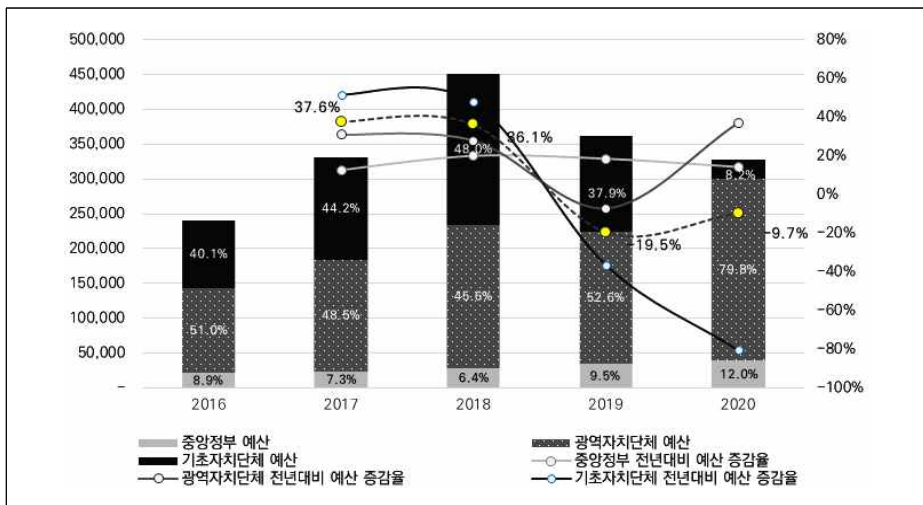
가. 국제회의산업 관련 정책 예산 실태 분석

1) 국제회의산업 전체 예산

2020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을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3,2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정부의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이 약 394억 원으로 약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약 2,617억 원으로 약 7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약 269억 원으로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경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또한 2019년 약 7.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3-2]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예산 변화(2016~2020)



3)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산 결과는 중앙부처 및 8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의 세입·세출 자료를 활용하여 6개 항목으로 분석한 결과로 실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집행한 세목과 집행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예산은 각각 약 51.7%, 약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은 약 80.5%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표 3-2〉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예산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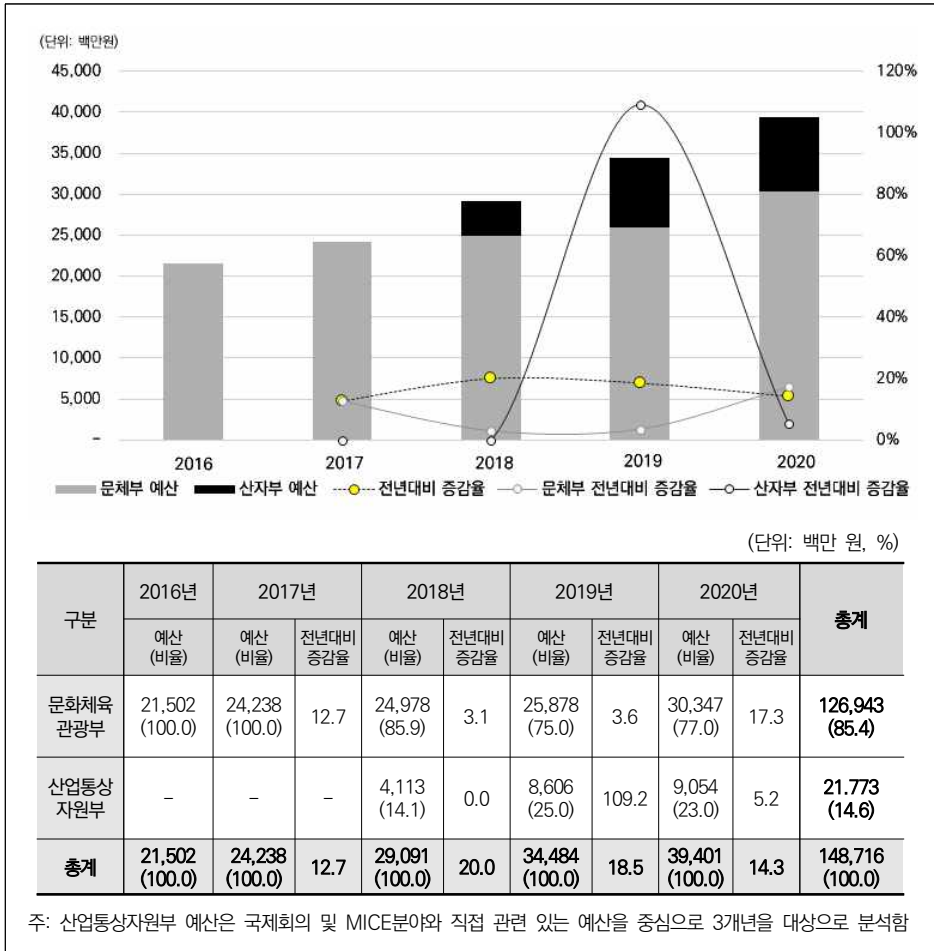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중앙 정부	21,502 (8.9)	24,238 (7.3)	12.7	29,091 (6.9)	20.0	34,484 (9.2)	18.5	39,401 (12.0)	14.3
광역 자치단체	122,796 (51.0)	160,780 (48.5)	30.9	205,644 (45.6)	27.9	190,995 (52.6)	-7.1	261,681 (79.8)	37.0
기초 자치단체	96,495 (40.1)	146,408 (44.2)	51.7	216,470 (48.0)	47.9	137,601 (37.9)	-36.4	26,874 (8.2)	-80.5
총계	240,792 (100.0)	331,427 (100.0)	37.6%	451,205 (100.0)	36.1%	363,080 (100.0)	-19.5%	327,955 (100.0)	-9.7%

2) 집행 주체별 예산 분석

① 중앙정부 예산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예산을 집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산자원부의 5개년(2016~2020) 행정조사에 따르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은 2016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분석기간 5개년 중 가장 높은 17.3%의 예산 증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도 예산이 집계된 2018년 이래로 예산감소 없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전년대비 109.2%의 예산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센터 BTL)이 신설되었으며, 국내전시회개최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약 24.3%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단, 산업통산자원부의 예산의 경우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예산의 고유한 특성을 살피기 위해 행정조사 중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을 제외한 국내 전시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시산업 경쟁력강화지원 예산을 대상으로 했다.

[그림 3-3] 중앙정부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예산 변화(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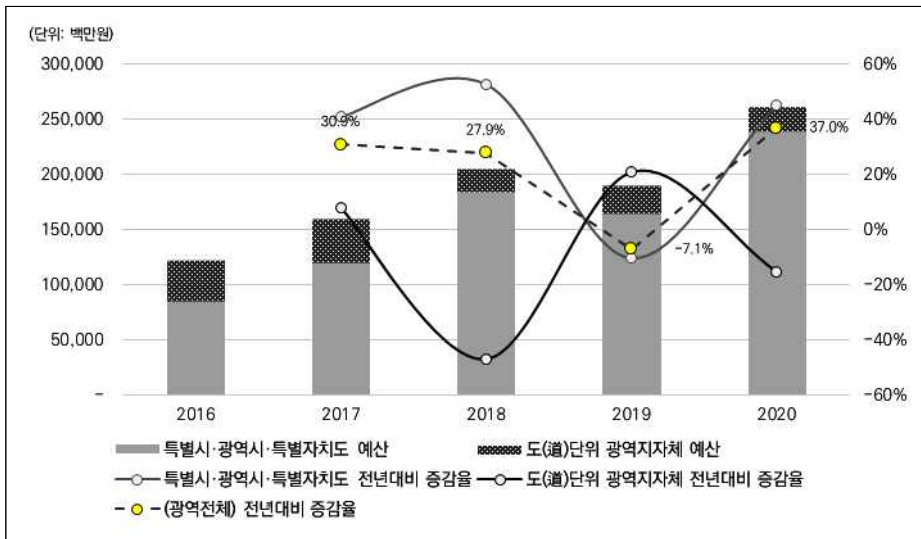
② 광역자치단체 예산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의 정책 예산 집행 및 행정구역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8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특별시·광역시와 ‘도(道) 단위’의 8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광역자치단체의 5개년(2016~2020)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 관련 정책 예산 행정조사에 따르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광역지자체 5개년 합계 약 9,419억 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2019년 약 1,910억 원으로 전년대비 7.1% 감소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37.0% 증가한 약 2,617억 원의 광역지자체 예산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가 약 2,190억 원을 차지하여, 광역지자체 중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구광역시가 약 1,774억 원(18.8%), 대전광역시가 약 1,244억 원(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광역자치단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예산 변화(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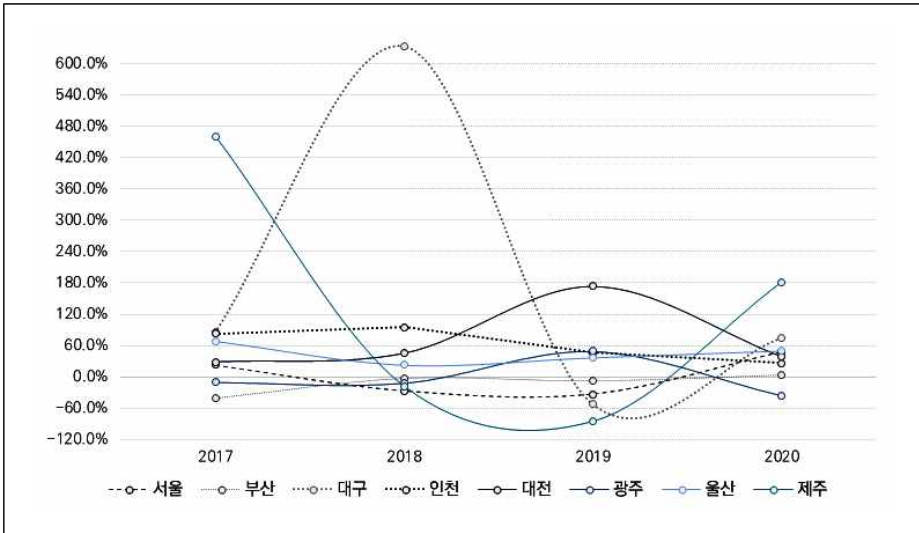
5개년(2016~2020) 합계 예산 중 8개 광역시 예산은 84.5%로 약 7,963억을 나타냈으며, '도(道) 단위'의 8개 광역자치체 예산은 약 1,456억으로 15.5%의 비중을 차지했다. 8개 광역시의 예산비중은 2016년 69.8%에서 2020년 91.7%로 늘어났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광역시의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 관련 정책 예산 5개년(2016~2020)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약 7,9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울산광역시 약 2,190억 원을 차지하여, 8개 광역시 중 2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약 1,774억 원(22.3%), 대전광역시 약 1,244억 원(15.6%), 부산광역시 약 948억 원(11.9%), 제주특별자치도 약 743억 원(9.3%), 서울특별시 약 502억 원(6.3%), 광주광역시 약 370억 원(4.6%), 인천광역시 약 192억 원(2.4%)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광역시 합계 2,4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5개년 합계와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가 약 782억 원으로 전체의 약 32.6%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가 약 588억 원(24.5%), 대전광역시가 약 540억 원(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10.3%의 감소세를 보인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45.1%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대전, 울산의 경우 2016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은 2020년 3.0%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8년 전년대비 633.3%의 비약적인 예산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2020년은 광주(-35%)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81.7%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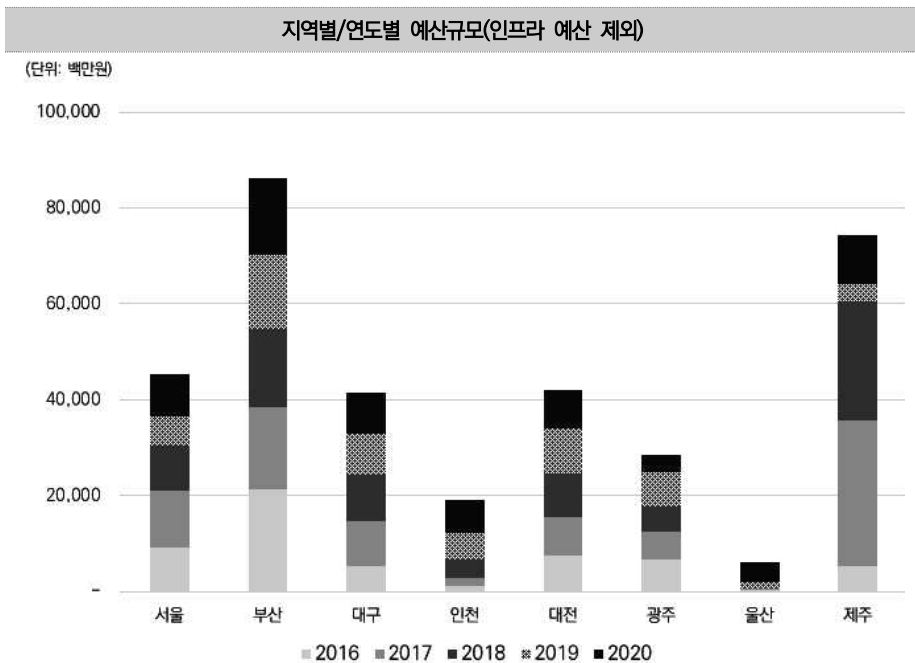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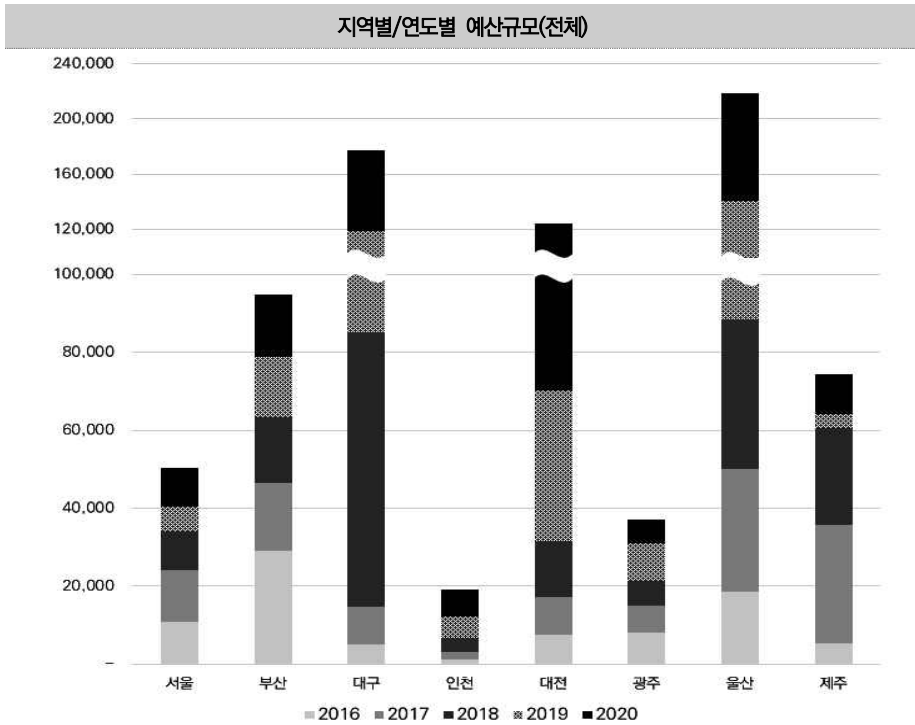
[그림 3-5] 광역시 중심 8개 광역지자체 전년대비 예산 증감율



분석 대상 광역시 중, 상위 지자체로 분석된 울산, 대구, 대전의 경우 해당 도시의 전시컨벤션센터 확장 등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MICE 인프라 구축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의 경우 2020년 MICE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에 약 740억 원의 예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을 제외한 예산의 흐름을 보는 것이 8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광역시의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을 제외하는 경우, 5개년 누적 부산광역시가 약 861억 원으로 25.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약 743억 원(21.7%), 서울특별시 약 453억 원(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부산이 약 160억 원(2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도, 서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3-6] 광역시 중심 8개 광역지자체 연도별 예산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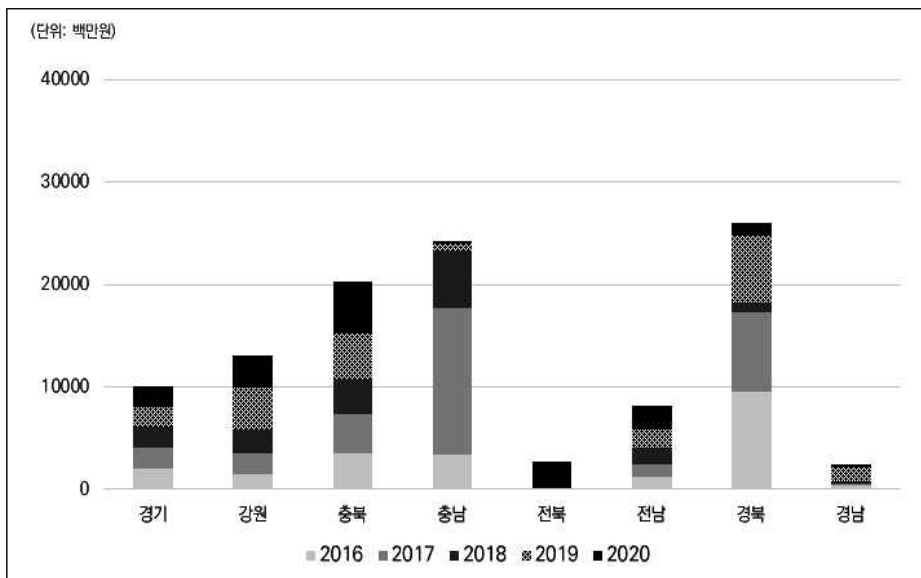


③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도단위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 관련 정책 예산 5개년(2016~2020) 분석 결과,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약 1,45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상남도가 약 487억 원을 차지하여,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약 260억 원(17.9%), 충청북도가 약 242억 원(16.6%), 강원도 약 203억 원(14.0%), 경기도 약 130억 원(9.0%), 전라북도 약 81억 원(5.6%), 충청남도 약 27억 원(1.9%), 경상북도 약 24억 원(1.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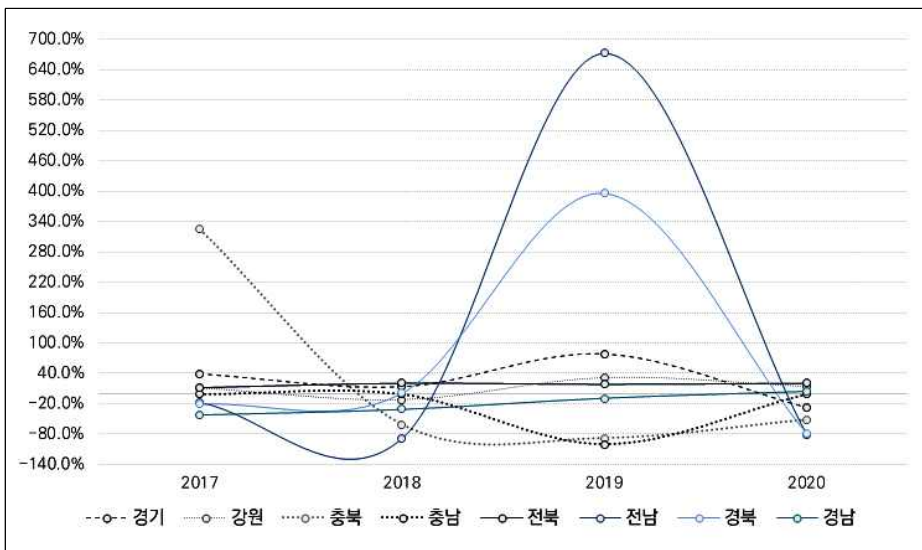
2020년 해당 시도단위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합계 21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5개년 합계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가 약 70억 원으로 약 31.3%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강원도가 약 51억 원(23.4%), 경기도가 약 30억 원(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도(道)단위 8개 광역자치체 연도별 예산규모 변화



전년대비 예산 증감율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로 증감률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년대비 7.9%의 소폭 상승을 보인 이후 2018년 47% 하락, 2019년 20.8% 상승, 2020년 15.3% 하락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지자체는 전라북도만 유일했다. 8개 도(道) 가운데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보이는 경상남도의 경우 2020년 3.9%의 소폭 상승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라남도의 경우 2019년 전년대비 672.5%의 비약적인 예산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2020년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전라북도로 21.0%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가장 크게 감소세를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로 전년대비 81.2%의 예산 감소를 나타냈다.

[그림 3-8] 도(道)단위 8개 광역지자체 전년대비 예산 증감율



〈표 3-3〉 광역자치단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예산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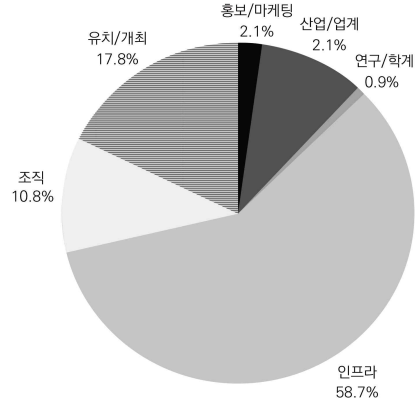
구분	광역 자치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소계비중)
		예산 (소계비중)	예산 (소계비중)	전년 대비 증감율	예산 (소계비중)	전년 대비 증감율	예산 (소계비중)	전년 대비 증감율	예산 (소계비중)	전년 대비 증감율	
광역(시) 자치체 및 특별 자치도	서울	10,829 (12.6)	13,318 (11.0)	23.0	9,761 (5.3)	-26.7	6,549 (4.0)	-32.9	9,759 (4.1)	49.0	50,216 (6.3)
	부산	29,050 (33.9)	17,416 (14.4)	-40.0	16,849 (9.1)	-3.3	15,516 (9.4)	-7.9	15,974 (6.7)	3.0	94,805 (11.9)
	대구	5,163 (6.0)	9,595 (7.9)	85.8	70,358 (38.1)	633.3	33,491 (20.3)	-52.4	58,808 (24.5)	75.6	177,414 (22.3)
	인천	1,055 (1.2)	1,930 (1.6)	82.9	3,765 (2.0)	95.0	5,509 (3.3)	46.3	6,956 (2.9)	26.3	19,216 (2.4)
	대전	7,558 (8.8)	9,739 (8.1)	28.9	14,175 (7.7)	45.5	38,856 (23.5)	174.1	54,036 (22.5)	39.1	124,365 (15.6)
	광주	7,955 (9.3)	7,155 (5.9)	-10.0	6,334 (3.4)	-11.5	9,453 (5.7)	49.2	6,103 (2.5)	-35.4	37,000 (4.6)
	울산	18,707 (21.8)	31,255 (25.9)	67.1	38,372 (20.8)	22.8	52,410 (31.7)	36.6	78,230 (32.6)	49.3	218,974 (27.5)
	제주	5,414 (6.3)	30,369 (25.1)	461.0	24,813 (13.5)	-18.3	3,584 (2.2)	-85.6	10,095 (4.2)	181.7	74,275 (9.3)
	소계	85,729 (100.0)	120,779 (100.0)	40.9	184,427 (100.0)	52.7	165,367 (100.0)	-10.3	239,962 (100.0)	45.1	796,265 (100.0)
광역(도) 자치체	경기	1,460 (3.9)	2,038 (5.1)	39.6	2,330 (11.0)	14.3	4,160 (16.)	78.5	3,046 (14.0)	-26.8	13,034 (9.0)
	강원	3,497 (9.4)	3,880 (9.7)	11.0	3,406 (16.1)	-12.2	4,463 (17.4)	31.0	5,081 (23.4)	13.8	20,326 (14.0)
	충북	3,366 (9.1)	14,294 (35.7)	324.7	5,569 (26.2)	-61.0	684 (2.7)	-87.7	331 (1.5)	-51.5	24,243 (16.6)
	충남	-	-	-	34 (0.2)	-	-	-100.0	2,698 (12.4)	-	2,732 (1.9)
	전북	1,164 (3.1)	1,291 (3.2)	11.0	1,563 (7.4)	21.0	1,856 (7.2)	18.7	2,245 (10.3)	21.0	8,118 (5.6)
	전남	9,479 (25.6)	7,837 (19.6)	-17.3	856 (4.0)	-89.1	6,612 (25.8)	672.5	1,242 (5.7)	-81.2	26,026 (17.9)
	경북	330 (0.9)	262 (0.7)	-20.6	265 (1.2)	1.1	1,315 (5.1)	396.2	282 (1.3)	-78.6	2,454 (1.7)
	경남	17,771 (47.9)	10,399 (26.0)	-41.5	7,195 (33.9)	-30.8	6,539 (25.5)	-9.1	6,793 (31.3)	3.9	48,698 (33.4)
	소계	37,066 (100.0)	40,001 (100.0)	7.9	21,217 (100.0)	-47.0	25,628 (100.0)	20.8	21,718 (100.0)	-15.3	145,631 (100.0)
총계		122,796	160,780	30.9	205,644	27.9	190,995	-7.1	261,681	37.0	941,896

3) 예산 항목별 분석

① 총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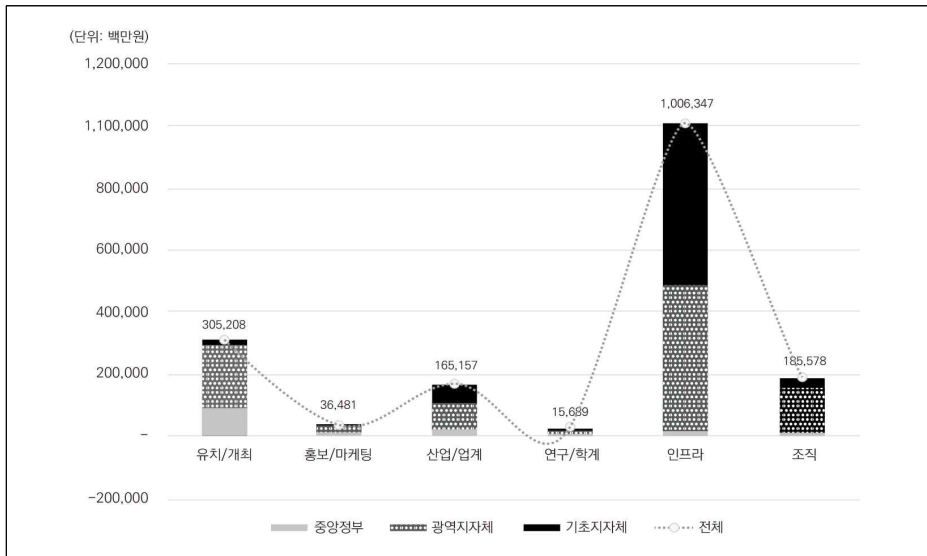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5개년(2016~2020) 기준으로 정책예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MICE 인프라 구축이 약 10,063억 원으로 58.7%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이 MICE 인프라 구축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그림 3-9] 2020년 예산유형 비중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은 약 3,052억 원, 17.8%의 비중을 보였다.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비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MICE 전담조직 지원 약 1,856억 원(10.8%),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약 1,652억 원(9.6%),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약 365억 원(2.1%), MICE 전문정보 제공 등 연구 및 학계 지원 약 157억 원(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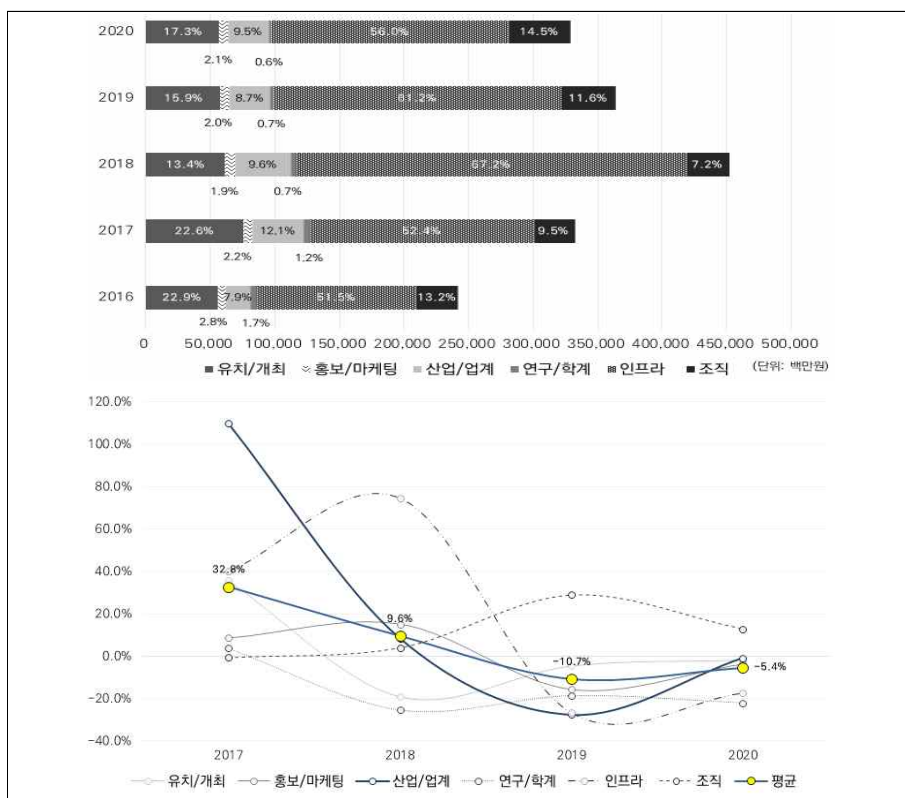
[그림 3-10] 유형별 예산 비중(5개년 합계)



2020년 기준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약 3,280억 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MICE 인프라 구축이 약 1,836억 원으로 56.0%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이 약 567억 원(17.3%), MICE 전담조직 지원 약 476억 원(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MICE 전담조직 지원은 2017년 전년대비 소폭 하락(-0.7%)을 제외하고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은 2017년 전년대비 35.6%의 증가를 보인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또한 2017년 전년대비 109.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점차 성장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이후로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은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높은 성장률(2017년 39.9%, 2018년 74.6%)을 보이다 2019년 이후 감소세(2019년 -26.7%, 2020년 -17.3%)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1] 유형별·연도별 예산 규모 및 비중(2016~2020) 및 증감율



〈표 3-4〉 유형별·대상별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

사업 구분	중앙정부 (예산, 비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 (예산, 비중)					기초자치단체 (예산, 비중)					중앙정부,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및 기초 (예산, 비중)					5개년 총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비중
① (유치/개최) MICE 유형별 예산	14,573 (67.8)	16,138 (66.6)	18,306 (62.9)	18,806 (62.7)	21,706 (62.2)	39,778 (32.4)	56,547 (35.2)	39,339 (19.1)	36,698 (19.2)	32,703 (12.5)	905 (0.9)	2,229 (1.5)	2,906 (1.3)	2,248 (1.6)	2,325 (8.7)	55,256 (22.9)	74,914 (22.6)	60,551 (13.4)	57,753 (15.9)	56,735 (17.3)	305,208	17.8
② (홍보/마케팅)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548 (11.9)	2,508 (10.3)	2,738 (9.4)	2,738 (9.1)	2,738 (7.8)	3,271 (2.7)	3,961 (2.5)	4,819 (2.3)	3,492 (1.8)	3,219 (1.2)	927 (1.0)	857 (0.6)	882 (0.4)	887 (0.6)	896 (3.3)	6,746 (2.8)	7,327 (2.2)	8,438 (1.9)	7,117 (2.0)	6,853 (2.1)	36,481	2.1
③ (산업/업계 지원)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1,369 (6.4)	2,305 (9.5)	3,610 (12.4)	3,570 (11.9)	4,587 (13.1)	6,324 (5.2)	27,241 (16.9)	28,038 (13.6)	14,404 (7.5)	14,237 (5.4)	11,396 (11.8)	10,485 (7.2)	11,762 (5.4)	13,457 (9.8)	12,371 (46.0)	19,089 (7.9)	40,032 (12.1)	43,410 (9.6)	31,431 (8.7)	31,196 (9.5)	165,157	9.6
④ (연구/학계) MICE 전문정보 제공	2,112 (9.8)	2,087 (8.6)	937 (3.2)	1,377 (4.6)	1,377 (3.9)	1,846 (1.5)	2,020 (1.3)	2,122 (1.0)	1,094 (0.6)	540 (0.2)	28 (0.0)	28 (0.0)	28 (0.0)	44 (0.0)	46 (0.2)	3,987 (1.7)	4,135 (1.2)	3,088 (0.7)	2,516 (0.7)	1,963 (0.6)	15,689	0.9
⑤ (인프라) MICE 인프라	900 (4.2)	1,000 (4.1)	1,000 (3.4)	1,000 (3.3)	2,000 (5.7)	40,281 (32.8)	41,434 (25.8)	106,550 (51.8)	108,207 (56.7)	176,594 (67.5)	82,861 (85.9)	131,130 (89.6)	195,462 (90.3)	108,413 (78.8)	530 (2.0)	124,041 (51.5)	173,564 (52.4)	303,012 (67.2)	222,113 (61.2)	183,617 (56.0)	1,006,347	58.7
⑥ (조직) 전담 조직 지원	- (-)	200 (0.8)	2,500 (8.6)	2,500 (8.3)	2,500 (7.2)	31,296 (25.5)	29,577 (18.4)	24,776 (12.0)	27,099 (14.2)	34,388 (13.1)	377 (0.4)	1,678 (1.1)	5,430 (2.5)	12,552 (9.1)	10,704 (39.8)	31,673 (13.2)	31,455 (9.5)	32,706 (7.2)	42,152 (11.6)	47,592 (14.5)	185,578	10.8
총계	21,502 (100.0)	24,238 (100.0)	29,091 (100.0)	29,991 (100.0)	34,908 (100.0)	122,796 (100.0)	160,780 (100.0)	205,644 (100.0)	190,995 (100.0)	261,681 (100.0)	96,495 (100.0)	146,408 (100.0)	216,470 (100.0)	137,601 (100.0)	26,874 (100.0)	240,792 (100.0)	331,427 (100.0)	451,205 (100.0)	363,080 (100.0)	327,955 (100.0)	1,714,459	100.0

〈표 3-5〉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예산(2020년): 중앙부처,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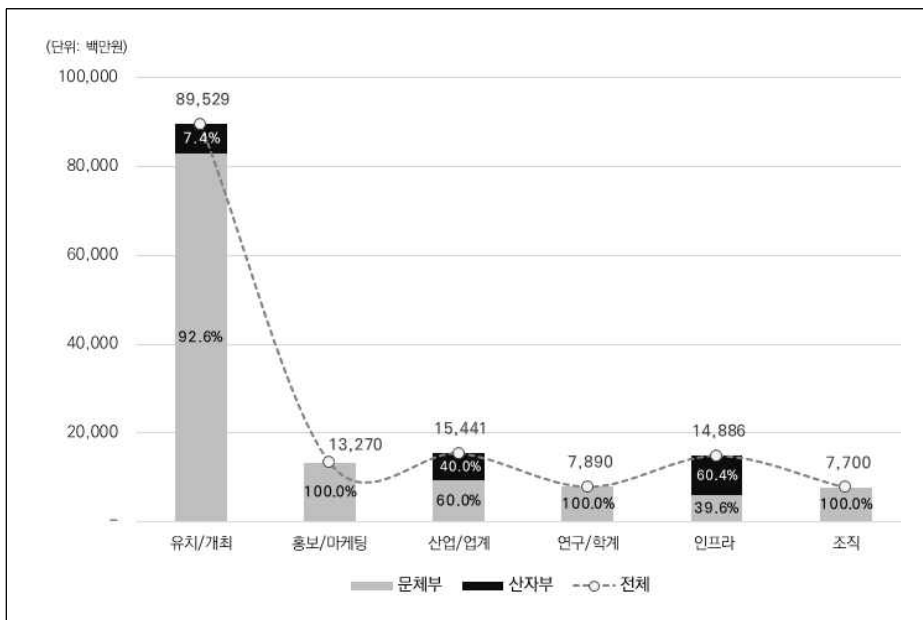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사업 구분	문체부	산자부	중앙부처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제주	특별시·도 및 광역시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역시·도 소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① (유치/개최) MICE 유형별 예산	19,264 (63.5)	2,242 (27.0)	21,706 (55.1)	8,100 (92.5)	3,179 (23.0)	5,242 (37.9)	3,450 (49.6)	-	1,529 (26.0)	-	800 (7.9)	22,300 (9.5)	500 (16.4)	3,590 (70.7)	39 (11.8)	- (0.0)	1,550 (69.1)	581 (46.8)	186 (66.0)	790 (11.6)	7,236 (33.3)
② (홍보/마케팅)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738 (9.0)	-	2,738 (6.9)	300 (3.4)	405 (2.9)	1,110 (7.9)	-	-	-	75 (0.1)	38 (0.4)	1,918 (0.8)	- (0.0)	- (0.0)	272 (82.2)	90 (3.3)	482 (21.5)	345 (27.8)	96 (34.0)	- (0.0)	1,285 (5.9)
③ (산업/업계 지원)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2,468 (8.1)	2,119 (23.4)	4,587 (11.6)	-	809 (5.8)	1,110 (8.0)	2,365 (34.0)	-	1,118 (19.0)	-	4,320 (42.8)	9,722 (4.1)	2,546 (83.6)	723 (14.2)	20 (6.0)	- (0.0)	213 (9.5)	- (0.0)	- (0.0)	578 (8.5)	4,080 (18.8)
④ (연구/학계) MICE 전문정보 제공	1,377 (4.5)	-	1,377 (3.5)	-	64 (0.5)	-	-	-	-	-	-	64 (0.0)	- (0.0)	- (0.0)	- (0.0)	- (0.0)	- (0.0)	316 (25.4)	- (0.0)	- (0.0)	316 (1.5)
⑤ (인프라) MICE 인프라	2,000 (6.6)	4,493 (49.6)	6,493 (16.5)	-	19 (0.1)	50,321 (87.1)	-	46,099 (85.3)	2,386 (40.6)	74,030 (94.9)	-	172,854 (73.4)	- (0.0)	- (0.0)	- (0.0)	2,608 (96.7)	- (0.0)	- (0.0)	- (0.0)	130 (1.9)	2,738 (12.6)
⑥ (조직) 전담 조직 지원	2,500 (8.2)	-	2,500 (6.3)	200 (2.3)	9,366 (67.7)	-	1,140 (16.4)	7,938 (14.7)	850 (14.4)	3,894 (5.0)	4,937 (48.9)	28,325 (12.0)	- (0.0)	768 (15.1)	- (0.0)	- (0.0)	- (0.0)	- (0.0)	- (0.0)	5,295 (77.9)	6,063 (27.9)
총계	30,347 (100.0)	9,054 (100.0)	39,401 (100.0)	8,759 (100.0)	13,842 (100.0)	57,773 (100.0)	6,955 (100.0)	54,036 (100.0)	5,883 (100.0)	77,999 (100.0)	10,095 (100.0)	235,183 (100.0)	3,046 (100.0)	5,081 (100.0)	331 (100.0)	2,698 (100.0)	2,245 (100.0)	1,242 (100.0)	282 (100.0)	6,793 (100.0)	21,718 (100.0)

② 중앙정부 예산

중앙정부의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5개년(2016~2020) 정책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MICE 유치·개최 지원이 약 895억 원으로 64.1%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약 829억 원으로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의 6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컨벤션(Convention)으로 약 405억 원, 중앙정부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의 45.2%, 총예산의 29.0%를 나타냈다. 다음은 인센티브 약 237억 원(유치/개최 26.4%, 전체 16.9%), 전시(Exhibition) 약 152억 원(유치/개최 17.0%, 전체 10.9%), 미팅(Meeting) 약 102억 원(유치/개최 11.4%, 전체 7.3%) 순으로 나타났다.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 다음으로는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연계지원으로 약 154억 원(10.4%), MICE 인프라 구축 약 149억 원(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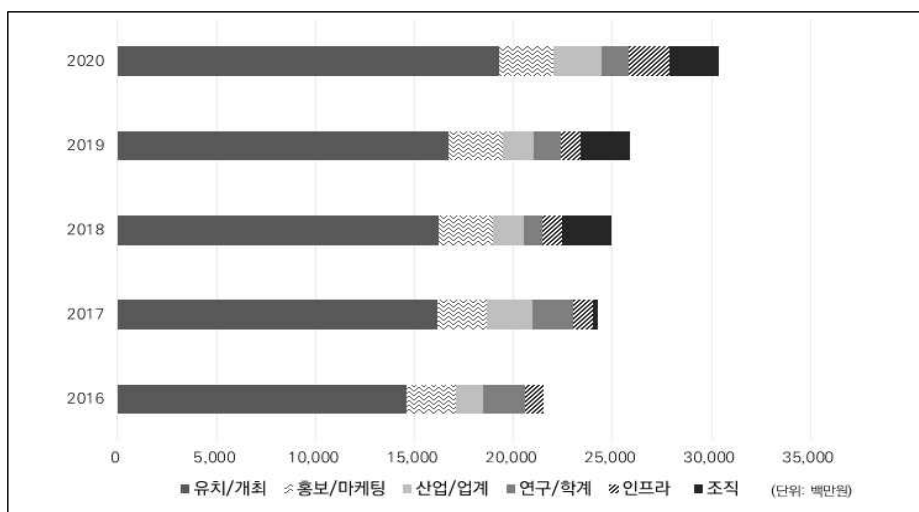
[그림 3-12] 중앙정부 유형별 예산규모 변화



2020년 예산의 경우, 문체부와 산자부의 중앙정부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총 394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5개년 누적예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이 약 217억 원으로 55.1%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약 193억 원으로 해당년도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의 63.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MICE 인프라 구축이 약 65억 원(16.5%),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연계지원이 약 46억 원(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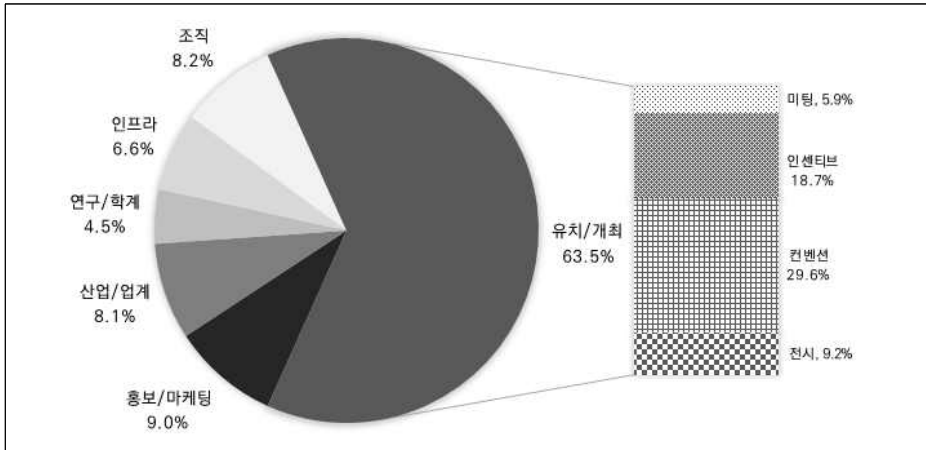
중앙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정책 예산이 약 1,269억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은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약 133억 원, 10.5%),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연계지원(약 93억 원,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문화체육관광부 유형별 예산(5개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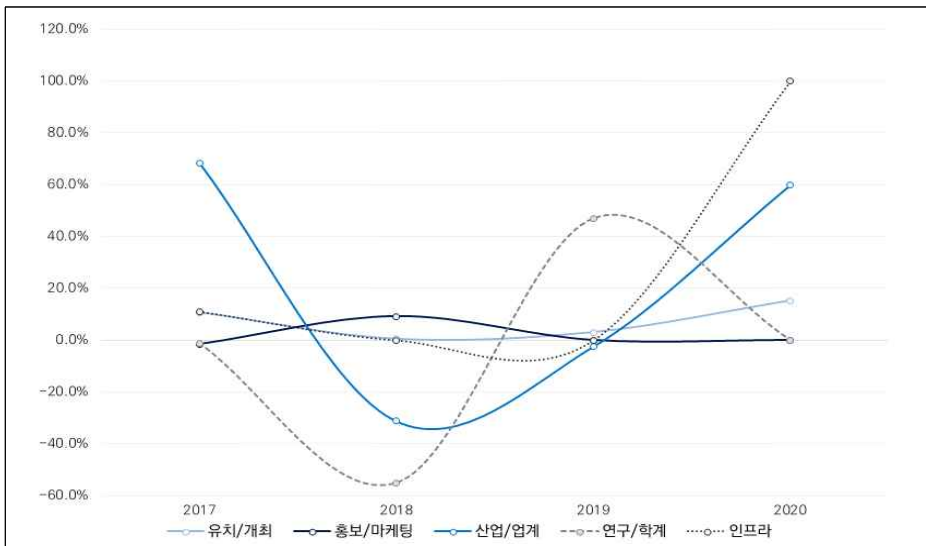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이래로 2020년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 및 MICE 관련 산업 정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의 예산이 MICE 유치·개최 지원(약 192억 원, 63.5%)이었으며, 해당 예산 중 컨벤션(Convention)이 약 9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인센티브(Incentive), 전시(Exhibition), 미팅(Meeting)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홍보마케팅(9.0%), 조직지원(8.2%), 산업연계(8.1%)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문화체육관광부 유형별 예산(2020년)



연도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은 2016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 15.2%의 증가율을 보였다.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의 경우 2020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지원 예산의 경우 2018년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59.7%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문체부 유형별 전년대비 예산규모 증감율



〈표 3-6〉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예산(5개년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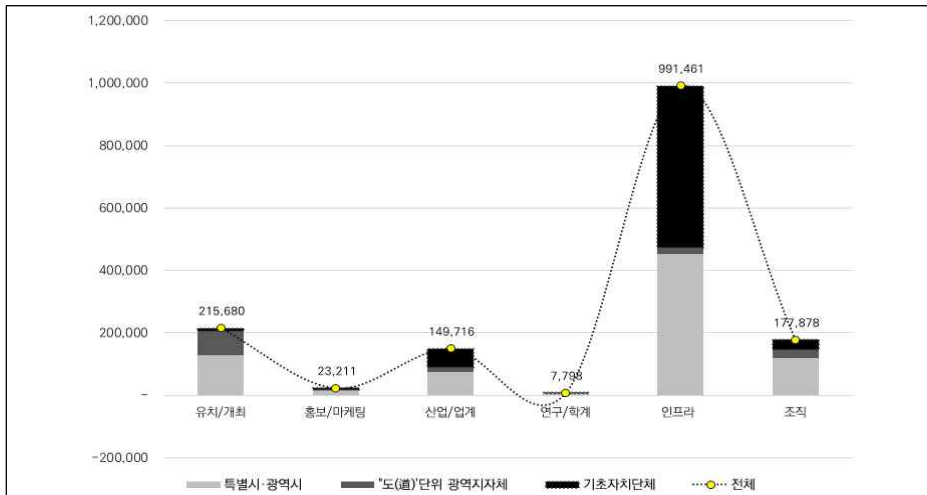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사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개년 합계	5개년 평균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증감율	예산 (비율)	증감율	예산 (비율)	증감율	예산 (비율)	증감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① (유치/개최) MICE 유형별 예산	M	2,250 (10.5)	2,550 (0.1)	13.3	1,800 (0.1)	-29.4	1,800 (7.0)	0.0	1,800 (5.9)	0.0	10,200 (8.0)	2,040 (8.0)
	I	2,647 (12.3)	3,978 (16.4)	50.3	5,675 (22.7)	42.7	5,675 (21.9)	0.0	5,675 (18.7)	0.0	23,650 (18.6)	4,730 (18.6)
	C	8,406 (39.1)	8,400 (34.7)	-0.1	7,083 (28.4)	-15.7	7,583 (29.3)	7.1	8,983 (29.6)	18.5	40,455 (31.9)	8,091 (31.9)
	E	1,270 (5.9)	1,210 (5.0)	-4.7	1,660 (6.6)	37.2	1,660 (6.4)	0.0	2,806 (9.2)	69.0	8,606 (6.8)	1,721 (6.8)
	소계	14,573 (67.8)	16,138 (66.6)	10.7	16,218 (64.9)	0.5	16,718 (64.6)	3.1	19,264 (63.5)	15.2	82,911 (65.3)	16,582 (65.3)
② (홍보/마케팅)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548 (11.9)	2,508 (10.3)	-1.6	2,738 (11.0)	9.2	2,738 (10.6)	0.0	2,738 (9.0)	0.0	13,270 (10.5)	2,654 (10.5)
③ (산업/업계 지원)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1,369 (6.4)	2,305 (9.5)	68.4	1,585 (6.3)	-31.2	1,545 (6.0)	-2.5	2,468 (8.1)	59.7	9,272 (7.3)	1,854 (7.3)
④ (연구/학계) MICE 전문정보 제공		2,112 (9.8)	2,087 (8.6)	-1.2	937 (3.8)	-55.1	1,377 (5.3)	47.0	1,377 (4.5)	0.0	7,890 (6.2)	1,578 (6.2)
⑤ (인프라) MICE 인프라		900 (4.2)	1,000 (4.1)	11.1	1,000 (4.0)	4.0	1,000 (3.9)	0.0	2,000 (6.6)	100.0	5,900 (4.6)	1,180 (4.6)
⑥ (조직) 전담 조직 지원		-	200 (0.8)	-	2,500 (10.0)	0.0	2,500 (9.7)	0.0	2,500 (8.2)	0.0	7,700 (6.1)	1,540 (6.1)
총계		21,502 (100.0)	24,238 (100.0)	12.7	24,978 (100.0)	3.1	25,878 (100.0)	3.6	30,347 (100.0)	17.3	126,943 (100.0)	25,389 (100.0)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5개년(2016~2020) 정책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이 약 9,915억 원으로 63.3%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으로 약 2,157억 원, 13.8%의 비중을 보였으며, 특별시·광역시 약 1,290억, '도(道)'단위 광역지자체 약 760억, 기초자치단체 약 106억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MICE 전담조직 지원 예산은 약 1,779억 원(11.4%)으로 나타났으며,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지원으로 약 1,497억 원(9.6%),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약 232억, 1.5%), MICE 전문정보 제공 등 연구 및 학계 지원(약 78억, 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예산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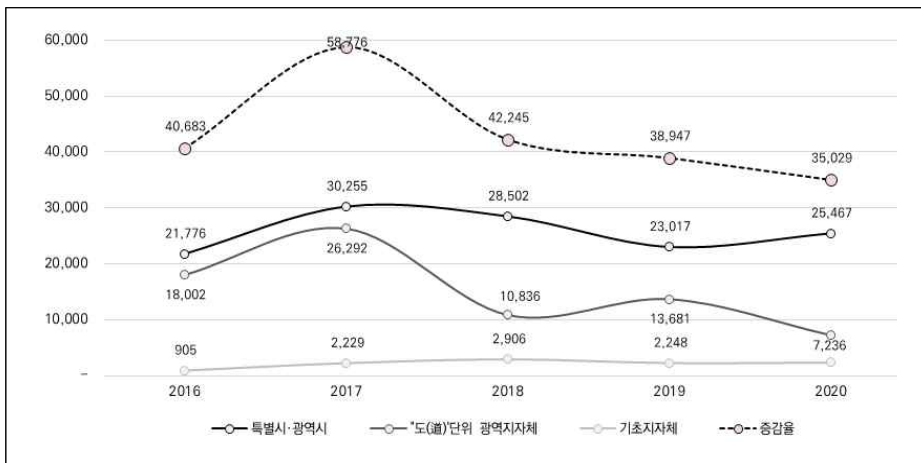


구분	특별시·광역시		'도(道)'단위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총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MICE 유치·개최 지원	129,018	16.2	76,048	52.2	10,614	1.7	215,680	13.8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3,980	1.8	4,782	3.3	4,448	0.7	23,211	1.5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지원	74,039	9.3	16,205	11.1	59,472	9.5	149,716	9.6
MICE 전문정보 제공 등 연구 및 학계 지원	5,667	0.7	1,956	1.3	175	0.0	7,798	0.5
MICE 인프라 구축	453,360	56.9	19,705	13.5	518,396	83.1	991,461	63.3
MICE 전담조직 지원	120,201	15.1	26,935	18.5	30,742	4.9	177,878	11.4
총계	796,265	100.0	145,631	100.0	623,847	100.0	1,565,743	100.0

④ 지방자치단체 예산유형별 변화 분석

국제회의 예산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의 경우 지방 정부 예산은 2017년 전년대비 44.5% 증가한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017년 약 3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분석 5개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후 2019까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전년대비 10.6% 증가한 약 23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道)’단위 광역지자체는 예산 증감율이 가장 동적으로 변화하여 2017년 전년대비 46.0% 증가한 약 263억 원, 2018년 -58.8% 감소한 약 108억 원, 2019년 26.3% 증가한 약 167억 원, 2020년 -47.1% 감소한 약 72억 원의 예산수치를 보였다. 예산비중이 가장 적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2019년 전년대비 약 -22.6%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3-17]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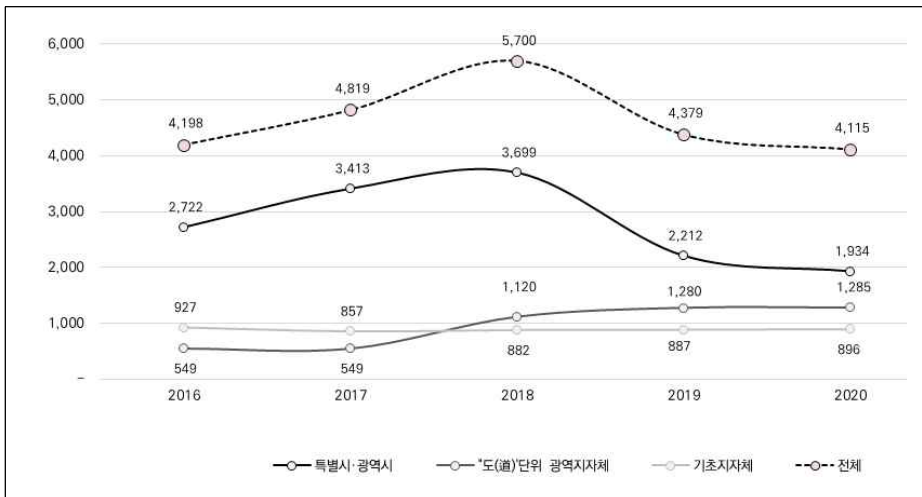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특별시·광역시·	예산	21,776	30,255	28,502	23,017	25,467
	전년대비 증감율	-	38.9	-5.8	-19.2	10.6
‘도(道)’단위 광역지자체	예산	18,002	26,292	10,836	13,681	7,236
	전년대비 증감율	-	46.0	-58.8	26.3	-47.1
기초지자체	예산	905	2,229	2,906	2,248	2,325
	전년대비 증감율	-	146.3	30.4	-22.6	3.4
전체	예산	40,683	58,776	42,245	38,947	35,029
	전년대비 증감율	-	44.5	-28.1	-7.8	-10.1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예산의 경우,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예산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2020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집행대상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보이는 특별시·광역시는 전체예산 추세와 같이 2016년 이래로 2018년까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으며, '도(道)'단위 광역지자체는 2017년 전년대비 소폭 감소세(-0.1%)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지자체 또한 2017년 전년대비 -7.5%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8]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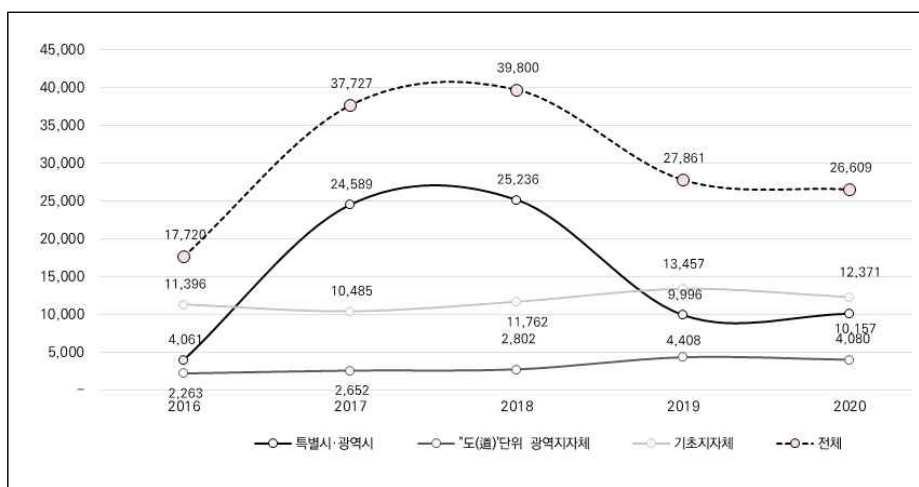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특별시·광역시	예산	2,722	3,413	3,699	2,212	1,934
	전년대비 증감율	-	25.4	8.4	-40.2	-12.6
'도(道)'단위 광역지자체	예산	549	549	1,120	1,280	1,285
	전년대비 증감율	-	-0.1	104.0	14.3	0.4
기초지자체	예산	927	857	882	887	896
	전년대비 증감율	-	-7.5	2.9	0.6	1.1
전체	예산	4,198	4,819	5,700	4,379	4,115
	전년대비 증감율	-	14.8	18.3	-23.2	-6.0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전년대비 큰 폭의 상승(112.9%)을 보이고 2018년 전년대비 5.5%의 소폭 증가세를 나타낸 후 2020년까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큰 폭의 상승세는 특별시·광역시의 2017년 전년대비 큰 폭의 예산증가(약 246억 원, 505.5% 증가)에서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도(道)'단위 광역지자체는 2016년 이래로 2019년까지 전년대비 예산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7.4% 감소한 약 4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지자체는 2017년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인 후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8.1%의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부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지원 예산을 상회했다.

[그림 3-19]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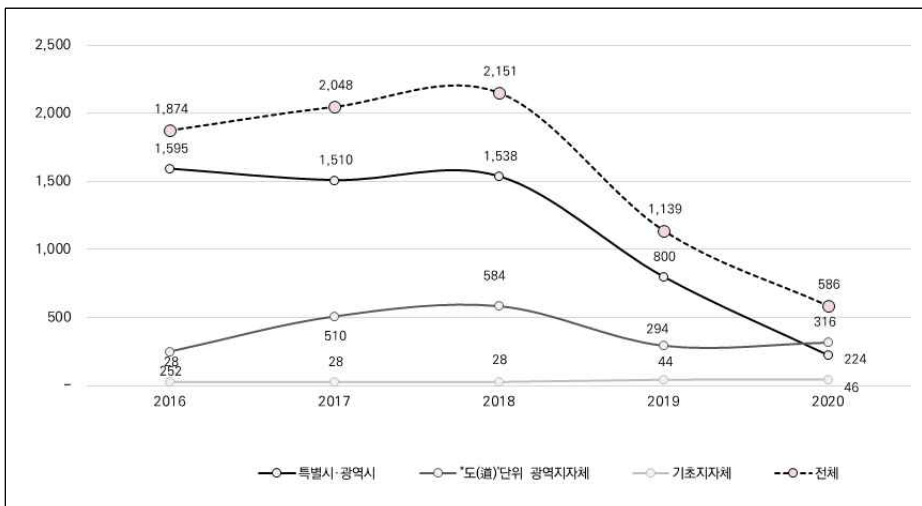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특별시·광역시	예산	4,061	24,589	25,236	9,996	10,157
	전년대비 증감율	-	505.5	2.6	-60.4	1.6
'도(道)'단위 광역지자체	예산	2,263	2,652	2,802	4,408	4,080
	전년대비 증감율	-	17.2	5.7	57.3	-7.4
기초지자체	예산	11,396	10,485	11,762	13,457	12,371
	전년대비 증감율	-	-8.0	12.2	14.4	-8.1
전체	예산	17,720	37,727	39,800	27,861	26,609
	전년대비 증감율	-	112.9	5.5	-30.0	-4.5

MICE 전문정보 제공 등 연구 및 학계 지원 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시·광역시는 2019년 약 15억 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0년 전년대비 72.0% 감소한 약 8억 원을 나타냈다. ‘도(道)’단위 광역지자체는 2017년 전년대비 102.3%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9년 -49.6%의 큰 폭의 예산감소를 나타냈다.

[그림 3-20]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전문정보 제공 등 연구 및 학계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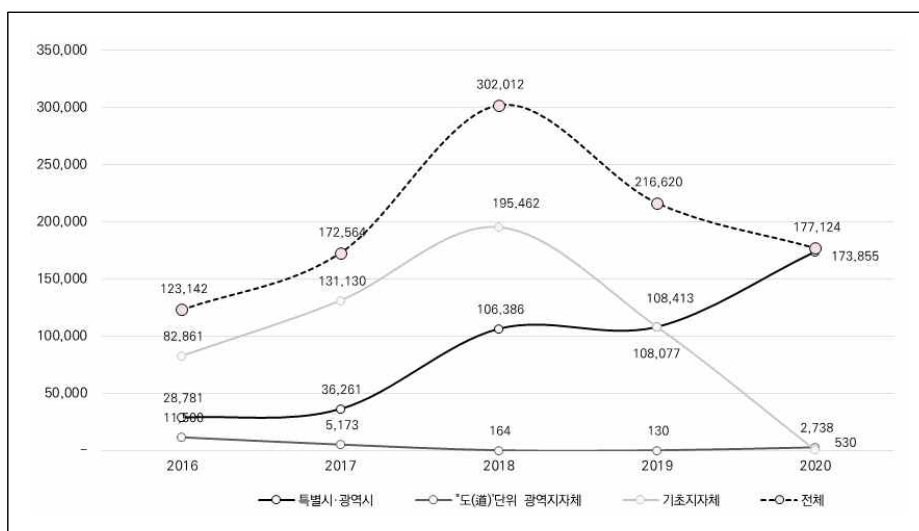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특별시·광역시	예산	1,595	1,510	1,538	800	224
	전년대비 증감율	-	-5.3	1.9	-48.0	-72.0
‘도(道)’단위 광역지자체	예산	252	510	584	294	316
	전년대비 증감율	-	102.3	14.6	-49.6	7.4
기초지자체	예산	28	28	28	44	46
	전년대비 증감율	-	1.5	0.0	56.1	3.9
전체	예산	1,874	2,048	2,151	1,139	586
	전년대비 증감율	-	9.3	5.0	-47.1	-48.5

지방정부의 유형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은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전년대비 성장세를 보이다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프라 구축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지자체 또한 2018년까지 성장세를 나타낸 후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99.5%의 감소세를 보여 약 5억 원의 예산이 집계되었다. 반면 특별시·광역시는 2016년 이래로 지속적인 예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60.9% 상승한 약 1,739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道)’단위 광역지자체는 201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 급격한 예산 증가를 보여 약 27억 원의 예산이 집계되었다.

[그림 3-21]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인프라 구축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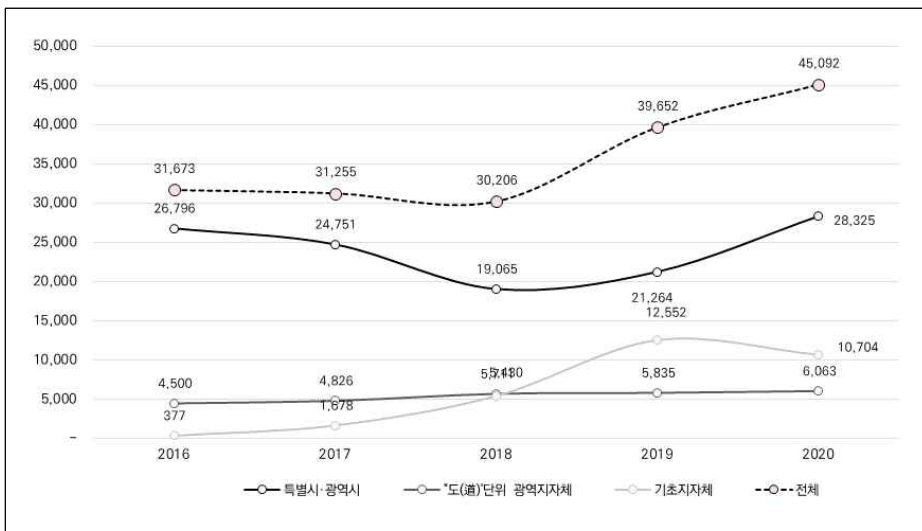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특별시·광역시	예산	28,781	36,261	106,386	108,077	173,855
	전년대비 증감율	-	26.0	193.4	1.6	60.9
‘도(道)’단위 광역지자체	예산	11,500	5,173	164	130	2,738
	전년대비 증감율	-	-55.0	-96.8	-20.6	2006.4
기초지자체	예산	82,861	131,130	195,462	108,413	530
	전년대비 증감율	-	58.3	49.1	-44.5	-99.5
전체	예산	123,142	172,564	302,012	216,620	177,124
	전년대비 증감율	-	40.1	75.0	-28.3	-18.2

MICE 전담조직 지원 예산의 경우,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전년대비 소폭 예산 감소를 보이다 2019년 31.3%의 증가세로 돌아선 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MICE 전담조직 지원 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한 전체 예산과 유사한 예산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33.2%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약 283억 원의 예산이 집계되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집행대상은 기초지자체로 2017년 345.1%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이후 2019년 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19년 약 125억 원의 예산을 나타냈다. ‘도(道)’단위 광역지자체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예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나타냈다.

[그림 3-22]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MICE 전담조직 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특별시·광역시	예산	26,796	24,751	19,065	21,264	28,325
	전년대비 증감율	-	-7.6	-23.0	11.5	33.2
‘도(道)’단위 광역지자체	예산	4,500	4,826	5,711	5,835	6,063
	전년대비 증감율	-	7.2	18.3	2.2	3.9
기초지자체	예산	377	1,678	5,430	12,552	10,704
	전년대비 증감율	-	345.1	223.6	131.2	-14.7
전체	예산	31,673	31,255	30,206	39,652	45,092
	전년대비 증감율	-	-1.3	-3.4	31.3	13.7

나.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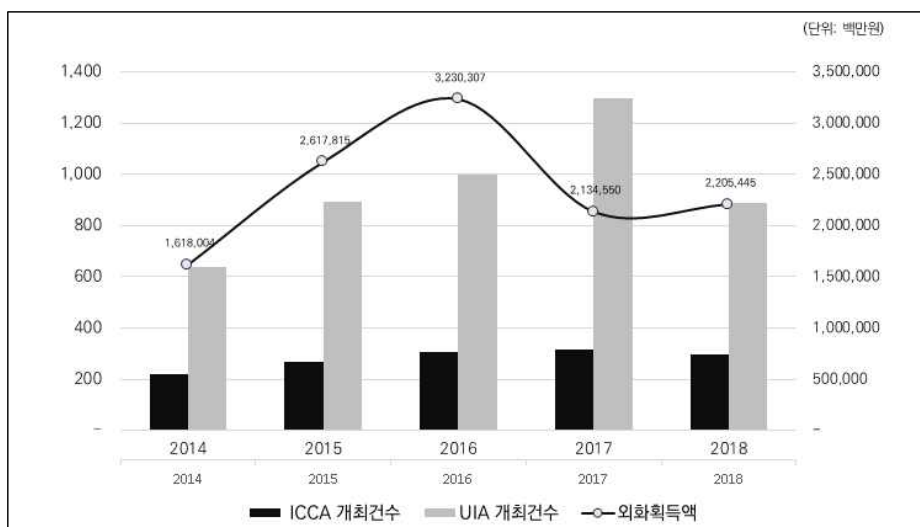
국제회의 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내 MICE산업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인터뷰를 통해 국제회의산업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MICE산업통계 조사연구, MICE 참가자 조사, MICE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국내에서 발간하는 MICE 관련 선행연구와 UIA 및 ICCA 보고서 등 MICE 관련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성과지표를 추출하여 재작성하였다. 특히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등 정부 성과로 활용되는 지표와 데이터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성과지표는 총 7개로 MICE 참가자 수, 외화획득액, 국제회의업 매출액, 국제회의업 인력, UIA 개최건수, ICCA 개최건수, MICE 행사의 전반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중앙부처

■ 개최건수 및 외화획득액

MICE 참가자 수 중 외국인 참가자 수와 외국인 1인 평균 지출액을 곱한 값으로 5개년 외화획득액 합계는 총 14조 6,99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5개년 평균 2조 9,3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3-23] 중앙정부 정책성과 I :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외화획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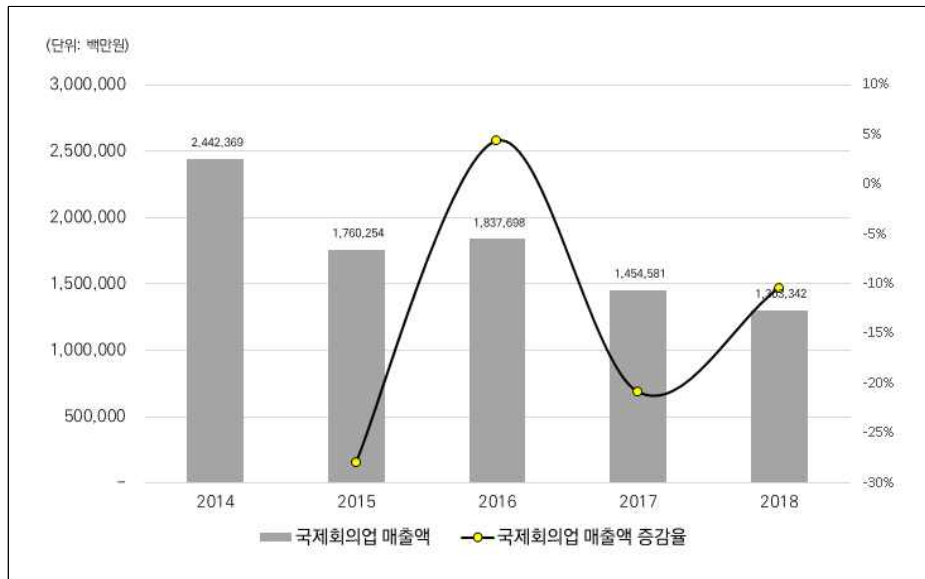


국제회의 개최건수와 관련된 UIA 및 ICCA 보고서에 따르면, 5개년 동안 개최된 국제회의의 개최건수는 UIA 기준 35,158건, ICCA 기준 4,711건으로 나타났으며 5개년 평균 UIA 기준 942건, ICCA 기준 30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회의의 개최건수는 UIA와 ICCA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개최건수가 UIA 및 ICCA 모두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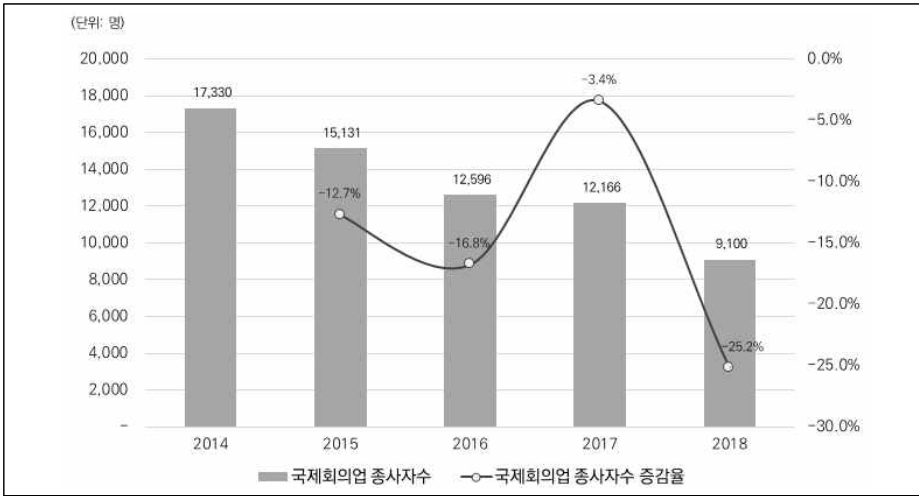
■ 관광사업체 관련 지표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국제회의업의 5개년 평균 매출액 및 인력은 매출액 총 1조 7,596억 원, 인력 7,03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6년 전년대비 소폭 매출액이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2014년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는 2014년 17,330명에서 2018년 9,100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26.2% 감소세를 보여 2014년 이래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감소폭의 등락은 있지만 매출액과 인력 관련한 지표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4] 중앙정부 정책성과II: 국제회의업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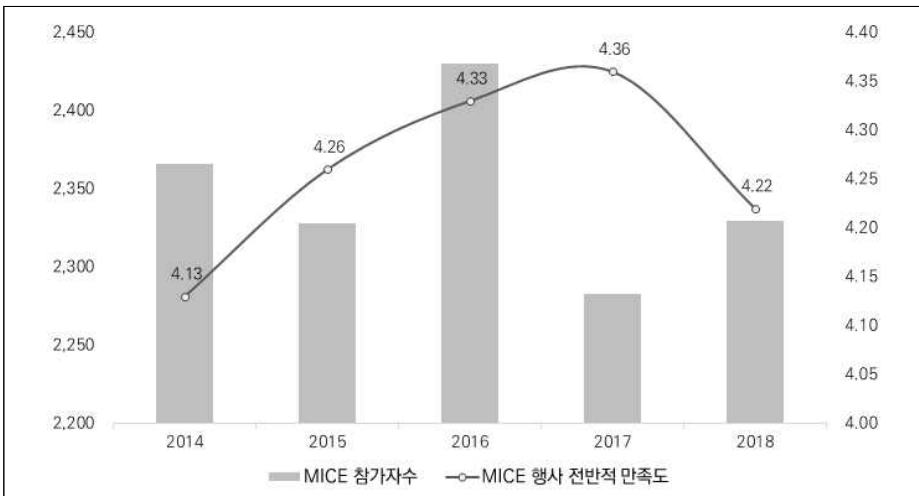


[그림 3-25] 중앙정부 정책성과Ⅲ: 국제회의업 종사자수



국제회의 참가자 수를 산출하는 MICE산업통계 조사연구에 따르면,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의 5개년 평균 참가자 수는 29,483,944명으로 내국인 28,856,756명, 외국인 1,079,401명으로 나타났다. MICE 참가자 조사에서 산출하는 MICE행사의 전반적 만족도는 5개년 평균 4.26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래로 꾸준히 4점 이상을 받아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를 보였으나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만족도는 2018년 이후로 다소 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6] 중앙정부 정책성과Ⅳ: MICE 참가자 수 및 행사의 전반적 만족도



〈표 3-7〉 국제회의산업 전체성과(5개년)

(단위: 명, 백만 원, 건, 점, %)

구분			2018		2017		2016		2015		2014	5개년 평균	5개년 평균 증가율
			지표	증감율	지표	증감율	지표	증감율	지표	증감율	지표		
외화획득액			2,205,445	3.2	2,134,550	-51.3	3,230,307	19.0	2,617,815	38.2	1,618,004	2,361,224	13.2
UIA 개최건수			890	-45.7	1,297	23.1	997	10.6	891	28.6	636	942	2.0
ICCA 개최건수			297	-6.4	316	3.8	304	-2.6	312	6.4	292	304	0.4
국제회의업 매출액			1,303,342	-11.6	1,454,581	-26.3	1,837,698	4.2	1,760,254	-38.8	2,442,369	1,759,649	-17.3
국제회의업 종사자수			9,100	-33.7	12,166	-3.5	12,596	95.1	619	-9.4	677	7,032	5.1
MICE 참가자 수	내국인	MICE	22,544,688	1.6	22,183,708	-5.6	23,431,217	-64.3	38,494,671	2.2	37,629,495	28,856,756	-28.3
		국제회의	2,955,947	19.6	2,377,477	-40.7	3,345,320	36.9	2,110,721	-16.7	2,462,869	2,650,467	12.8
	외국인	MICE	750,715	14.5	641,569	-35.4	868,779	-80.5	1,567,853	0.0	1,568,090	1,079,401	-16.2
		국제회의	552,520	24.9	415,160	-37.0	568,673	13.2	493,715	3.8	474,991	501,012	8.5
	전체	MICE	23,295,403	2.0	22,825,277	-6.5	24,299,996	-64.9	40,062,524	2.2	39,197,585	29,936,157	-28.6
		국제회의	3,508,467	20.4	2,792,637	-40.2	3,913,993	33.5	2,604,436	-12.8	2,937,860	3,151,479	13.2
MICE 행사 만족도			4.22	-3.3	4.36	0.7	4.33	1.6	4.26	3.1	4.13	4.26	-0.4

주1: MICE 참가자 수는 MICE산업통계의 참가자 수를 활용함. 국제회의 참가자 수는 MICE 산업통계 중 컨벤션 참가자수를 의미함

주2: 외화획득액의 경우 해당년도 MICE산업통계의 외국인 참가자 수와 MICE참가자조사 외국인 1인 평균 지출액을 활용하여 산출함

주3: 국제회의업 매출액의 경우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함

주4: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의 경우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함

주5: UIA 개최건수의 경우 UIA 자료를 활용함.

주6: ICCA 개최건수의 경우 ICCA 자료를 활용함.

주7: MICE 행사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MICE참가자조사를 활용함(Likert형 5점 척도)

〈표 3-8〉 광역자치단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성과

(단위: 명, 백만 원, 건, 점, %)

구분	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국제회의 관련 외화획득액	2016	1,158,633	414,566	105,631	106,378	90,234	113,387	1,696	167,658
	2017	825,913	244,433	49,553	174,552	55,522	40,204	1,284	234,965
	2018	1,010,880	206,495	34,631	185,398	47,392	40,656	2,130	187,208
UIA 개최건수	2016	526	152	35	53	15	15	1	116
	2017	688	212	43	66	27	10	2	140
	2018	439	131	37	70	14	15	3	76
	2019	609	160	42	56	42	22	3	96
ICCA 개최건수	2016	150	32	7	17	4	11	-	39
	2017	159	32	11	16	4	17	-	48
	2018	129	39	11	12	6	18	-	46
	2019	114	31	13	11	6	23	-	24
국제회의업 종사자수	2016	8,860	1,308	342	46	373	251	7	28
	2017	7,988	625	322	423	205	199	27	219
	2018	5,892	604	343	87	279	225	29	184
국제회의업 매출액	2016	1,357,094	66,800	57,556	8,659	29,006	36,342	1,080	1,440
	2017	1,018,775	73,707	47,527	56,508	8,185	20,240	3,483	19,665
	2018	743,397	131,813	71,438	14,327	99,138	32,442	1,148	20,489
MICE 참가자수	2016	9,028,115	2,255,807	1,204,168	481,290	1,038,805	644,033	72,483	674,818
	2017	7,148,937	2,012,081	965,878	794,732	798,069	735,258	53,375	681,798
	2018	7,375,703	1,865,636	802,173	1,271,567	869,020	765,403	127,655	697,161
전시참가자수	2016	4,594,968	3,511,270	1,305,581	118,137	965,689	83,347	-	70,113
	2017	3,549,257	3,049,020	1,143,262	498,778	1,491,028	126,906	-	115,264
	2018	4,198,510	3,150,146	1,409,586	538,697	1,118,909	39,651	-	56,841

〈표 계속〉 광역자치단체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성과

(단위: 명, 백만 원, 건, 점, %)

구분	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전시회 건수(UFI, 인증전시)	2016	359	116	62	19	62	28	-	12
	2017	335	120	60	33	97	18	-	16
	2018	315	124	57	38	75	28	-	8
MICE 행사 전반적 만족도	2016	-	-	-	-	-	-	-	-
	2017	-	-	-	-	-	-	-	-
	2018	-	-	-	-	-	-	-	-
인센티브 건수	2016	-	-	-	-	-	-	-	-
	2017	-	-	-	-	-	-	-	-
	2018	-	-	-	-	-	-	-	-
전시주최 사업자의 전시사업 매출액	2018	917,650	51,104	44,215	11,466	21,376	6,181	2,673	3,749
전시주최 사업자의 전시산업 종사자수	2018	3,281	265	201	101	179	52	49	36

주1: 외화획득액의 경우 해당년도 MICE산업통계의 외국인 참가자 수와 MICE참가자조사 외국인 1인 평균 지출액을 활용하여 산출함

주2: 국제회의업 매출액의 경우 MICE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함

주3: 전시주최사업자의 전시사업 매출액의 경우 2018 국내전시산업통계조사를 활용함

주4: 전시주최사업자의 전시사업 종사원 수의 경우 2018 국내전시산업통계조사를 활용함

주5: 국제회의업 종사원 수의 경우 MICE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함

주6: UIA 개최건수의 경우 UIA 자료를 활용함

주7: ICCA 개최건수의 경우 ICCA 자료를 활용함

주8: MICE 참가자 수는 MICE산업통계의 참가자 수를 활용함

주9: 전시 참가자 수는 MICE산업통계의 참가자 수를 활용함

주10: MICE 행사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MICE참가자조사를 활용함(Likert형 5점 척도)

주11: 인센티브 건수는 MICE산업통계를 활용함

주12: 전시회 건수는 MICE산업통계를 활용함

〈표 3-9〉 시도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성과

(단위: 명, 백만 원, 건, 점, %)

구분	연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국제회의 관련 외화획득액	2016	388,553	256,371	47,902	71,479	62,038	61,209	131,179	53,386
	2017	178,731	122,643	18,884	58,490	26,171	26,973	51,004	25,229
	2018	168,559	126,681	8,537	42,116	22,868	29,963	44,264	47,677
UIA 개최건수	2016	20	15	-	5	4	5	29	3
	2017	32	17	2	2	7	3	35	1
	2018	25	20	4	3	3	-	28	6
	2019	17	16	4	2	3	-	34	5
국제회의업 매출액	2016	211,250	34,541	1,200	2,000	6,409	240	17,766	6,277
	2017	118,470	26,339	5,150	2,625	16,663	-	12,635	17,889
	2018	102,972	37,322	40	700	10,597	-	15,520	20,801
국제회의업 종사자수	2016	888	138	20	6	67	3	145	110
	2017	526	285	74	11	335	6	148	685
	2018	836	220	38	4	88	3	132	128
MICE 참가자수	2016	2,404,123	1,529,100	562,788	1,159,761	564,559	932,503	967,620	780,022
	2017	2,512,570	2,358,906	450,455	1,129,581	402,770	840,818	1,052,510	887,538
	2018	2,516,454	2,054,302	552,169	797,507	488,986	735,556	1,182,312	1,193,804
전시참가자수	2016	4,633,359	-	-	-	20,600	-	593,517	850,856
	2017	4,277,547	-	-	-	19,780	-	198,196	527,979
	2018	4,774,546	-	-	-	299,632	-	413,071	625,730
ICCA 개최건수	2016	-	-	-	-	-	-	11	-
	2017	-	-	-	-	-	-	7	-
	2018	-	-	-	-	-	-	9	-
	2019	-	-	-	-	-	-	7	-

〈표 계속〉 시도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성과

(단위: 명, 백만 원, 건, 점, %)

구분 ⁴⁾	연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시주최 사업자의 전시사업 매출액	2018	120,407	2,025	26,193	2,270	4,326	16,794	13,757	16,810
전시주최 사업자의 전시산업 증사자수	2018	434	14	29	13	44	56	61	82
전시회 건수(UFI, 인증전시)	2016	124	-	-	-	3	-	28	43
	2017	120	-	-	-	9	-	39	42
	2018	154	-	-	-	7	-	41	53

주1: 외화획득액의 경우 해당년도 MICE산업통계의 외국인 참가자 수와 MICE참가자조사 외국인 1인 평균 지출액을 활용하여 산출함

주2: 국제회의업 매출액의 경우 MICE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함

주3: 전시주최사업자의 전시사업 매출액의 경우 2018 국내전시산업통계조사를 활용함

주4: 전시주최사업자의 전시사업 증사원 수의 경우 2018 국내전시산업통계조사를 활용함

주5: 국제회의업 증사원 수의 경우 MICE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함

주6: UIA 개최건수의 경우 UIA 자료를 활용함

주7: ICCA 개최건수의 경우 ICCA 자료를 활용함

주8: MICE 참가자 수는 MICE산업통계의 참가자 수를 활용함

주9: 전시 참가자 수는 MICE산업통계의 참가자 수를 활용함

주10: MICE 행사 행사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MICE참가자조사를 활용함(Likert형 5점 척도)

주11: 인센티브 건수는 MICE산업통계를 활용함

주12: 전시회 건수는 MICE산업통계를 활용함

4)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광역시 및 시도 국제회의 및 MICE산업의 성과 결과는 국제회의개최실적 및 관련 통계(MICE산업통계 등)를 활용하여 지역의 성과를 재산출한 결과로 실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집계 및 활용하는 현황 및 성과지표 결과 등과는 상이 할 수 있음

제2절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분석

1. 분석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 MICE 산업통계조사 등 기존 국내에서 발간된 MICE산업의 통계 자료 및 보고서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MICE 산업의 수요 규모를 산출하고 이 중 정책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의 지원 범위와 기준을 재검토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를 재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마이스 산업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Meeting 부문의 경우 국제기구 구분 기준 및 법령상 기준이 달리 설정되어 있다. MICE산업통계의 분야별 참가자 조사의 Meeting 부문은 참가자 기준이 참가자 10명 이상, 개최시간 4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다수의 회의가 포함됨에 따라 내국인 참가자 수가 MICE산업의 약 67.7%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국내 법령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정의하고 Meeting 부문의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를 재도출하였다.

-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2항에 따르면 국제회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를 의미함
 -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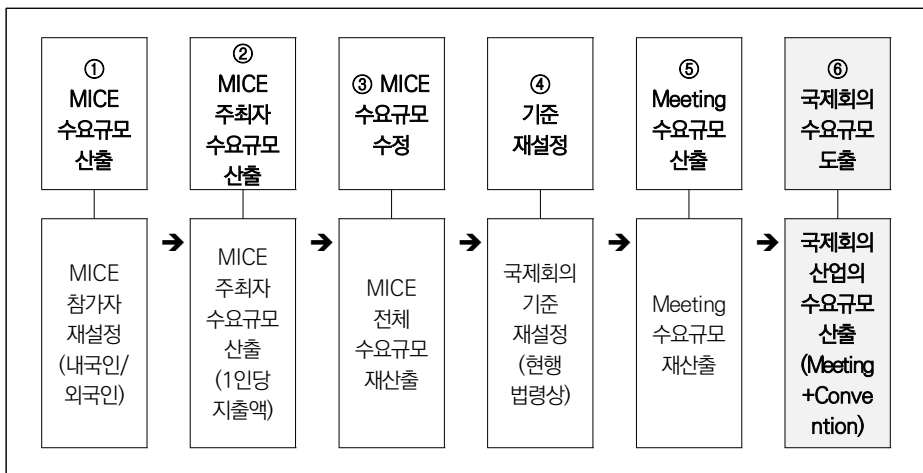
이를 토대로 기존 2장에 전술한 MICE산업 범위의 Meeting 분야 중 국제회의산업의 범위를 외국인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법적기준으로 재설정하여 국제회의의 건수를 도출하였다.

- (Meeting-국제회의 범위)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2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2일 이상으로 외국인 참가자가 150명 이상 참석하는 회의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제회의 관련 예산과 유형, 지원제도, 법률 등 정책 추진 실태 등을 해당 시기별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MICE산업통계의 참가자수를 토대로 2018MICE참가자조사의 참가자 지출액을 적용하여 유형별 MICE산업의 총 수요 규모를 산출하였고 이 중 국제회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규모를 산출하였다. 추가적으로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 산출시 참가자 수요 규모 외의 국제회의산업 주최자 수요 규모를 2018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MICE 주최자 지출액을 통해 추가로 산출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를 보다 확장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MICE산업의 총 수요 규모 산출을 위해 MICE산업통계 조사연구, MICE 참가자 조사, 국내전시산업통계 등을 통해 MICE산업의 내·외국인 참가자를 검토하고 ② MICE산업의 내·외국인 참가자 수요 규모 외의 MICE산업의 주최자 수요 규모를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전시산업 주최자조사 등을 통해 산출하여 ③ MICE산업의 총 수요 규모를 재산출하였다. 이 중 ④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규모 산출을 위해 현행법령(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2호)을 기준으로 Meeting 부분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⑤ 국제회의의 기준으로 재설정 된 Meeting 부분의 수요 규모를 재산출하여, ⑥ Meeting 부분과 Convention 부분을 합친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규모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림 3-27]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 산출 과정



2.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분석결과

가. MICE산업의 수요 규모 산출

기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하는 MICE참가자조사, MICE산업통계조사연구,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하여 다음 <표 3-10>과 같은 MICE 산업의 참가자 수 및 참가자 지출액을 산출하였다.

MICE 산업의 총 수요 규모는 약 18조 1,60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Meeting 부문 약 12조 2,885억 원(약 67.7%), Incentive 부문 약 1조 557억 원(약 5.8%), Convention 부문 약 3조 3,879억 원(약 18.7%), Exhibition 부문 약 1조 4,263억 원(약 7.9%)으로 나타났다.

<표 3-10> 국내 MICE산업의 수요 규모

구분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합계
내 국 인	참가자 수 (명)	19,588,741	-	2,955,947	16,275,985	38,820,673
	참가자 지출액 (원)	597,601	-	597,601	85,789	-
	(A) 총 지출액 (백만원)	11,706,251	-	1,766,477	1,396,300	14,869,029
외 국 인	참가자 수 (명)	198,195	537,893	552,520	349,334	1,637,942
	참가자 지출액 (원)	2,937,793	1,962,716	2,937,793	85,789	-
	(B) 총 지출액 (백만원)	582,256	1,055,731	1,623,189	29,969	3,291,145
합계(A+B) (백만원)		12,288,507 (67.7%)	1,055,731 (5.8%)	3,389,666 (18.7%)	1,426,269 (7.9%)	18,160,174 (100.0%)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MICE산업통계조사연구, 2018MICE참가자조사, 2018MICE산업의 경제적파급효과, 2017국내전시산업통계. 연구자 재구성

주: 2018년 Exhibition 분야의 참가자 지출액 통계의 부재로 2017년 국내전시산업통계의 참가자 지출액을 사용함

- 미팅(Meeting) 분야의 총 수요 규모는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2조 2,885억 원(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1조 7,603억 원,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5,823억 원)으로 나타났다.

- Meeting(12조 2,885억 원): (내국인) 19,588,741명*597,601원=11조 7,063억 원
(외국인) 198,195명*2,937,793원=5,823억 원

- 인센티브(Incentive) 분야의 총 수요 규모는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557억 원으로 나타났다.
 - Incentive(1조 557억 원): (외국인) 537,893명*1,962,716원=1조 557억 원
- 컨벤션(Convention) 분야의 총 수요 규모는 참가자 총 지출액 약 3조 3,897억 원(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조 7,665억 원,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조 6,232억 원)으로 나타났다.
 - Convention(3조 3,897억 원): (내국인) 2,955,947명*597,601원=1조 7,665억 원
(외국인) 2,937,793명*893,481원=1조 6,232억 원
- 전시(Exhibition) 분야의 총 수요 규모는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조 4,263억 원(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조 3,963억 원,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 Exhibition(1조 4,263억 원): (내국인) 16,275,985명*85,789원=1조 3,963억 원
(외국인) 349,334명*85,789원=300억 원

나. MICE산업의 수요 규모 확장(주최자 수요 규모 추가)

기존 MICE산업의 수요 규모는 내·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액만을 통해 산출하였지만, MICE산업의 구조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주최기관’과 행사를 준비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를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기존 MICE 산업의 총 수요 규모에서 MICE 주최자의 수요 규모를 추가하여 재도출한 MICE산업의 총 수요 규모는 약 21조 9,43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Meeting 부문 약 14조 4,242억 원(약 65.7%), Incentive 부문 약 1조 3,475억 원(약 6.1%), Convention 부문 약 4조 3,488억 원(약 19.8%), Exhibition 부문 약 1조 8,234억 원(약 8.3%)으로 나타났다.

〈표 3-11〉 국내 MICE산업의 수요 규모(주최자 수요 규모 포함)

구분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합계
내국인	참가자 수 (명)	19,588,741	-	2,955,947	16,275,985	38,820,673
	참가자 지출액 (원)	597,601	-	597,601	85,789	-
	(A) 총 지출액 (백만원)	11,706,251	-	1,766,477	1,396,300	14,869,029
외국인	참가자 수 (명)	198,195	537,893	552,520	349,334	1,637,942
	참가자 지출액 (원)	2,937,793	1,962,716	2,937,793	85,789	-
	(B) 총 지출액 (백만원)	582,256	1,055,731	1,623,189	29,969	3,291,145
주최자	전체 참가자 수 (명)	19,786,936	537,893	3,508,467	16,625,319	40,458,615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원)	107,936	542,520	273,367	-	-
	전시회 개최건수 (건)	-	-	-	615	-
	전시 1회 개최 평균 지출액 (건)	-	-	-	645,741,684	-
	(C) 총 지출액 (백만원)	2,135,723	291,818	959,099	397,131	3,783,771
합계(A+B+C) (백만원)		14,424,230 (65.7%)	1,347,549 (6.1%)	4,348,765 (19.8%)	1,823,401 (8.3%)	21,943,945 (100.0%)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MICE산업통계조사연구, 2018MICE참가자조사, 2018MICE산업의 경제적파급효과
2018국내전시산업통계, 2017국내전시산업통계. 연구자 재구성

주: 2018년 Exhibition 분야의 참가자 지출액 통계의 부재로 2017년 국내전시산업통계의 참가자 지출액을 사용함

- 미팅(Meeting) 분야의 총 수요 규모는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2조 2,885억 원(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1조 7,603억 원,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5,823억 원)과 주최자 총 지출액 약 2조 1,358억 원으로 총 약 14조 4,242억 원으로 나타났다.

- Meeting(14조 4,242억 원): (내국인) 19,588,741명*597,601원=11조 7,063억 원
(외국인) 198,195명*2,937,793원=5,823억 원
(주최자) 19,786,936명*107,936원=2조 1,358억 원

- 인센티브(Incentive) 분야의 총 수요 규모는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557억 원과 주최자 총 지출액 약 2,918억 원으로 총 약 1조 3,475억 원으로 나타났다.
 - Incentive(1조 3,475억 원): (외국인) 537,893명*1,962,716원=1조 557억 원
(주최자) 19,786,936명*107,936원=2,918억 원
- 컨벤션(Convention) 분야의 총 수요 규모는 참가자 총 지출액 약 3조 3,897억 원(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조 7,665억 원,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조 6,232억 원)과 주최자 총 지출액 약 9,591억 원으로 총 약 4조 3,488억 원으로 나타났다.
 - Convention(4조 3,488억 원): (내국인) 2,955,947명*597,601원=1조 7,665억 원
(외국인) 2,937,793명*893,481원=1조 6,232억 원
(주최자) 19,786,936명*107,936원=9,591억 원
- 전시(Exhibition) 분야의 총 수요 규모는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조 4,263억 원(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조, 3,963억 원,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3,000억 원)과 주최자 총 지출액 약 3,971억 원으로 총 약 1조 8,234억 원으로 나타났다.
 - Exhibition(1조 8,234억 원): (내국인) 16,275,985명*85,789원=1조 3,963억 원
(외국인) 349,334명*85,789원=3,000억 원
(주최자) 615건*645,741,684원=3,971억 원

다. 국제회의산업의 기준 재설정

국제회의에 대한 기준은 다음 <표 3-12>와 같이 적용기관에 따라 참가자 수, 기간/빈도, 참가국 수 등의 기준으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국제회의산업은 한국관광공사의 기준에 따라 MICE산업 중 통상적으로 Convention에 해당하는 부문만을 국제회의산업으로 나타내지만, Meeting 부문에 있어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및 해외 국가 및 기관의 국제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사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표 3-12〉 국제회의의 구분 기준

구분	참가자 수	기간/빈도	참가국 수	기타	적용기관
국제회의	300명 이상	3일 이상	5개국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1호
	-	2일 이상	-	외국인 150명 이상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2호
	-	-	-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외국인 50명 이상 (온라인참가 포함)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3호 고시 기준
	50명 이상	-	-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	UIA A-type
	300명 이상	3일 이상	5개국 이상	외국인 40% 이상	UIA B-type
	250명 이상	2일 이상	5개국 이상	국가조직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 외국인 40% 이상	UIA C-type
	-	-	-	외국인 50명 이상 개최비 2,500만엔 이상	일본 「국제회의 유치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에 의한 국제관광진흥에 관한 법률」
	50명 이상	4시간 이상	3개국 이상	외국인 40% 이상	스페인관광청
	-	-	4개국 이상	외국인 45% 이상	호주미팅산업협회 (MIAA)
국제 협회 회의	250명 이상	4시간 이상	-	외국인 10명 이상	한국관광공사
	50명 이상	정기적 개최	3개국 순환	-	ICCA
	10명 이상	-	-	UIA소속협회	UIA
기업 회의	기업 대표자 또는 직원 모임. 숙박비 포함 여행경비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				컨벤션산업협의회 (CIC)
정부 회의	정부기관 공무원 모임				컨벤션산업협의회 (CIC)

주: 미팅산업협회: Meetings Industry Association of Australia, MIAA

스페인관광청: Instituto de Turismo de Espana

컨벤션산업협의회: Convention Industry Council, CIC → 현재 이벤트산업협회(Events Industry Council)로 변경

자료: UNWTO(2006), Measur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Meetings Industry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의산업의 범위를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과 해외 국가 및 기관의 국제회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하고 Meeting 부문에 재설정된 국제회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사를 재구분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를 법적기준과 완화된 기준 3개(안)로 재도출하였다.

① 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1항에 따르면 국제회의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회의 참가자 300명 이상의 기준은 모두 기존 Convention 기준에 따라 Convention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100명 이상의 기준만 적용하고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 기준은 제외하여 적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1항에 따라 Meeting 행사 중 국제회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표 3-13>와 같이 분류하였다. ①안을 기준으로 기존 Meeting 행사를 재분류하여 도출한 국제회의의 행사는 개최건수 285건, 전체 참가자 수 31,011명, 내국인 참가자 수 17,479명 외국인 참가자 수 1,531명으로 나타났다.

<표 3-13> ①안에 따른 Meeting 부문 재분류(개최건수,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구분	개최건수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건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정부	43	15.0%	4,484	14.5%	2,691	15.4%	1,793	13.2%
공공	79	27.7%	7,370	23.8%	3,048	17.4%	4,321	31.9%
협회	95	33.4%	11,834	38.2%	7,942	45.4%	3,892	28.8%
학회	68	23.9%	7,323	23.6%	3,798	21.7%	3,525	26.1%
합계	285	100.0%	31,011	100.0%	17,479	100.0%	13,531	100.0%

주: 관련근거: 시행령 제2조 1호(정부/공공/협회/학회 주최,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1항에 따라 Meeting 행사를 재분류하여 산출한 결과 전체 참가자 수는 31,011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내국인 참가자 수 17,479명 증가, 외국인 참가자 수 2,836명 증가하였다. 국제회의 수요 규모는 약 4조 4,023억 원으로 기존 국제회의 수요 규모 보다 약 535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104억 원 증가,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39,751억 원 증가, 주최자 총 지출액 약 33억 원 증가하였다.

〈표 3-14〉 ①안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구분	기존			변경(안)		
	Meeting	Convention	합계	Meeting	Convention	합계
내국인 참가자 수 (명)	-	2,955,947	2,955,947	17,479	(좌동)	2,973,426 (17,479 ↑)
내국인 참가자지출액 (원) (A)	-	597,601		597,601		
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백만원)	-	1,766,477	1,766,477	10,445		1,776,922 (10,445 ↑)
외국인 참가자 수 (명)	-	552,520	552,520	13,531		566,051 (13,531 ↑)
외국인 참가자지출액 (원) (B)	-	2,937,793		2,937,793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백만원)	-	1,623,189	1,623,189	39,751		1,662,941 (39,751 ↑)
전체 참가자 수 (명)	-	3,508,467	3,508,467	31,011		3,539,477 (31,011 ↑)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원) (C)	-	273,367		107,936		
주최자 총 지출액 (백만원)	-	959,099	959,099	3,347		962,446 (3,347 ↑)
합계 (A+B+C) (백만원)	-	4,348,765	4,348,765	53,544	4,348,765	4,402,309 (53,544 ↑)

② 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2항에 따르면 국제회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를 의미함
 -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2항에 따라 Meeting 행사 중 국제회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표 3-15>과 같이 분류하였다. ②안을 기준으로 기존 Meeting 행사를 재분류하여 도출한 국제회의 행사는 개최건수 621건, 전체 참가자 수 73,380명, 내국인 참가자 수 42,508명 외국인 참가자 수 30,872명으로 나타났다.

<표 3-15> ②안에 따른 Meeting 부문 재분류(개최건수,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구분	개최건수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건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정부	41	6.6%	5,078	6.9%	3,232	7.6%	1,846	6.0%
공공	59	9.5%	6,379	8.7%	2,655	6.2%	3,724	12.1%
협회	51	8.1%	7,116	9.7%	3,899	9.2%	3,217	10.4%
학회	98	15.7%	11,534	15.7%	6,169	14.5%	5,365	17.4%
기업	265	42.7%	30,895	42.1%	18,734	44.1%	12,161	39.4%
기타	107	17.2%	12,377	16.9%	7,819	18.4%	4,559	14.8%
합계	621	100.0%	73,380	100.0%	42,508	100.0%	30,872	100.0%

주: 관련근거: 시행령 제2조 2호(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2항에 따라 Meeting 행사를 재분류하여 산출한 결과 전체 참가자 수는 73,380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내국인 참가자 수 42,508명 증가, 외국인 참가자 수 30,872명 증가하였다. 국제회의 수요 규모는 약 4조 4,728억 원으로 기존 국제회의 수요 규모 보다 약 1,2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254억 원 증가,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907억 원 증가, 주최자 총 지출액 약 79억 원 증가하였다.

〈표 3-16〉 ②안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구분	기존			변경(안)		
	Meeting	Convention	합계	Meeting	Convention	합계
내국인 참가자 수 (명)	-	2,955,947	2,955,947	42,508	(작동)	2,998,455 (42,508 ↑)
내국인 참가자지출액 (원)	-	597,601		597,601		
(A) 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백만원)	-	1,766,477	1,766,477	25,403		1,791,880 (25,403 ↑)
외국인 참가자 수 (명)	-	552,520	552,520	30,872		583,392 (30,872 ↑)
외국인 참가자지출액 (원)	-	2,937,793		2,937,793		
(B)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백만원)	-	1,623,189	1,623,189	90,696		1,713,885 (90,696 ↑)
전체 참가자 수 (명)	-	3,508,467	3,508,467	73,380		3,581,847 (73,380 ↑)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원)	-	273,367		107,936		
(C) 주최자 총 지출액 (백만원)	-	959,099	959,099	7,920		1,710,559 (7,920 ↑)
합계 (A+B+C) (백만원)	-	4,348,765	4,348,765	124,019	4,348,765	4,472,784 (124,019 ↑)

③ 안: 재난 및 감염병 발생시 등에 대응을 위한 기준 완화

- UIA A 타입의 기준 및 일본 등 타국가의 국제회의산업 기준을 혼용하여 정부, 공공 또는 학·협회 등이 주최하는 국제회의 행사 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인 국제회의로 기준 등을 적용하여 재난 및 감염병 발생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형
 - 정부, 공공, 협회, 학회가 개최하는 회의로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

국제기구 및 타국가 기준 등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여 Meeting에 적용한 결과 <표 3-17>와 같이 분류하였다. ③안을 기준으로 기존 Meeting 행사를 재분류하여 도출한 국제회의 행사의 개최건수 2,373건, 전체 참가자 수 270,383명, 내국인 참가자 수 209,437명 외국인 참가자 수 60,946명으로 나타났다.

<표 3-17> ③안에 따른 Meeting 부문 재분류(개최건수,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구분	개최건수		전체 참가자 수		내국인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건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정부	404	17.0%	59,250	21.9%	48,818	23.3%	10,432	17.1%
공공	846	35.7%	79,058	29.2%	59,750	28.5%	19,308	31.7%
협회	369	15.6%	46,822	17.3%	33,830	16.2%	12,992	21.3%
학회	754	31.8%	85,252	31.5%	67,039	32.0%	18,213	29.9%
합계	2,373	100.0%	270,383	100.0%	209,437	100.0%	60,946	100.0%

주: 관련근거: 시행령 제2조 3호(정부/공공/협회/학회 주최, 외국인 50명 이상)

국제기구 및 타국가 등 국제회의기준을 완화하여 Meeting 행사를 재분류하여 산출한 결과 국제회의산업 전체 참가자 수 270,383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내국인 참가자 수 209,437명 증가, 외국인 참가자 수 60,940명 증가하였다. 국제회의의 수요 규모는 약 4조 5,159억 원으로 기존 국제회의의 수요 규모 보다 약 1,672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649억 원,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약 874억 원, 주최자 총 지출액 약 150억 원이 증가하였다.

〈표 3-18〉 ③안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구분	기존			변경(안)		
	Meeting	Convention	합계	Meeting	Convention	합계
내국인 참가자 수 (명)	-	2,955,947	2,955,947	209,437	(좌동)	3,064,515 (209,437 ↑)
내국인 참가자 지출액 (원)	-	597,601		597,601		
(A) 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백만원)	-	1,766,477	1,766,477	125,160		1,891,637 (125,160 ↑)
외국인 참가자 수 (명)	-	552,520	552,520	60,946		582,260 (60,946 ↑)
외국인 참가자 지출액 (원)	-	2,937,793		2,937,793		
(B)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백만원)	-	1,623,189	1,623,189	179,047		1,802,236 (179,047 ↑)
전체 참가자 수 (명)	-	3,508,467	3,508,467	270,383		3,646,775 (270,383 ↑)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원)	-	273,367		107,936		
(C) 주최자 총 지출액 (백만원)	-	959,099	959,099	29,184		974,028 (29,184 ↑)
합계 (A+B+C) (백만원)	-	4,348,765	4,348,765	333,391	4,348,765	4,682,115 (333,391 ↑)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가지 국제회의산업 기준안을 설정하였고, 국제기구 및 국가별 기준 분석, 인식 조사결과 및 국제회의산업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회의를 토대로 ②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이 참가하는 2일 이상의 국제회의를 기준으로 참가자 수요규모 재산출한 결과 4조 4,72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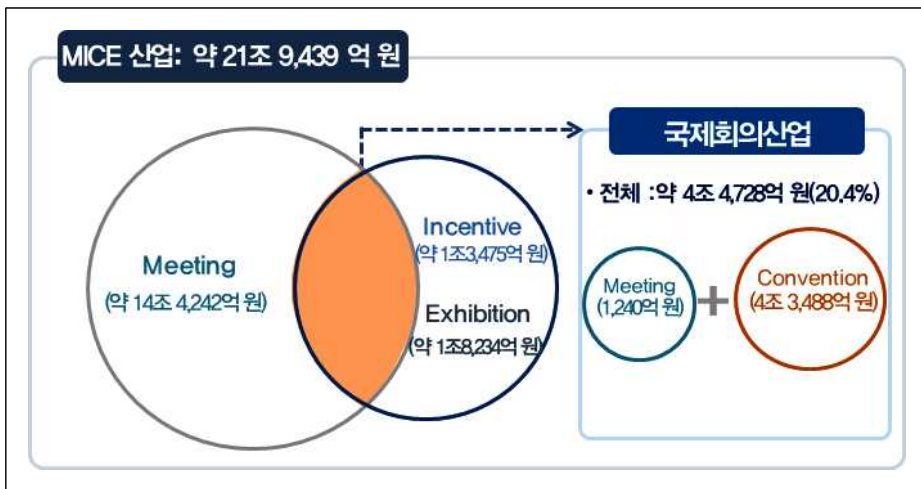
〈표 3-19〉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수요 규모 확대(안)

구분	①안: 시행령 제2조 1호 기준 (정부, 공공, 협회, 학회 주최, 외국인 100명, 3일 이상)	②안: 시행령 제2조 2호 기준 (외국인 150명, 2일 이상)	③안: 재난 및 감염병 발생시 등에 대응을 위한 기준 완화 (정부, 공공, 협회, 학회 주최, 외국인 50명 이상)
내국인 참가자 수 (명)	2,973,426 (17,479 ↑)	2,998,455 (42,508 ↑)	3,165,384 (209,437 ↑)
내국인 참가자 지출액 (원)	597,601	597,601	597,601
(A) 내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백만원)	1,776,922 (10,445 ↑)	1,791,880 (25,403 ↑)	1,891,637 (125,160 ↑)
외국인 참가자 수 (명)	566,051 (13,531 ↑)	583,392 (30,872 ↑)	613,466 (60,946 ↑)
외국인 참가자 지출액 (원)	2,937,793	2,937,793	2,937,793
(B)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액 (백만원)	1,662,941 (39,751 ↑)	1,713,885 (90,696 ↑)	1,802,236 (179,047 ↑)
전체 참가자 수 (명)	3,539,477 (31,010 ↑)	3,581,847 (73,380 ↑)	3,778,850 (270,383 ↑)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원)	107,936	107,936	107,936
(C) 주최자 총 지출액 (백만원)	962,446 (3,347 ↑)	967,019 (7,920 ↑)	974,028 (29,184 ↑)
합계 (A+B+C) (백만원)	4,402,309 (53,544 ↑)	4,472,784 (124,019 ↑)	4,682,115 (333,391 ↑)

라.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 도출

기존 국내 MICE산업의 총 수요 규모 약 18조 1,602억 원에서 MICE 주최자 총 수요 규모 약 3조 7,838억 원을 추가하여 MICE산업의 총 수요 규모 약 21조 9,439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MICE산업의 총 수요 규모 중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범위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이 참가하는 2일 이상의 국제회의를 기준으로 재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규모는 약 4조 4,72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MICE산업 수요 규모 약 21조 9,439억 원의 20.4%에 해당하는 부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규모 약 4조 4,728억 원 중 Meeting 부문이 약 1,240억 원으로 국제회의산업의 약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nvention 부문이 약 4조 3,488억 원으로 9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MICE산업 중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 재분석(안)



주: 본 연구에서 기존 MICE 관련 통계를 토대로 산업 전체 수요규모를 재분석하고 이에 따라 제시한 국제회의의 3가지 유형 중 2안을 토대로 국제회의산업 규모를 재도출한 결과임

〈표 3-20〉 국제회의산업 수요 규모 도출(안)

(단위: 억 원)

구분		참가자 규모	주최자 규모	총 규모	기준	비고
MICE산업 (A+B+C+D)		181,602	14,263	219,439	-	-
국제회의산업 (A'+C)		35,058	9,670	44,728	-	-
Meeting	전체 (A)	122,885	21,357	144,242	시행령 제2조2호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전체 참가자 수 - 73,380 내)42—508 / 외)30,872 내국인 지출액 - 597,601 외국인 지출액 - 2,937,793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 107,936
	국제회의 (A')	1,161	79	1,240		
내국인	전체	117,063	21,143	138,206		
	국제회의	104	46	150		
외국인	전체	5,823	214	6,037		
	국제회의	907	33	940		
Incentive (B)		10,557	2,918	13,475	한국관광공사 Incentive 산업 구분 기준(외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참가자 수 - 537,893 외국인 지출액 - 1,962,716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 542,520
	외국인	10,557	2,918	13,475		
Convention (C)		33,897	9,591	43,488	한국관광공사 Conven- tion 산업 구분 기준 (250 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전체 참가자 수 - 3,508,467 내)2,937,793 / 외)552,520 내국인 지출액 - 597,601 외국인 지출액 - 2,937,793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 273,367
	내국인	17,665	8,081	25,746		
	외국인	16,232	1,510	17,742		
Exhibition (D)		14,263	3,971	18,234	2018 전시산업통계 자료의 부재로 2017 전시산업 통계 자료를 활용함	전체 참가자 수 - 7,954,899 내)7,778,089 / 외)176,810 내·외국인 지출액 - 85,789 전시회 1회 평균 주최자 지출액- 645,741,684 2018 개최 전시 건수 - 590 (향후 통계자료의 최신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국인	13,963	3,971	17,934		
	외국인	300				

주1: Meeting의 경우 일정 규모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참가한 회의를 2018MICE산업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함

주2: Incentive의 경우 외국인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함.

주3: Convention의 경우 2018MICE산업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함.

주4: Exhibition의 경우 2017전시산업통계 및 전시주최자조사 자료로 추후 데이터를 보완할 예정

주5: 2018MICE산업통계(참가자 수), 2018MICE참가자조사(지출액), 2018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2017전시산업통계(참가자 수, 지출액), 2017전시산업주최자조사
(주최자 지출액) 등을 활용하여 연구자 재작성

주6: 참가자 총 지출액 = (내국인 참가자 수) × (내국인 지출액) + (외국인 참가자 수) × (외국인 지출액)

주최자 총 지출액 = (전체 참가자 수) × (참가자 1인당 주최자 지출액)

총 규모 = (참가자 총 지출액) + (주최자 총 지출액)

주7: Exhibition 주최자 총 지출액 = (전시회 1회 평균 주최자 지출액) × (2018년 개최 전시 건수)

제3절 국제회의산업 재정투입과 성과 영향관계 분석

1. 분석방법 및 모형

가. 데이터 개요 및 방법

본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국제회의산업 및 MICE 분야의 정책 또는 사업·현안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MICE 산업의 유형별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MICE 산업 지원 유형별 예산과 성과 지표간의 영향관계를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란 시계열과 횡단면 데이터가 결합된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여기서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는 어떤 특정 개체(예: 국가, 가구,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여러 관측시점에서 현상이나 특성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의미하며,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는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의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모아 놓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패널데이터는 다수의 개체와 다수의 연도로 구성되어 있다. 앞선 국제회의산업 정책예산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수집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중앙·지방정부의 예산과 MICE산업의 성과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의 장점은 첫째, 각 분석 개체 간의 차이점(Inter-individual differences)과 개체 내에서의 동태성(Intra-individual dynamics)을 통합하여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회귀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더 정확한 모수 추정을 통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횡단면 분석($T=1$), 혹은 시계열 분석($N=1$)에 비하여 보다 많은 자유도를 가지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줄일 수 있어 모수 추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희연·노승철, 2012). 둘째,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각 개체들의 특성이 회귀분석에서 제외된다면 추정에 있어서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모형에서는 시간과 각 개체별 이질성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추정을 할 수 있다. 셋째,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또는 시계열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한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이런 시간적 동태성과 개체 고유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관찰되지 않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 할 수 있다. 즉 개별특성 효과(Individual effect)와 시간특성효과(Time effect)를 고려할 수 있어 왜곡된 결과를 얻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장점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분석 목적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에서 추진한 국제회의 및 MICE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관련 세출예산 및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 및 MICE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제회의 성과 데이터의 경우 MICE산업통계, MICE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국내전시산업통계조사, UIA 보고서, ICCA 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앙정부 부처 중 MICE산업을 주로 진행하는 부처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개의 부처가 있으나 산자부의 경우 수출지원 예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만 고려하고 산업자원부 예산은 제외하였다. 그 외에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시가 본 패널데이터의 개체로 사용되었고, 개체별 3년도 MICE 예산이 분석에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총 51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연도에 모든 관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균형된 패널(Balanced Panel)데이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연구모형으로는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유형별 예산이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로는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의 성과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선행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우스만 검증 (Hausman Test)을 통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중 적합한 계량분석모형이

선택되었다. 또한, 연구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패널 모형 (OLS 및 Feasibil Generalized Least Square)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국제회의산업 성과 중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로 활용되고 있는 외화획득액, UIA 개최건수, ICCA 개최건수, 국제회의업매출액, 참가자수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유치개최지원,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MICE 전문정보 제공, MICE 인프라, 전담 조직지원을 항목별 예산으로 분류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나. 분석 모형

패널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최소자승법 (OLS: Ordinary Least Square), 고정효과모형(FEM: 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REM:Random Effect Model)의 세 가지 모형이 활용되어지나, 최소자승법의 경우는 시간 및 개체와 관련된 분석에 있어서 누락변수로 인한 추정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패널데이터에서는 주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이 고려된다. 또한, 자기상관의 문제와 이분산의 문제로 인한 추정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일반최소자승법 (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이 이용되기도 한다. 즉, 패널데이터 분석은 정교한 추정을 위해 적합한 계량경제모형을 결정하여 (FEM vs. REM) 추정하지만, 추정 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계량경제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기도 한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추정에 앞서, 개별 개체특성효과 혹은 시간특성효과가 고정된 효과인지 확률적인 효과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개체효과(시간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 분석에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가를 검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하우스만 (Hausman-test) 검정이 사용된다. 하우스만 검정방법은 개체특성효과 혹은 시간특성효과가 존재하는 패널데이터에서 어느 모형의 추정량이 더 효율적인가를 찾는 검정방법이다. 설명변수와 개별 개체 특성효과 혹은 시간특성효과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 혹은 서로 독립적인가를 판별하는 검정방법으로 <표 3-21>과 같이 구분 가능하다. 즉, 하우스만 검정은 설명변수

와 개체효과(시간효과)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 또는 서로 독립적인가를 판별하는 검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배은송, 2017).

Hausman 검정의 귀무가설은 $H_0 : \text{Cov}(X_{it}, U_i) = 0$ 으로 표현가능하며, 설명변수와 오차항의 확률 분포 간에 서로 독립적이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확률효과 모형(REM)을 채택한다. 즉, 귀무가설이 고정효과 추정량과 확률효과 추정량에서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확률효과 추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Hausman검정의 귀무가설은 확률효과모형이 고정효과모형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간주한다. 그 이유는 확률효과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보다 자유도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립가설은 $H_a : \text{Cov}(X_{it}, U_i) \neq 0$ 으로 표현 가능하다.

만약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추정된 계수는 일치 추정량이며 효율성을 갖게 된다. 귀무가설의 기각여부는 일반적으로 하우스만 검정 결과 95%유의도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우스만 검정의 χ^2 과 자유도를 고려하여 임계치를 정하고 귀무가설의 기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21〉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량 특성

추정량	확률효과 $E[e_i X_i] = 0$	고정효과 $E[e_i X_i] \neq 0$
FGLS (확률효과)	일치성, 효율성 (consistent and efficient)	비일치성 (inconsistent)
LSDV (고정효과)	일치성(consistent) 비효율성(inefficient)	일치성(consistent) 효율성(possibly efficient)

출처: 이희연·노승철(2012),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본 연구는 외화획득액, 국제회의 매출액, UIA 개최건수, ICCA 개최건수, MICE 참가자수 5가지를 성과 변수이자 종속 변수로 활용하고, 유치개최지원,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인력 및 기술 등 업계지원, 전문정보 제공, 인프라 조성, 및 전담조직 지원의 6가지 예산을 영향 변수이자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text{외화획득액}_{it} = \beta_0 + \beta_1 \text{유치개최지원}_{it} + \beta_2 \text{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_{it} + \beta_3 \text{MICE 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_{it} + \beta_4 \text{MICE 전문정보 제공}_{it} + \beta_5 \text{MICE 인프라 조성}_{it} + \beta_6 \text{전담조직지원}_{it} + e_{it}$$

(2) 국제회의업 매출액 $_{it} = \beta_0 + \beta_1$ 유치개최지원 $_{it} + \beta_2$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_{it} + \beta_3$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_{it} + \beta_4$ MICE 전문정보 제공 $_{it} + \beta_5$ MICE 인프라 $_{it} + \beta_6$ 전담조직지원 $_{it} + e_{it}$

(3) UIA 개최건수 $_{it} = \beta_0 + \beta_1$ 유치개최지원 $_{it} + \beta_2$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_{it} + \beta_3$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_{it} + \beta_4$ MICE 전문정보 제공 $_{it} + \beta_5$ MICE 인프라 $_{it} + \beta_6$ 전담조직지원 $_{it} + e_{it}$

(4) ICCA·개최건수 $_{it} = \beta_0 + \beta_1$ 유치개최지원 $_{it} + \beta_2$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_{it} + \beta_3$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_{it} + \beta_4$ MICE 전문정보 제공 $_{it} + \beta_5$ MICE 인프라 $_{it} + \beta_6$ 전담조직지원 $_{it} + e_{it}$

(5) MICE 참가자수 $_{it} = \beta_0 + \beta_1$ 유치개최지원 $_{it} + \beta_2$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_{it} + \beta_3$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_{it} + \beta_4$ MICE 전문정보 제공 $_{it} + \beta_5$ MICE 인프라 $_{it} + \beta_6$ 전담조직지원 $_{it} + e_{it}$

e : 오차항, i : 개체, t : 시간

①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확률효과 모형에서 오차항 u_i 는 확률변수로 가정되어 관찰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간의 이질성을 확률효과로 추정한다. 즉, $u_i \sim N(0, \sigma_u^2)$, $e_{it} \sim N(\sigma_e^2)$ 로 가정되며, 계량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 a + \beta x + u_i + e_{it}, i = 1, 2, \dots, n, t = 1, 2, \dots, t \quad (\text{식1})$$

u_i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e_{it} :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

i : 개체, t : 시간

이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 (a + u_i) + \beta x_{it} + e_{it}, i = 1, 2, \dots, n, t = 1, 2, \dots, t \quad (\text{식2})$$

$(a + u_i)$ 는 패널 개체별 상수항으로서 확률변수로 간주하여 관찰되지 않은 각 중 앙부처 및 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다. 편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수 추정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즉, 확률변수 $(a + u_i)$ 의 기댓값은 패널 개체별 상수항 평균을 추정한 값과 일치해야 한다.

②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패널데이터는 다수의 개체와 다수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분석에 있어서 개체와 시간을 고려하는 것은 추정에 있어서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즉,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추정을 통하여 결과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개체와 시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v_t + e_{it}, i = 1, 2, \dots, n, t = 1, 2, \dots, t \quad (\text{식3})$$

u_i : 개체의 이질성을 고려한 변수

v_t : 시간의 이질성을 고려한 변수

e_{it} :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

i: 개체, t: 시간

〈식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패널데이터의 분석은 개체의 이질성과 시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더미변수를 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한다. 더미변수를 회귀분석 식에 포함한 특성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의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상수항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고정효과 모형은 다수의 변수를 회귀방정식에 포함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정에 있어서 자유도가 손상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2. 분석결과

가. 기초 통계량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표 3-22> 및 상관관계 <표 3-23>는 아래와 같다. 기술통계 분석에 있어서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유의수준 95%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기술 통계 결과로는 유치개최지원(평균=3,580.3, 표준편차=4,344.4),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평균=389.2, 표준편차=697.1),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평균=1,296.7, 표준편차=4,219.6), MICE 전문정보 제공(평균=218.1, 표준편차=533.8), MICE 인프라(평균=3,748.3, 표준편차=10,966.6), 전담조직지원(평균=1,782.4, 표준편차=3,238.2)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크고 표준편차가 높는데 그 이유는 MICE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MICE 산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성과지표가 높은 편이나 MICE산업이 주요산업이 아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과지표가 낮아 해당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외화획득액 (백만원)	296,874	620,952	1,284	3,230,307
국제회의업 매출액 (백만원)	180,064	426,628	0	1,837,698
UIA 개최건수	124.29	274.64	0	1,297
ICCA 개최건수	34.35	76.97	0	316
MICE 참가가수	2,761,595	5,512,758	53,375	24,300,000
유치개최지원 (백만원)	3,580.3	4,344.4	0	16,218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백만원)	389.2	697.1	0	2,738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백만원)	1,296.7	4,219.6	0	21,770
MICE 전문정보 제공 (백만원)	218.1	533.8	0	2,112
MICE 인프라 (백만원)	3,748.3	10,966.6	0	60,875
전담조직지원 (백만원)	1,782.4	3,238.2	0	13,550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3-23>의 결과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7. MICE 통합홍보 및 마케팅지원과 9. MICE 전문정보 제공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으나 대부분의 상관계수 값이 ± 0.8 미만으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다중선형회귀분석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3> 상관관계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외화획득액	1									
2.국제회의업 매출액	.952*	1								
3.UIA 개최건수	.935*	.948*	1							
4.ICCA 개최건수	.961*	.955*	.985*	1						
5.MICE 참가자수	.977*	.938*	.951*	.969*	1					
6.유치개최지원	.715*	.693*	.748*	.752*	.738*	1				
7.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861*	.875*	.887*	.897*	.881*	.798*	1			
8.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043	-.014	.058	.105	-.001	.032	-.030	1		
9.MICE 전문정보 제공	.887*	.952*	.921*	.902*	.867*	.656*	.826*	-.027	1	
10.MICE 인프라	-.115	-.086	-.097	-.097	-.110	-.041	.139	-.075	-.105	1
11.전담조직지원	-.060	-.114	-.035	-.047	-.075	-.002	-.083	.041	-.161	-.040

주: * $p < .05$

나. 하우스만 검증 및 추정 결과

① 외화획득액

종속변수를 외화획득액으로 설정하여 하우스만 검정 및 추정 결과는 <표 3-24>과 같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적합한 계량경제 모델로는 확률효과모형(REM)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연구 모형을 추정한 결과,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이 외화획득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확률효과 모형(REM)외에 최소자승법 (Model1: Ordinary Least Square), 고정효과 모형 (Model2: FEM), 실행가능한 일반 최소자승법(Model4: Feasibility Generalized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모형을 추가 분석하였다. 4개의 연구 모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화획득액에 있어서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외화획득액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24〉 외화획득액에 대한 가설검증

변수	Model1 OLS $\beta(t\text{-value})$	Model2 FEM $\beta(t\text{-value})$	Model3 REM $\beta(Wald)$	Model4 FGLS $\beta(Wald)$
상수	1,101.09(0.02)	253,516.3(2.10)**	14,642.8(0.19)	1,101.1(0.02)
유치개최지원	1.96(0.14)	-9.35(-0.64)	2.82(0.22)	1.96(0.15)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23.09(3.33)**	-86.97(-0.46)	326.11(2.82)**	423.08(3.59)**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8.53(1.02)	1.42(0.14)	2.57(0.29)	8.54(1.10)
MICE 전문정보 제공	561.07(4.32)**	375.59(2.15)**	610.99(4.83)**	561.06(4.65)**
MICE 인프라	-6.97(-1.90)*	0.53(0.15)	-4.28(-1.37)	-6.97(-2.04)**
전담조직지원	9.68(0.87)	14.39(0.48)	14.21(0.88)	9.67(0.94)
F-value	45.12**	1.00	-	-
Wald χ^2	-	-	94.81**	313.79**
R ²	.8411	.4843	.8559	-

주1: 종속변수: 외화획득액 Hausman 검정결과: $\chi^2 = 9.72(p>.05)$ * $p<.1$ ** $p<.05$

주2: OLS: 최소자승법, FEM: 고정효과모형, REM: 확률 효과 모형, FGLS: 실행가능한 일반최소자승법

② MICE 참가자 수

종속변수를 MICE 참가자 수로 설정하여 하우스만 검정 및 추정 결과는 〈표 3-25〉과 같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적합한 계량경제 모델로는 확률효과모형(REM)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이 MICE 참가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강건성 테스트 결과 OLS모형, FGLS모형 모두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이 MICE 참가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EM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개의 연구 모델 결과를 종합해 보면, MICE 참가자수에 있어서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MICE 참가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25〉 MICE 참가자수에 대한 가설검증

변수	Model1 OLS $\beta(t\text{-value})$	Model2 FEM $\beta(t\text{-value})$	Model3 REM $\beta(Wald)$	Model4 FGLS $\beta(Wald)$
상수	214,964.2(0.46)	2,788,624(9.81)**	1,814,195(1.99)*	214,964(0.49)
유치개최지원	38.41(0.31)	-12.08(-0.35)	32.89(0.68)	38.41(0.33)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735.11(4.20)**	-259.23(-0.58)	1,255.19(2.20)**	4,735.11(4.52)**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17.46(0.24)	-0.27(-0.01)	-9.50(-0.28)	17.46(0.25)
MICE 전문정보 제공	3,517.44(3.05)**	323.84(0.78)	1,385.87(2.53)**	3,517.44(3.28)**
MICE 인프라	-77.77(-2.39)**	-1.73(-0.21)	-17.74(-1.52)	-77.78(-2.57)*
전담조직지원	39.16(0.40)	30.81(0.44)	67.91(0.71)	39.16(0.43)
F-value	45.14**	0.28	-	-
Wald χ^2	-	-	12.06*	313.94**
R ²	.8412	.1079	.8477	-

주1: 종속변수: MICE 참가자수 Hausman 검정결과: $\chi^2 = 0.15(p>.05)$ * $p<.1$ ** $p<.05$

주2: OLS: 최소자승법, FEM: 고정효과모형, REM: 확률 효과 모형, FGLS: 실행가능한 일반최소자승법

③ 국제회의업 매출액

종속변수를 국제회의업 매출액으로 설정하여 하우스만 검정 및 추정 결과는 <표 3-26>과 같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적합한 계량경제 모델로는 고정효과모형(FEM)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모델의 경우 P-Value의 값 0.05기준(유의수준 95%)으로 살펴보았을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찾기 힘들어 P-Value의 값 0.1기준(유의수준90%)까지 확장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종속변수를 살펴본 결과 ‘MICE 전문정보 제공’이 유의하게 나온 변수로 판명되었다.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 테스트 결과 모든 모형의 결과가 ‘MICE 전문정보 제공’이 국제회의업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FEM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개의 연구 모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제회의업 매출액에 있어서 ‘MICE 전문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국제회의업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26〉 국제회의업 매출액에 대한 가설검정

변수	Model1 OLS β (t-value)	Model2 FEM β (t-value)	Model3 REM β (Wald)	Model4 FGLS β (Wald)
상수	-6,419.0(-0.26)	170,695.8(2.24)**	-7,541.2(-0.27)	-6,419.0(-0.28)
유치개최지원	-4.11(-0.62)	-2.54(-0.28)	-2.70(-0.39)	-4.11(-0.67)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17.89(3.65)**	-41.82(-0.35)	219.01(3.55)**	217.90(3.93)**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1.07(0.27)	0.32(0.05)	0.80(0.19)	1.06(0.29)
MICE 전문정보 제공	545.26(8.82)**	217.10(1.96)*	527.64(8.19)**	545.26(9.61)**
MICE 인프라	-2.465(-1.43)	0.90(0.40)	-2.38(-1.35)	-2.46(-1.54)
전담조직지원	3.05(0.59)	-9.46(-0.50)	2.79(0.47)	3.05(0.63)
F-value	104.61**	0.98	-	-
Wald χ^2	-	-	461.55**	727.49**
R ²	.9256	.6769	.9343	-

주1: 종속변수: 국제회의업 매출액 Hausman 검정결과: $\chi^2 = 13.25(p<.05)$ * $p<.1$ ** $p<.05$

주2: OLS: 최소자승법, FEM: 고정효과모형, REM: 확률 효과 모형, FGLS: 실행가능한 일반최소자승법

④ UIA 개최건수

종속변수를 국제회의업 매출액으로 설정하여 하우스만 검정 및 추정 결과는 <표 3-27>과 같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적합한 계량경제 모델로는 위와 같은 확률효과 모형(REM)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연구 모형을 추정한 결과,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이 UIA 개최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 테스트 결과 모형의 강건성 테스트 결과 OLS모형, FGLS모형 모두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이 UIA 개최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EM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개의 분석 모델 결과를 종합해 보면, UIA 개최건수에 있어서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UIA 개최건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27〉 UIA 개최건수에 대한 가설검증

변수	Model1 OLS $\beta(t\text{-value})$	Model2 FEM $\beta(t\text{-value})$	Model3 REM $\beta(Wald)$	Model4 FGLS $\beta(Wald)$
상수	-23.46(-1.36)	64.27(1.53)	-19.71(-0.81)	-23.46(-1.46)
유치개최지원	0.01(0.79)	0.01(0.90)	0.01(1.49)	0.01(0.85)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0.16(3.75)**	-0.01(-0.11)	0.13(3.24)**	0.16(4.04)**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0.01(1.76)*	-0.01(-0.09)	0.01(0.54)	0.01(1.89)
MICE 전문정보 제공	0.29(6.80)**	0.20(3.22)**	0.29(6.75)**	0.29(7.32)**
MICE 인프라	-0.01(-1.70)*	-0.01(-0.01)	-0.01(-1.48)	-0.01(-1.83)*
전담조직지원	0.01(1.93)**	0.01(0.23)	0.01(1.33)	0.01(2.08)**
F-value	88.11**	1.99	-	-
Wald χ^2	-	-	209.06**	612.76**
R ²	.9127	.8808	.9200	-

주1: 종속변수: UIA 개최건수 Hausman 검정결과: $\chi^2 = 9.36(p>.05)$ * $p<.1$ ** $p<.05$

주2: OLS: 최소자승법, FEM: 고정효과모형, REM: 확률 효과 모형, FGLS: 실행가능한 일반최소자승법

⑤ ICCA 개최건수

종속변수를 국제회의업 매출액으로 설정하여 하우스만 검정 및 추정 결과는 <표 3-28>과 같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적합한 계량경제 모델로는 확률효과모형(REM)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연구 모형을 추정한 결과,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이 UIA 개최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 테스트 결과 모형의 강건성 테스트 결과 OLS모형, FGLS모형 모두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이 ICCA 개최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EM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개의 분석 모델 결과를 종합해 보면, UIA 개최건수에 있어서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ICCA 개최건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8> ICCA 개최건수에 대한 가설검증

변수	Model1 OLS $\beta(t\text{-value})$	Model2 FEM $\beta(t\text{-value})$	Model3 REM $\beta(Wald)$	Model4 FGLS $\beta(Wald)$
상수	-6.70(-1.35)	31.45(8.74)**	13.46(1.30)	-6.69(-1.45)
유치개최지원	0.01(0.40)	0.01(0.77)	0.01(1.58)	0.01(0.43)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0.06(4.87)**	0.01(0.37)	0.01(3.73)**	0.06(5.25)**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0.01(2.80)**	0.01(1.21)	0.01(0.59)	0.01(3.02)**
MICE 전문정보 제공	0.07(5.28)**	0.03(1.39)	0.02(3.56)**	0.06(5.69)**
MICE 인프라	-0.01(-2.25)**	0.01(0.11)	-0.01(-1.67)*	-0.01(-2.42)**
전담조직지원	0.01(1.37)	-0.01(-0.78)	0.01(0.23)	0.01(1.48)
F-value	83.76**	1.01	-	-
Wald χ^2	-	-	35.18**	582.49**
R ²	.9085	.7632	.9051	-

주1: 종속변수: ICCA 개최건수 Hausman 검정결과: $\chi^2 = 0.72(p>.05)$ * $p<.1$ ** $p<.05$

주2: OLS: 최소자승법, FEM: 고정효과모형, REM: 확률 효과 모형, FGLS: 실행가능한 일반최소자승법

3. 분석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MICE 산업 성과와 MICE 산업의 유형별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 얻는 주요 결과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은 주요 MICE 산업 성과변수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절한 계량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들에서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 예산이 성과 변수들과 지속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사점은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이 산업 전체의 성과 측면인 외화획득액, MICE 참가자 수, UIA 및 ICCA 개최전수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즉 MICE 산업의 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홍보 및 마케팅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으로 MICE 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유치개최를 지원하는 방향보다는 MICE 행사의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MICE 의 대한 여러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MICE 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의 경우 모든 성과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모든 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는 요인은 MICE 전문정보 제공으로 주요 성과 중 MICE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연관 깊은 성과인 국제회의업 매출액의 경우 다른 성과 지표들과 다르게 MICE 전문정보 제공이라는 예산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성과 데이터도 MICE 전문정보 제공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MICE 산업의 경우 그동안 국제회의산업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유치개최 지원을 주로 해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MICE 기업들은 여러 MICE 행사들을 유치하거나 개최하면서 양적 성장을 크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방식의 양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정부의 MICE 산업 생태계 및 전문제공 등을 통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의 질적 성장 중심의 정책 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세번째 시사점은 중앙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문체부를 제외하고 16개의 광역자치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할 경우 전담조직지원 예산이 대부분의 성과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인 문체부를 포함한 패널데이터 분석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 전문정보제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문체부를 제외한 연구결과에서는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효과적인 추정을 위한 적절한 계량 모형으로 제시된 반면, 고정효과 모형이 제시하는 통계적 결과와 통찰력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제한적이기는 하나 강건성 테스트로 다른 모형들의 결과와 종합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담조직지원예산이 높게 나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MICE산업을 지원할 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MICE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전체와 지자체 구분 연구결과 요약

종속변수	외화획득액		UIA 개최건수		ICCA 개최건수		참가자수	국제회의업 매출액
	전체	지자체	전체	지자체	전체	지자체	전체	
모델	REM	FEM	REM	FEM	REM	FEM	REM	FEM
유치개최 지원	2.82 (0.22)	-3.22 (-0.55)	0.01 (1.49)	0.01 (0.84)	0.01 (1.58)	0.01 (0.66)	32.89 (0.68)	-2.54 (-0.28)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26.11 (2.82)**	-85.60 (-1.11)	0.13 (3.24)**	0.20 (0.47)	0.01 (3.73)**	0.02 (0.83)	1,255.19 (2.20)**	-41.82 (-0.35)
MICE인력 및 기술 등 업계 지원	2.57 (0.29)	2.73 (0.68)	0.01 (0.54)	-0.01 (-0.29)	0.01 (0.59)	0.01 (1.31)	-9.50 (-0.28)	0.32 (0.05)
MICE 전문정보 제공	610.99 (4.83)**	-325.88 (-1.36)	0.29 (6.75)**	-0.16 (-1.18)	0.02 (3.56)**	-0.03 (-1.78)	1,385.87 (2.53)**	217.10 (1.96)*
MICE 인프라	-4.28 (-1.37)	0.32 (0.22)	-0.01 (-1.48)	-0.01 (-0.37)	-0.01 (-1.67)*	-0.01 (-0.14)	-17.74 (-1.52)	0.90 (0.40)
전담조직 지원	14.21 (0.88)	26.49 (2.13)**	0.01 (1.33)	0.01 (1.00)	0.01 (0.23)	-0.01 (-0.25)	67.91 (0.71)	-9.46 (-0.50)

주1: *p<.1 **p<.05

주2: FEM: 고정효과모형, REM: 확률 효과 모형

다만,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로, 추정을 위해 제한적인 데이터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본 분석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패널데이터 개체로 활용되었으며, 개체별 3년도 MICE 예산 및 성과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51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풍부한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결과의 경우 하우스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효과적인 추정을 위한 적절한 계량 모형으로 제시된 반면, 고정효과 모형이 제시하는 통계적 결과와 통찰력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제한적이다. 이는 첫 번째 한계점으로 지적된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과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 데이터를 확보 및 재검증을 이루어진다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제4절 분석 종합 및 논의

본 연구는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 관련 예산과 유형, 수요규모 분석, MICE산업 지원 예산이 MICE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 추진 실태에 대하여 다각도로 파악하자 하였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예산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제회의 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3,28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과 광역지자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특히 2020년의 경우 분석기간 5개년 중 가장 높은 14.3%의 예산 증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5개년 누적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58.7%가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약 10,063억 원의 예산을 나타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이 약 9,915억 원으로 98.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이 전시장 등의 인프라 구축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중앙부처 예산의 경우 5개년 누적 예산 중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이 약 6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이래로 2020년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정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의 예산은 MICE 유치·개최 지원(약 193억 원, 63.5%) 부분으로 이 중 국제회의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컨벤션(Convention) 유치개최 분야에 약 9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 산업 및 MICE산업 관련 5개년(2016~2020) 정책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이 63.3%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으로 약 2,157억 원(13.8%)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예산 중 광역시·도 예산이 약 1,290억 원으로 59.8%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

광역시단위에서 유치개최를 위한 정책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MICE산업의 수요 규모에서 국제회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계를 활용하여 국제회의산업규모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ICE 주최자의 수요 규모를 추가하여 참가자 위주로 편향된 수요 규모를 주최자까지 확장하고 내국인참가자를 재분류하였으며, 해외 국제기구와 국내 법령상의 기준을 Meeting 부문에 적용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를 재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수요 규모 분석 결과 국제회의산업의 수요 규모가 기존 국내 MICE산업의 총 수요 규모 약 18조 1,602억 원에서 MICE 주최자 총 수요 규모 약 3조 7,838억 원이 추가된 MICE산업의 총 수요 규모 약 21조 9,439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범위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이 참가하는 2일 이상의 국제회의를 기준으로 재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미팅부분에서 약 1,240억 원, 컨벤션 부분에서 약 4조 3,488억 원으로 총 국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총 수요 규모는 약 4조 4,728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산 및 성과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정부의 MICE산업 지원 예산이 MICE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MICE 산업의 6개 지원예산 유형 중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은 MICE산업 주요성과변수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절한 계량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들에서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 예산이 성과 변수들과 지속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MICE 산업에서 정부의 지원 역할을 기존의 직접적인 지원인 유치개최 지원과 더불어 간접적인 지원인 홍보 마케팅과 MICE 산업의 전문적인 정보제공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외화획득액, UIA 개최건수, ICCA개최건수 3개의 종속변수에 한하여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효과적인 추정을 위한 적절한 계량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강건성 테스트로 다른 모형들의 결과와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전담조직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회의 정책추진시 전담조직을 구성을 통한 개최유치 협력과 산업 관련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정책성장에 더욱 효율적인 것을 시사한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제4장

국제회의산업 정책
인식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가. 조사방법

중앙 및 지방정부 국제회의 정책의 실태와 정책과제 의견조사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명부를 구축하였다. 이해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MICE 정책에 관련 있는 관련 공무원, 학계 전문가, 업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중 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국제회의 산업 및 MICE 산업과 관련된 담당자들이며, 학계 전문가는 MICE, 국제회의, 관광 등 관련 학과 대학교 교수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다. 이외 국제회의산업 및 MICE 산업과 관련하여 개최/유치/홍보와 관련된 국제회의기획업 및 시설업, 인센티브 수행 여행사 등의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앙 및 지방정부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과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조사업체의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견조사지를 발송하여 응답을 회신 받았다.

조사를 위해 구축된 총 384명의 이해관계자 중 205명에게 의견조사지를 발송하여 132명의 응답을 회신 받고 분석하였다(회수율 64.4%). 집단별 회수율은 정부/공공 총 80건 송부하여 49건을 회수(회수율 61.3%), 학계 전문가 총 43건 송부하여 41건 회수(회수율 95.3%), 업계 전문가는 총 85건 송부하여 42건을 회수(회수율 49.4%)하였다.

나. 문항 및 분석 방법

정책 인식조사 설문 문항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제회의 산업 및 MICE산업 정책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향후 발전 방향성 설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5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19개 설문 내용과 68개 문항을 활용하여 최종 의견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표 4-1〉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문항

구 분	설문 내용	척도
국제회의산업 정책 인식	•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절차/방식, 산업발전에 대한 의견	등간(5점)
	• 국제회의산업 정책 주요 효과	
	• MICE산업 유형별 정책지원 성과 효율성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현황	•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중요도	등간(5점)
	•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만족도	
국제회의산업 정책 주요 이슈	•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문제점 진단	등간(5점)
	•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주된 원인	명목
국제회의산업 정책 개선의견	•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등간(5점)
	• 국제회의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 개선의견	명목
	• 국제회의산업 명칭에 대한 의견	명목
	• 국제회의산업 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명목
	• 의견 및 건의사항	개방형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방향	•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 시점	명목
	• 국제회의산업 수요 정상화 시점	명목
	•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분야	명목
	• 온/오프라인 행사 형태 대체 정도	등간(5점)
	• 온라인/하이브리드 정책 지원 필요성	등간(5점)
응답자 특성	• 근무 분야	명목
	• 성별/ 연령/ 근무기간 등	명목

설문 항목 중 명목척도를 활용하여 구성된 측정문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간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 문항은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정부/공공, 학계 전문가, 업계 전문가)을 기준으로 일원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활용하여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조사 결과

1.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전반적 인식

가.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전반적 인식

①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영향

‘그동안 추진된 국제회의산업 정책이 국가 및 지역의 국제회의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점은 3.85점으로 평점 3점(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영향

(단위: %, 점)

문항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점
그동안 추진된 국제회의산업 정책이 국가/지역의 국제회의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5.3	17.4	58.3	17.4	3.85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매우 부정적, 5: 매우 긍정적) (N=132)

②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절차 및 방식

‘그동안 추진된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의 절차/방식(법제도 기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점은 3.40점으로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절차 및 방식은 평점 3점(보통)을 상회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절차 및 방식

(단위: %, 점)

문항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점
그동안 추진된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의 절차/방식(법제도 기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	8.3	40.9	40.9	6.8	3.40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매우 부정적, 5: 매우 긍정적) (N=132)

③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 항목은 평점 4점 이상으로 타 국제회의 산업정책의 주요 효과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가 평점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제회의 도시(지자체) 육성’ 평점 3.86점, ‘국제회의 개최의 지역 경제파급 증대’ 평점 3.83점,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 증대’ 평점 3.80점 등의 순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주요 효과로 ‘지자체 인프라 개선’, ‘관광산업 다변화 및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인지도 제고’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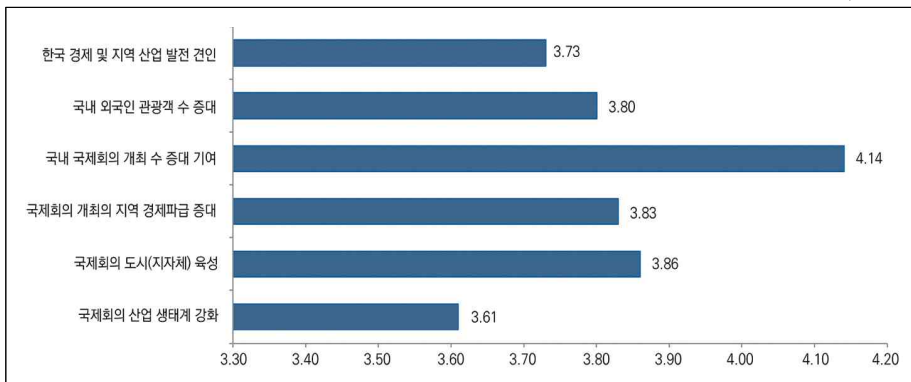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한국 경제 및 지역 산업 발전 견인	1.5	3.8	28.0	53.8	12.9	3.73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 증대	1.5	6.1	23.5	48.5	20.5	3.80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	1.5	2.3	11.4	50.8	34.1	4.14
국제회의 개최의 지역 경제파급 증대	2.3	3.8	22.0	52.3	19.7	3.83
국제회의 도시(지자체) 육성	2.3	3.8	25.0	43.2	25.8	3.86
국제회의 산업 생태계 강화	2.3	9.1	31.1	40.9	16.7	3.61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N=132)

[그림 4-1] 국제회의산업 정책 주요 효과

(단위: 점)



④ MI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기업회의, 전시, 축제 및 이벤트 등은 모든 항목은 평점은 3점(보통) 이상으로 MICE산업 유형별 정책지원 성과 효율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ICE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회의’가 평점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센티브 관광’ 평점 3.40점, ‘전시’ 평점 3.39점, ‘축제 및 이벤트’ 평점 3.27점, ‘기업회의’ 평점 3.14점 등의 순으로 정책지원 성과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응답으로 ‘관광산업 전반에 도움’, ‘국내회의 활성화’ 등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MI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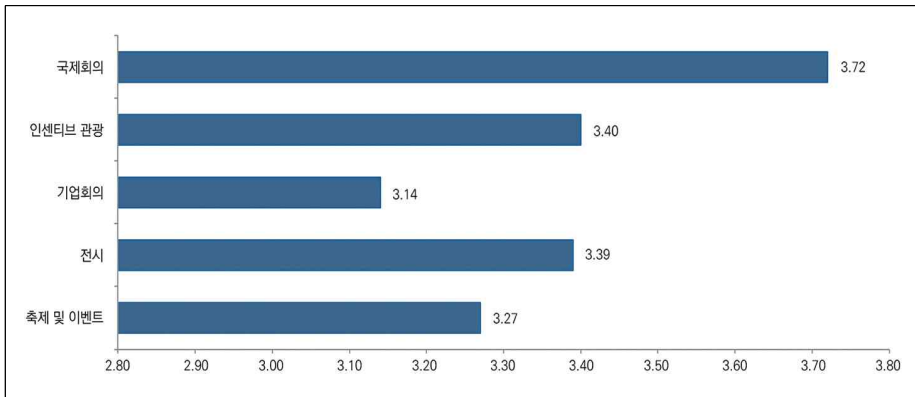
(단위: %, 점)

문항	전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보통 이다	상당히 높다	매우 높다	평점
국제회의	1.5	5.3	25.8	54.5	12.9	3.72
인센티브 관광	3.0	12.9	37.1	34.8	12.1	3.40
기업회의	3.8	15.9	47.0	29.5	3.8	3.14
전시	2.3	11.4	39.4	38.6	8.3	3.39
축제 및 이벤트	3.0	14.4	40.2	37.9	4.5	3.27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N=132)

[그림 4-2] MICE산업 유형별 정책지원 성과 효율성

(단위: 점)



나.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현황

①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는 모든 항목이 평점 3점(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으로 추진되는 항목 중 다음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결과로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이 평점 4.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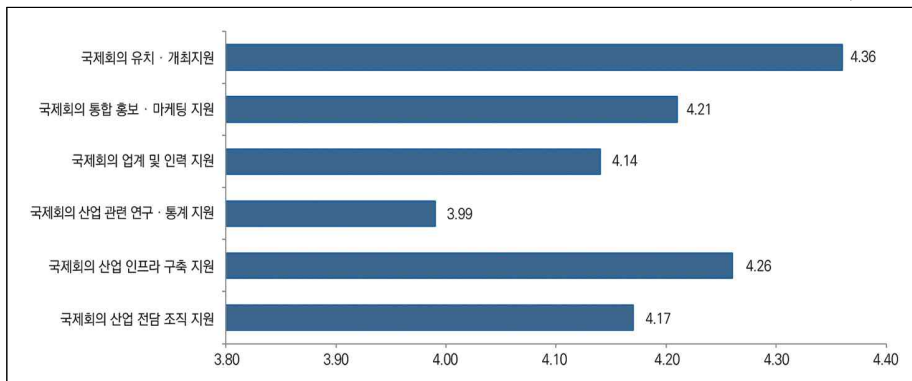
(단위: %, 점)

문항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평점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1.5	-	7.6	43.2	47.7	4.36
국제회의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1.5	-	10.6	51.5	36.4	4.21
국제회의의 업계 및 인력 지원	1.5	0.8	15.2	47.0	35.6	4.14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1.5	0.8	22.7	47.0	28.0	3.99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1.5	-	13.6	40.9	43.9	4.26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2.3	0.8	12.9	45.5	38.6	4.17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매우 중요하지 않다, 5: 매우 중요하다) (N=132)

[그림 4-3]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

(단위: 점)



②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는 모든 항목이 평점 3점(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이 평점 3.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평점 3.41점,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평점 3.14점,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평점 3.09점,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평점 3.06점, ‘국제회의 업계 및 인력 지원’ 평점 3.0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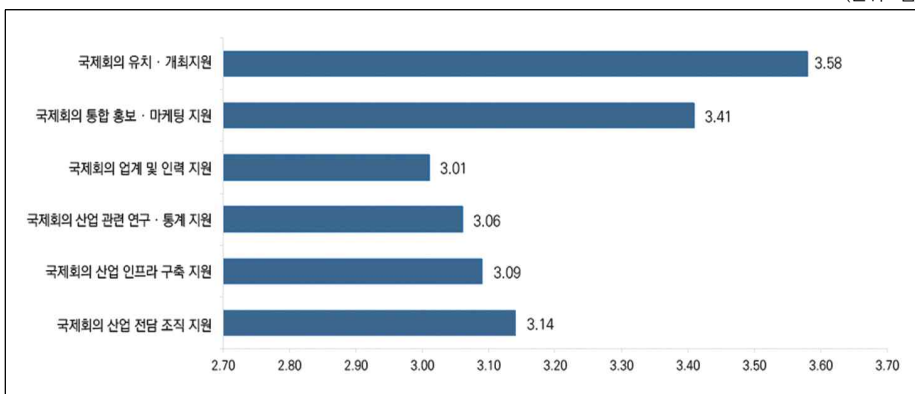
(단위: %, 점)

문항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하다	매우 만족 하다	평점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1.5	4.5	40.2	42.4	11.4	3.58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1.5	12.1	40.2	36.4	9.8	3.41
국제회의 업계 및 인력 지원	5.3	22.7	43.9	22.0	6.1	3.01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6.1	18.9	44.7	23.5	6.8	3.06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7.6	15.9	41.7	29.5	5.3	3.09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5.3	13.6	50.0	23.5	7.6	3.14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매우 불만족 한다, 5: 매우 만족한다) (N=132)

[그림 4-4]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

(단위: 점)



2. 국제회의산업 정책 이슈와 개선 방향

가.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이슈

①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문제점 진단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원 규모가 소액/단기간으로 활용효과 미흡’과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흡’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의 결과로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 단기간이 대부분으로 활용 효과가 크지 못하다’이 평점 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평점 3.45점으로 두 문항이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응답으로 ‘인력 전문성 관련 정책 부재’, ‘특정 분야에만 정책이 집중’, ‘유관기관에 대한 유기적 지원정책 필요’, ‘지원정책이 행사 규모에만 집중’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표 4-8〉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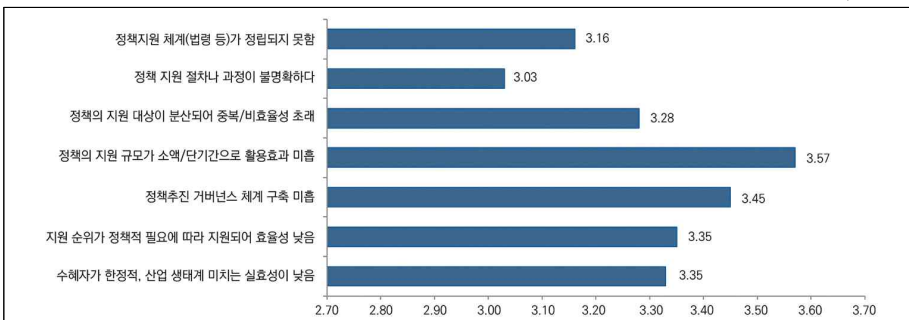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정책지원 체계(법령 등)가 정립되지 못함	3.8	18.9	40.2	31.8	5.3	3.16
정책 지원 절차나 과정이 불명확하다	5.3	27.3	34.8	24.2	8.3	3.03
정책의 지원 대상이 분산되어 중복/비효율성 초래	3.8	16.7	36.4	34.1	9.1	3.28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단기간으로 활용효과 미흡	3.0	10.6	28.8	41.7	15.9	3.57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흡	2.3	13.6	31.8	40.9	11.4	3.45
지원 순위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 효율성 낮음	2.3	15.9	33.3	41.7	6.8	3.35
수혜자가 한정적, 산업 생태계 미치는 실효성이 낮음	5.3	17.4	28.8	36.4	12.1	3.33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N=132)

〔그림 4-5〕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이슈

(단위: 점)



②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주된 원인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부족’과 ‘추진 거버넌스 체계 한계’가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산업 지원 정책에 미흡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결과로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부족’(28.8%)과 ‘추진 거버넌스 체계 한계’(28.0%)가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외에 ‘유형별 지원 규모 부족’(18.2%), ‘법률 및 관련 제도 장치 미흡’(15.9%), ‘추진 절차 및 방식 미흡’(6.8%) 등의 순으로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원인이 파악되었다.

조사대상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과 학계 전문가는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부족’(각각 32.7%, 34.1%), 업계 전문가는 ‘추진 거버넌스 체계 한계’(28.6%)를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표 4-9〉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주된 원인

(단위: 건, %)

문항	전체		정부/공공		학계 전문가		업계 전문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부족	38	28.8	7	32.7	8	34.1	6	19.0
추진 거버넌스 체계 한계	37	28.0	13	24.5	3	31.7	8	28.6
유형별 지원 규모 부족	24	18.2	1	26.5	2	7.3	6	19.0
법률 및 관련 제도 장치 미흡	21	15.9	12	14.3	13	19.5	12	14.3
추진 절차 및 방식 미흡	9	6.8	16	2.0	14	4.9	8	14.3
기타	3	2.3	-	-	1	2.4	2	4.8

나. 국제회의산업 정책 개선 의견

①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 항목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 다음 정책 추진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결과로, ‘국제회의 유형별 지원 금액 확대’가 평점 4.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회의 유형 확대’, ‘국제회의 지원 기준 개선’, ‘국제회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이 각각 평점 4.04점으로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개선 응답으로 ‘주최측 갑질’, ‘국제회의산업과 전시산업 정책 통합’, ‘MICE 관련 R&D 투자’, ‘지역별 MICE종합지원센터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등의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표 4-10〉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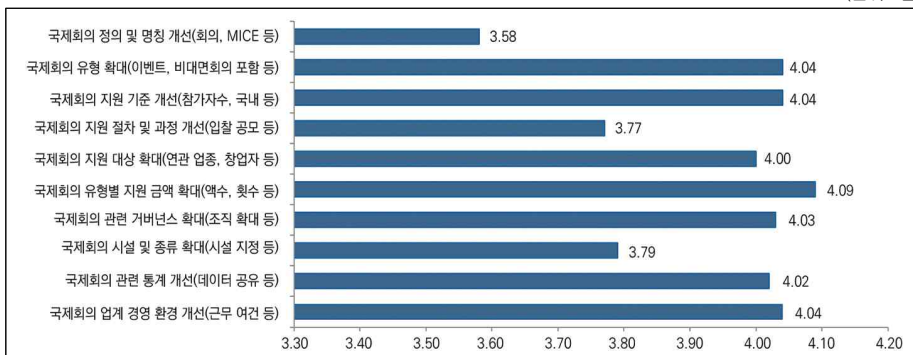
(단위: %, 점)

문항	전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점
국제회의 정의 및 명칭 개선(회의, MICE 등)	2.3	14.4	25.0	40.2	18.2	3.58
국제회의 유형 확대(이벤트, 비대면회의 포함 등)	1.5	2.3	15.9	51.5	28.8	4.04
국제회의 지원 기준 개선(참가자수, 국내 등)	1.5	2.3	17.4	48.5	30.3	4.04
국제회의 지원 절차 및 과정 개선(입찰 공모 등)	1.5	4.5	29.5	43.9	20.5	3.77
국제회의 지원 대상 확대(연관 업종, 창업자 등)	2.3	2.3	17.4	49.2	28.8	4.00
국제회의 유형별 지원 금액 확대(액수, 횟수 등)	1.5	0.8	15.9	50.8	31.1	4.09
국제회의 관련 거버넌스 확대(조직 확대 등)	1.5	1.5	22.0	42.4	32.6	4.03
국제회의 시설 및 종류 확대(시설 지정 등)	2.3	0.8	31.8	46.2	18.9	3.79
국제회의 관련 통계 개선(데이터 공유 등)	1.5	0.8	25.0	39.4	33.3	4.02
국제회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근무 여건 등)	2.3	3.0	16.7	44.7	33.3	4.04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전혀 불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N=132)

〈그림 4-6〉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단위: 점)



② 국제회의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상 시급한 개선 사항

‘국제회의의 지원 유형 확대’, ‘국제회의의 지원 기준 개선’, ‘국제회의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이 국제회의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주요 개선의견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제회의의 지원 유형 확대’가 19.7%로 가장 높았고, ‘국제회의의 지원 기준 개선’(16.7%) ‘국제회의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13.6%), ‘국제회의의 정의 및 명칭 개선’(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2+3순위로 살펴보면, ‘국제회의의 지원 기준 개선’(38.6%)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국제회의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37.1%), ‘국제회의의 지원 대상 확대’(35.6%), ‘국제회의의 지원 유형 확대’(35.6%)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 조사대상별 분석 결과, 정부/공공은 ‘국제회의의 지원 기준 개선(26.5%)’, 학계 전문가는 ‘국제회의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22.0%)’, 업계 전문가는 ‘국제회의의 지원 유형 확대(16.7%)’, ‘국제회의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16.7%)’, ‘국제회의의 지원 절차 및 과정 개선(14.3%)’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11〉 국제회의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 개선의견

(단위: 건, %)

문항	1순위								1+2+3순위	
	전체		정부/공공		학계 전문가		업계 전문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회의의 정의 및 명칭 개선	18	13.6	5	10.2	8	19.5	5	11.9	32	24.2
국제회의의 지원 유형 확대	26	19.7	11	22.4	8	19.5	7	16.7	47	35.6
국제회의의 지원 기준 개선	22	16.7	13	26.5	5	12.2	4	9.5	51	38.6
국제회의의 지원 절차 및 과정 개선	10	7.6	1	2.0	3	7.3	6	14.3	36	27.3
국제회의의 지원 대상 확대	9	6.8	5	10.2	-	-	4	9.5	47	35.6
국제회의의 유형별 지원 금액 확대	6	4.5	3	6.1	1	2.4	2	4.8	38	28.8
국제회의의 관련 거버넌스 확대	9	6.8	2	4.1	4	9.8	3	7.1	39	29.5
국제회의의 시설 및 종류 확대	8	6.1	4	8.2	-	-	4	9.5	27	20.5
국제회의의 관련 통계 개선	6	4.5	3	6.1	3	7.3	-	0.0	22	16.7
국제회의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	18	13.6	2	4.1	9	22.0	7	16.7	49	37.1
기타	-	-	-	-	-	-	-	-	1	1.6

주: 기타(주최측 갑질문화 개선, 국제회의의 데이터 기반 활용 확대 등)

③ 국제회의산업 정책 명칭에 대한 의견

‘마이스산업’, ‘회의 및 컨벤션 산업’이 국제회의산업 명칭의 주요 개선의견으로 나타났고, 현행 국제회의산업 유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마이스산업’이 38.6%로 가장 높았고, ‘현행 국제회의산업 유지’(24.2%), ‘회의산업’(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1+2+3순위로 살펴보면, ‘마이스산업’(66.9%), ‘현행 국제회의산업 유지’(45.4%), ‘회의 및 컨벤션산업’(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제회의산업’ 유지는 1순위 24.2%, 1+2+3순위 45.4%로 나타나 국제회의산업 명칭에 대한 현행 유지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12〉 국제회의산업 명칭에 대한 개선의견

(단위: 건, %)

문항	1순위		1+2+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회의산업 유지	32	24.2	59	45.4
회의산업	14	10.6	29	22.3
마이스산업	51	38.6	87	66.9
비즈니스 트레블마이스산업	6	4.5	25	19.2
비즈니스 이벤트산업	8	6.1	20	15.4
비즈니스 관광 이벤트산업	3	2.3	20	15.4
국제이벤트산업	3	2.3	17	13.1
국제비즈니스이벤트산업	5	3.8	18	13.8
회의 및 컨벤션산업	8	6.1	53	40.8
기타	-	-	1	0.8

주: 기타(컨벤션 산업 등)

④ 국제회의산업 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국제회의산업 기준에 대한 의견은 현행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한 국제회의 기준의 경우 참가국 수는 3개국 이상(45.5%), 전체 참가자 수의 경우는 300명 이상(32.6%), 외국인 참가자 수는 50명 이상(42.4%), 개최 기간의 경우 2일 이상(48.5%) 항목이 높게 나타

났다. 국제기구에 미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한 국제회의의 기준은 전체 참가자 수는 200명 이상(27.3%), 외국인 참가자 수의 경우 50명 이상(36.4%), 개최 기간은 2일 이상(5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개선 유형을 선택한 사유로는 ‘지원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소규모 국제회의 증가로 인한 기준 완화’ 등이 주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4-13〉 국제회의산업 명칭에 대한 개선의견

(단위: 건, %)

문항		국제기구 가입, 법인/단체가 개최(a)	국제기구 미가입, 법인/단체가 개최(b)
참가국	5개국 이상	37.9	-
	4개국 이상	3.8	-
	3개국 이상	45.5	-
	2개국 이상	9.1	-
	1개국 이상	3.8	-
전체 참가자 수	400명 이상	8.3	8.3
	300명 이상	32.6	26.5
	200명 이상	29.5	27.3
	100명 이상	21.2	25.8
	50명 이상	8.3	12.1
외국인 참가자 수	200명 이상	9.1	8.3
	150명 이상	3.8	9.1
	100명 이상	30.3	31.1
	50명 이상	42.4	36.4
	10명 이상	14.4	15.2
개최 기간	5일 이상	3.8	3.0
	4일 이상	2.3	2.3
	3일 이상	33.3	21.2
	2일 이상	48.5	54.5
	1일 이상	12.1	18.9

주: a: 참가국 5개국 이상, 전체 참가자 수 300명 이상, 외국인 참가자 수 100명 이상, 개최 기간 3일 이상

b: 외국인 참가자 수 150명 이상, 개최 기간 2일 이상

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방향

①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 시점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 시점은 ‘2022년 상반기 중(지금으로부터 1.5년 후)’(36.4%)와 ‘2021년 하반기 중(지금으로부터 1년 후)’(32.6%)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 이어, 2022년 하반기 중(지금으로부터 2년 후)’(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별 분석 결과, 정부/공공과 학계 전문가는 ‘2022년 상반기 중(각각 40.8%, 34.1%)’, 업계 전문가는 ‘2021년 하반기 중(38.1%)’에 국제회의 개최가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4〉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 시점

(단위: 건, %)

문항	전체		정부/공공		학계 전문가		업계 전문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21년 상반기 중	4	3.0	2	4.1	1	2.4	1	2.4
2021년 하반기 중	43	32.6	17	34.7	10	24.4	16	38.1
2022년 상반기 중	48	36.4	20	40.8	14	34.1	14	33.3
2022년 하반기 중	25	18.9	7	14.3	10	24.4	8	19.0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	12	9.1	3	6.1	6	14.6	3	7.1

② 국제회의산업 수요 정상화 시점

국제회의산업 수요 정상화 시점은 ‘2022년 하반기 중(지금으로부터 2년 후)’(3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21.2%), 2023년 상반기 중(지금으로부터 2.5년 후)’(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2022년 하반기 중’에 국제회의산업 수요가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학계 전문가의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34.1%)’ 응답이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15〉 국제회의산업 수요 정상화 시점

(단위: 건, %)

문항	전체		정부/공공		학계 전문가		업계 전문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21년 하반기 중	7	5.3	3	6.1	2	4.9	2	4.8
2022년 상반기 중	20	15.2	9	18.4	3	7.3	8	19.0
2022년 하반기 중	52	39.4	19	38.8	15	36.6	18	42.9
2023년 상반기 중	25	18.9	11	22.4	7	17.1	7	16.7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	28	21.2	7	14.3	14	34.1	7	16.7

③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분야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대면, 비대면, 혼합) 관련’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MICE산업 변화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의 결과로, 1순위와 1+2+3순위 모두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대면, 비대면, 혼합)’이 각각 85.6%, 97.7%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16〉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분야

(단위: 건, %)

문항	1순위		1+2+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관련	113	85.6	129	97.7
국제회의 유치 방식 관련	5	3.8	39	29.5
국제회의 활용 기술 관련	9	6.8	87	65.9
국제회의산업 구조 관련	-	-	42	31.8
국제회의 개최 장소 및 시설 관련	2	1.5	55	41.7
국제회의 마케팅 홍보 관련	3	2.3	34	25.8

④ 온/오프라인 행사 형태 대체 정도

향후 국제회의의 개최 시 온라인 형태가 기존의 대면방식 오프라인형태의 국제회의 형태를 얼마나 대체할 것 이라고 예상하십니까?에 대한 평점은 3.70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대면방식 오프라인 형태의 국제회의의 상당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이다 의견이 71.9%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4-17〉 온/오프라인 행사 형태 대체 정도

(단위: %, 점)

문항	전혀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상당히 대체될 것이다	매우 많이 대체될 것이다	평점
향후 국제회의의 개최 시 온라인 형태가 기존의 대면방식 오프라인형태의 국제회의형태를 얼마나 대체할 것 이라고 예상하십니까?	0.8	12.9	14.4	59.8	12.1	3.70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전혀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5: 매우 많이 대체될 것이다) (N=132)

⑤ 온라인/하이브리드 정책 지원 필요성

하이브리드 형태 등의 온라인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점은 평점 4.19점으로 나타나 개최방식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온라인/하이브리드 정책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문항	전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보통 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점
하이브리드 형태 등의 온라인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3.8	9.8	43.9	40.9	4.19

주: Likert형 5점 척도 측정(1: 전혀 불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N=132)

라.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성별의 경우, 남성 63.6%, 여성 36.4%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의 경우 40대(40.9%), 50대(33.3%), 30대(18.9%), 20대(4.5%), 60대 이상(2.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분야의 경우 정부/공공 37.1%, 학계 전문가 31.1%, 업계 전문가 31.8%로 나타났고, 관광분야 근무경력은 10~20년 미만(31.8%), 20년 이상(20.5%), 1~2년 미만(18.9%), 2~5년 미만(15.1%), 5~10년 미만(1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응답자 특성

(단위: 건,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84	63.6
	여성	48	36.4
연령대	20대	6	4.5
	30대	25	18.9
	40대	54	40.9
	50대	44	33.3
	60대 이상	3	2.3
근무분야	정부/공공	49	37.1
	학계 전문가	41	31.1
	업계 전문가	42	31.8
관광분야 근무경력	1~2년 미만	25	18.9
	2~5년 미만	20	15.1
	5~10년 미만	18	13.6
	10~20년 미만	42	31.8
	20년 이상	27	20.5

3. 이해관계자 집단 간 차이 분석

가.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전반적 인식

①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에 대한 문항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는 내용에서는 업계 전문가가 비교적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계 전문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 집단간 차이 분석

(단위: 점)

구 분	집단	평점	유의수준	결과
한국 경제 및 지역 산업 발전 견인	정부/공공	3.84	.078	-
	학계 전문가	3.83		
	업계 전문가	3.50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 증대	정부/공공	3.92	.180	-
	학계 전문가	3.88		
	업계 전문가	3.60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	정부/공공	4.18	.015*	L, H
	학계 전문가	4.37		H
	업계 전문가	3.86		L
국제회의 개최의 지역 경제파급 증대	정부/공공	3.98	.230	-
	학계 전문가	3.83		
	업계 전문가	3.67		
국제회의 도시(지자체) 육성	정부/공공	3.84	.359	-
	학계 전문가	4.02		
	업계 전문가	3.74		
국제회의 산업 생태계 강화	정부/공공	3.76	.378	-
	학계 전문가	3.54		
	업계 전문가	3.50		

② MI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

MI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항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회의’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는 내용에서는 정부/공공이 비교적 기업회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계 전문가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M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 집단간 차이 분석

(단위: 점)

구 분	집단	평점	유의수준	결과
국제회의	정부/공공	3.78	.088	L, H
	학계 전문가	3.88		H
	업계 전문가	3.50		L
인센티브관광	정부/공공	3.51	.228	-
	학계 전문가	3.49		
	업계 전문가	3.19		
기업회의	정부/공공	3.41	.011*	H
	학계 전문가	2.88		L
	업계 전문가	3.07		L, H
전시	정부/공공	3.49	.464	-
	학계 전문가	3.47		
	업계 전문가	3.26		
축제 및 이벤트	정부/공공	3.37	.587	-
	학계 전문가	3.20		
	업계 전문가	3.21		

나.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현황

①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에 대한 문항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는 내용에서는 업계 전문가가 비교적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계 전문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

(단위: 점)

구 분	집단	평점	유의수준	결과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정부/공공	4.43	.662	-
	학계 전문가	4.34		
	업계 전문가	4.29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공공	4.20	.946	-
	학계 전문가	4.24		
	업계 전문가	4.19		
국제회의 업계 및 인력 지원	정부/공공	4.16	.967	-
	학계 전문가	4.15		
	업계 전문가	4.12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정부/공공	4.02	.005*	L, H
	학계 전문가	4.27		H
	업계 전문가	3.69		L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정부/공공	4.37	.358	-
	학계 전문가	4.12		
	업계 전문가	4.26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정부/공공	4.33	.145	-
	학계 전문가	4.20		
	업계 전문가	3.98		

②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문항에서 정부/공공은 부정적 집단, 학계 전문가는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문항에서 업계 전문가는 부정적 집단, 정부/공공과 학계 전문가는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4-23〉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

(단위: 점)

구 분	집단	평점	유의수준	결과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정부/공공	3.59	.292	-
	학계 전문가	3.71		
	업계 전문가	3.43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공공	3.51	.057	L, H
	학계 전문가	3.56		H
	업계 전문가	3.14		L
국제회의 업계 및 인력 지원	정부/공공	3.22	.133	-
	학계 전문가	2.88		
	업계 전문가	2.88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정부/공공	3.33	.027*	H
	학계 전문가	2.78		L
	업계 전문가	3.02		L, H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정부/공공	3.20	.028*	H
	학계 전문가	3.29		H
	업계 전문가	2.76		L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정부/공공	3.22	.125	-
	학계 전문가	3.29		
	업계 전문가	2.90		

다.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문항에서는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 단기간이 대부분으로 활용 효과가 크지 못하다’,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지원 우선순위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 효율성이 낮다’, ‘정책 지원의 수혜자가 한정적이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실효성이 낮다’ 등의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발생한 모든 내용에서 학계 전문가는 비교적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 단기간이 대부분으로 활용 효과가 크지 못하다’라는 문항에서는 정부/공공이 부정적 집단, 학계 전문가가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라는 문항에서는 정부/공공이 부정적 집단, 학계 전문가가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원 우선순위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 효율성이 낮다’ 문항에서는 정부/공공이 부정적 집단, 학계 및 업계 전문가가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 지원의 수혜자가 한정적이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실효성이 낮다’ 문항에서는 정부/공공이 부정적 집단, 학계 전문가가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4-24〉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

(단위: 점)

구 분	집단	평점	유의수준	결과
정책지원 체계(법령 등)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정부/공공	3.00	.294	-
	학계 전문가	3.29		
	업계 전문가	3.21		
정책 지원 절차나 과정이 불명확하다	정부/공공	2.78	.081	L
	학계 전문가	3.12		L, H
	업계 전문가	3.24		H
정책의 지원 대상이 분산되어 중복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정부/공공	3.12	.080	L
	학계 전문가	3.56		H
	업계 전문가	3.19		L, H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 단기간이 대부분으로 활용 효과가 크지 못하다	정부/공공	3.29	.011*	L
	학계 전문가	3.90		H
	업계 전문가	3.57		L, H

구 분	집단	평점	유의수준	결과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정부/공공	3.16	.002*	L
	학계 전문가	3.85		H
	업계 전문가	3.40		L, H
지원 우선순위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 효율성이 낮다	정부/공공	3.04	.006*	L
	학계 전문가	3.63		H
	업계 전문가	3.43		H
정책 지원의 수혜자가 한정적이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실효성이 낮다	정부/공공	3.04	.045*	L
	학계 전문가	3.59		H
	업계 전문가	3.40		L, H

라.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한 문항에서는 ‘국제회의 관련 거버넌스 확대(조직 확대 등)’, ‘국제회의 관련 통계 개선(데이터 공유 등)’ 등의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발생한 모든 내용에서 학계 전문가는 비교적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업계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제회의 관련 거버넌스 확대(조직 확대 등)’라는 문항에서는 업계 전문가가 부정적 집단, 학계 전문가가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회의 관련 통계 개선(데이터 공유 등)’이라는 문항에서는 업계 전문가가 부정적 집단, 학계 전문가가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4-25〉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단위: 점)

구 분	집단	평점	유의수준	결과
국제회의 정의 및 명칭 개선 (회의, MICE 등)	정부/공공	3.65	.165	-
	학계 전문가	3.73		
	업계 전문가	3.33		
국제회의 유형 확대 (이벤트, 비대면회의의 포함 등)	정부/공공	4.06	.169	-
	학계 전문가	4.20		
	업계 전문가	3.86		
국제회의 지원 기준 개선 (참가자수, 국내 등)	정부/공공	4.06	.716	-
	학계 전문가	4.10		
	업계 전문가	3.95		

구 분	집단	평점	유의수준	결과
국제회의 지원 절차 및 과정 개선 (입찰 공모 등)	정부/공공	3.73	.512	-
	학계 전문가	3.90		
	업계 전문가	3.69		
국제회의 지원 대상 확대 (연관 업종, 창업자 등)	정부/공공	4.06	.441	-
	학계 전문가	4.07		
	업계 전문가	3.86		
국제회의 유형별 지원 금액 확대 (액수, 횟수 등)	정부/공공	4.22	.333	-
	학계 전문가	4.02		
	업계 전문가	4.00		
국제회의 관련 거버넌스 확대 (조직 확대 등)	정부/공공	4.04	.009*	L, H
	학계 전문가	4.32		H
	업계 전문가	3.74		L
국제회의 시설 및 종류 확대 (시설 지정 등)	정부/공공	3.90	.469	-
	학계 전문가	3.68		
	업계 전문가	3.76		
국제회의 관련 통계 개선 (데이터 공유 등)	정부/공공	4.02	.001*	L, H
	학계 전문가	4.39		H
	업계 전문가	3.67		L
국제회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 (근무 여건 등)	정부/공공	3.94	.562	-
	학계 전문가	4.15		
	업계 전문가	4.05		

마. 온/오프라인 행사 형태 대체 정도

‘향후 국제회의 개최 시 온라인 형태가 기존의 대면방식 오프라인형태의 국제회의 형태를 얼마나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공공과 업계 전문가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학계 전문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

(단위: 점)

구 분	집단	평점	유의수준	결과
향후 국제회의 개최 시 온라인 형태가 기존의 대면방식 오프라인형태의 국제회의형태를 얼마나 대체할 것 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정부/공공	3.59	.046*	L
	학계 전문가	3.98		H
	업계 전문가	3.55		L

제3절 주요결과 및 시사점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절차 및 방식과 산업발전에 대한 의견은 모두 평점 3점(보통) 이상으로 국제회의산업 정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는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평점 4.14점)’, ‘국제회의 도시 육성(평점 3.86점)’, ‘국제회의 개최의 지역 경제파급 증대(평점 3.83점)’ 순으로 국제회의 개최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효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회의 산업 생태계 강화(평점 3.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국제회의산업 정책 효과에서는 국제회의 산업의 양적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높은 반면, 국제회의산업 생태계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MI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은 ‘국제회의(평점 3.72점)’가 타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항목별 중요도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평점 4.3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평점 4.26점)’과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평점 4.2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항목별 추진 만족도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평점 3.5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평점 3.41점)’과 ‘국제회의 산업 전담 조직 지원(평점 3.1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책 중요도 대비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 평균 대비 각 항목의 추진 현황을 진단을 위한 IPA 결과 핵심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속 유지해야할 정책은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과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나타났고, 추진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집중 개선 노력이 필요한 정책은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이며, 정책 사업 목표의 중요도 및 실행 가치의 재설정 또는 혁신이 필요한 정책은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국제회의 업계 및 인력 지원’, ‘국제회의산업 관련 지식·통계 연구 지원’으로 나타났다.

〈표 4-27〉 국제회의산업 정책 전반적 인식 요약

구분	내용
국제회의산업 정책인식	•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영향(평점 3.85점)
	•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절차 및 방식(평점 3.40점)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	• 1순위: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평점 4.14점)
	• 2순위: 국제회의 도시(지자체) 육성(평점 3.86점)
	• 3순위: 국제회의 개최의 지역 경제파급 증대(평점 3.83점)
MI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	• 국제회의(평점 3.72점) > 인센티브 관광(평점 3.40점) > 전시(평점 3.39점)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	• 1순위: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평점 4.36점)
	• 2순위: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평점 4.26점)
	• 3순위: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평점 4.21점)
국제회의산업 정책 만족도	• 1순위: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평점 3.58점)
	• 2순위: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평점 3.41점)
	• 3순위: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평점 3.14점)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단기간으로 활용·효과 미흡(평점 3.57점)’,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흡(평점 3.45점)’, ‘지원 순위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 효율성 낮음(평점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주된 원인으로는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부족(28.8%)’과 ‘추진 거버넌스 체계 한계(28.0%)’가 약 20% 이상을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 추진에 있어 지원 규모와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과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8〉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이슈 요약

구분	내용
국제회의산업 정책 주요 문제점	• 1순위: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단기간으로 활용효과 미흡(평점 3.57점)
	• 2순위: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흡(평점 3.45점)
	• 3순위: 지원 순위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 효율성 낮음(평점 3.35점)
국제회의산업 정책 문제점의 주된 원인	• 1순위: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부족(28.8%)
	• 2순위: 추진 거버넌스 체계 한계(28.0%)
	• 3순위: 유형별 지원 규모 부족(18.2%)

국제회의산업 지원/제도와 정책수립/집행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국제회의 유형별 지원 금액 확대’, ‘국제회의 유형 확대’, ‘국제회의 지원 기준 개선’ 등 지원 금액, 유형,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결과는 ‘국제회의 지원 기준 개선(전체의 38.6%)’과 ‘국제회의 지원 유형 확대(전체의 35.6%)’, ‘국제회의 지원 대상 확대(전체의 35.6%)’ 등 지원 강화 부분과 ‘국제회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전체의 37.1%)’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된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결과와도 일관되게 나타나 정책 지원 대상과 범위 및 기준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국제회의산업 명칭 의견으로는 ‘마이스산업(66.9%)’이 가장 높지만, 현행 ‘국제회의산업 유지(45.4%)’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향후 마이스산업의 다양한 유형을 제도권 안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의산업 기준 개선의견은 참가국 수, 외국인참가자 수, 개최기간에 있어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개선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소규모 국제회의 증가로 인한 기준 완화’, ‘개최기간 일수의 무의미’ 등이 나타났다.

〈표 4-29〉 국제회의산업 정책 개선 의견 요약

구분	내용
국제회의산업 지원/제도 개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국제회의 유형별 지원 금액 확대(평점 4.09점) • 2순위: 국제회의 유형 확대, 국제회의 지원 기준 개선, 국제회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각각 평점 4.04점)
국제회의산업 정책수립/집행 개선의견 (1+2+3순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국제회의 지원 기준 개선(38.6%) • 2순위: 국제회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37.1%) • 3순위: 국제회의 지원 유형 확대, 국제회의 지원 대상 확대(각각 35.6%)
국제회의산업 명칭 의견 (1+2+3순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마이스산업(66.9%) • 2순위: 국제회의산업 유지(45.4%) • 3순위: 회의 및 컨벤션산업(40.8%)
국제회의산업 기준 개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국 수: 3개국 이상(45.5%) - 전체 참가자 수: 300명 이상(32.6%) - 외국인 참가자 수: 50명 이상(42.4%) - 개최 기간: 2일 이상(48.5%) • 국제기구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가자 수: 200명 이상(27.3%) - 외국인 참가자 수: 50명 이상(36.4%) - 개최 기간: 2일 이상(54.5%)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 시점은 ‘2022년 상반기 중(36.4%)’, 국제회의산업 수요 정상화 시점은 ‘2022년 하반기 중(39.4%)’ 응답이 가장 높아, 국제회의산업이 이전과 같이 정상화 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코로나19로 국제회의산업에서 변화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분야는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 관련(97.7%)’, ‘국제회의 활용 기술 관련(65.9%)’, ‘국제회의 개최 장소 및 시설 관련(41.7%)’ 순으로 비대면 방식의 국제회의 활성화 및 화상,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제회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른 산업계가 인식하는 온라인 행사의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대체 정도는 평점 3.70점으로 아직 향후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온라인 행사 및 하이브리드 행사 개최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은 평점 4.19점으로 대부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방식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바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개최 방식 변화에 대응한 정책지원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0〉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방향 요약

구분	내용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 시점	• 1순위: 2022년 상반기 중(36.4%)
	• 2순위: 2021년 하반기 중(32.6%)
	• 3순위: 2022년 하반기 중(18.9%)
국제회의산업 수요 정상화 시점	• 1순위: 2022년 하반기 중(39.4%)
	• 2순위: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21.2%)
	• 3순위: 2023년 상반기 중(18.9%)
코로나19로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분야 (1+2+3순위 기준)	• 1순위: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 관련(97.7%)
	• 2순위: 국제회의 활용 기술 관련(65.9%)
	• 3순위: 국제회의 개최 장소 및 시설 관련(41.7%)
기타	• 온/오프라인 행사형태 대체 정도(평점 3.70점)
	• 온라인/하이브리드 정책 지원 필요성(평점 4.19점)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제5장

국제회의산업 정책 관련 이슈와 정책 과제

제1절 국제회의산업 정책 이슈 진단과 분석

1. 국제회의산업 정책 이슈 진단

본 연구는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제회의산업 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국제회의산업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국제회의산업 관련 정책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정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에 대한 내외부적 인식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영향 등 향후 국제회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하는가? 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산업 현황과 제도 분석, 예산 실태 분석과 성과와의 영향,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의 산업 규모 분석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제회의산업 정책방향과 제도’, ‘국제회의 지원체계와 방식’, ‘국제회의 산업육성 체계와 방식’ 3가지 항목별로 이슈를 도출하였다.

가. 국제회의산업 정책 방향과 제도 이슈

첫째, 국제회의산업 육성 가치 정립과 정책목표 재설정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 간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의 경우 대규모 외래객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유치된 국제회의대행 개최에 집중되었고, 산업 구조 역시 유치된 국제회의로부터 파생되는 수익 창출에 맞추어 발전하였다. 이러한 국제회의산업구조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지원의 ‘편협적’ 또는 ‘수동적’, 정부의 ‘의존적’ 형태를 보인다고 우려하며, 해외 국제기구 및 단체로부터 발생한 국제회의 유치와 더불어 국내 지역 기반으로부터 발생한 국제회의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국제회의산업 구조의 ‘균형적’, ‘선진적’,

‘주도적’ 형태를 가지게 한다고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목표를 ‘유치에서 개최로’, ‘타산업 보조 기능에서 타산업 육성 기능으로’ 전환하는 ‘국가 및 산업발전 전략형 마이스 육성’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혼재된 법제도 체계와 및 통계 정비에 대한 이슈가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물론,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정부 및 기관들 모두 국제회의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법적 용어인 ‘국제회의’ 명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MICE’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M.I.C.E.에 개별 유형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저마다 각각에 대한 개념 정의와 기준이 상이하여 효율적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MICE분야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 분석 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기준의 산업 수요 규모와 관련 업계 실태를 분석하기에 서로 기준이 상이하거나 마땅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제한적인 산업의 수요 규모 분석과 실태파악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MICE 유형별 특성을 검토하여 재정의 하고, 국제회의 유형 및 기준에 MICE에 대한 영역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과 제도와 통계조사를 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책 실효성 강화에 대한 이슈가 있다. 전국 정부/공공분야와 학계,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 분야별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요도 대비 상당히 만족도는 낮은 수준의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목별 추진 중요도 대비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집중 개선 노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이 제시되었다. 정책 사업 목표의 중요도와 실행가치의 재설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국제회의 업계 및 인력 지원’, ‘국제회의산업 관련 지식·통계 연구 지원’ 등이 제시되어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여 조직과 인력 및 연구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제회의 지원체계와 방식 이슈

첫째,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육성 관련 재정 투입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이슈가 있다. 전국 정부/공공분야와 학계,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국제회의산

업 육성 정책의 주요한 문제점은 '소규모 지원으로 인한 효과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개최 지원(63.5%)은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만 산업부분 지원(8.1%)은 이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으로 '지원 규모 증대', '지원 유형 확대', '지원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지원기준과 관련해서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외 여건과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의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이와 연계한 지원기준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예산 투입과 성과 영향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 '전담조직 지원' 관련 예산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국제회의의 전담조직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요구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회의산업 지원 재정 투입에 있어 중앙과 지자체의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집행성과 및 효과 검증 체계 구축 필요하다는 이슈도 제기되었다.

둘째, 정책 지원체계 개선 필요에 대한 이슈가 있다. 특히, 단기 직접 지원에서 장기 간접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중앙/지방/공사/협·단체로 분산된 소규모 지원에서 주체별 역할 재정립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프라 예산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앙과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이 수반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회의산업 지원 기준과 달리 지역별 각 컨벤션뷰로에서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관광공사와 지역컨벤션뷰로에 각각 지원 신청을 하는 복잡한 신청과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의 유치를 주도하는 컨벤션뷰로의 경우 예산 및 인력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국제회의기획업(PCO)의 장기적인 수익모델 창출 및 유치 전문성 강화 지원 측면에서 지역컨벤션뷰로와 국제회의기획업의 국제회의 유치 협업 체계 구축 지원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에 참여한 국제회의기획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유치와 개최를 연결하여 장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셋째, 국내외 국제회의산업의 여건 변화 대응 이슈가 있다. 세계 사회와 경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19'는 국제회의산업 여건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가트렌드이다. 국제회의산업 업계 의견 분석을 통해 향후 국제회의산업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의 변화', '국제회의 개최 활용 기술의 변화', '국제회의 개최 장소 및 시설 관련 변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국제회의 개최 형태가 대면 오프라인 국제회의 형태를 상당부분 대체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국제회의' 개최 증대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로 및 방역시스템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와도 연결되어 향후 국제회의산업 정책에 있어 지속 가능성 확보 측면의 고려가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체계와 방식 이슈

첫째, 국제회의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인식 차이에 대한 이슈가 있다.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 인식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정부의 인식이 낮게 나타난 반면, 학계와 업계의 문제점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지원의 효율과 효과 측면의 문제점과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책 지원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실효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정부보다 학계와 업계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나 나타났다. 이에 국제회의산업 정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국제회의산업 발전 지원 방식에 있어 산업 생태계 강화와 국가/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전인하는 측면에서의 개선 이슈가 있다. 국제회의산업 정책으로 인한 국제회의 개최 수 및 경제 파급 증대를 통해 국내 지자체 육성에 기여한 효과가 있었다는 인식이 큰 반면, 국제회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한국 경제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전인에 기여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E산업 유형별 정책성과 효율성에서는 국제회의를 제외한 인센티브 관광과 기업회의, 전시, 축제 및 이벤트 분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50%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기업회의는 가장 적은 정책성과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기업회의를 생태계 강화와 국가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과 연계하여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회의산업계의 생존과 혁신의 공존이 필요하다. 먼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생존을 지원하고, 그 다음 생존한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단계별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 시점은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였고, 수요의 정상화 시점은 2022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 1~2년 정도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전까지 국제회의산업계의 생존과 상생을 위한 노력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준비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 규모의 정부 및 학협회 회의 공급 규모의 유지는 국제회의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제 정부형 마이스 개최 통합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체 공급 수준 통합관리와 국제회의산업계의 기본적인 생존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제회의산업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이슈가 있다. 정부가 4차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구축’을 비전 제시하며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업계의 경영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매출액은 2018년 기준 3년 평균 약 10% 정도의 하락추세이며 5억 원 미만 매출액의 사업체가 전체의 약 52%, 종사자가 10명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회의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국제회의산업 정책 이슈에 따른 개선방향

본 연구는 3가지 항목별 이슈 진단결과를 토대로 [그림 5-1]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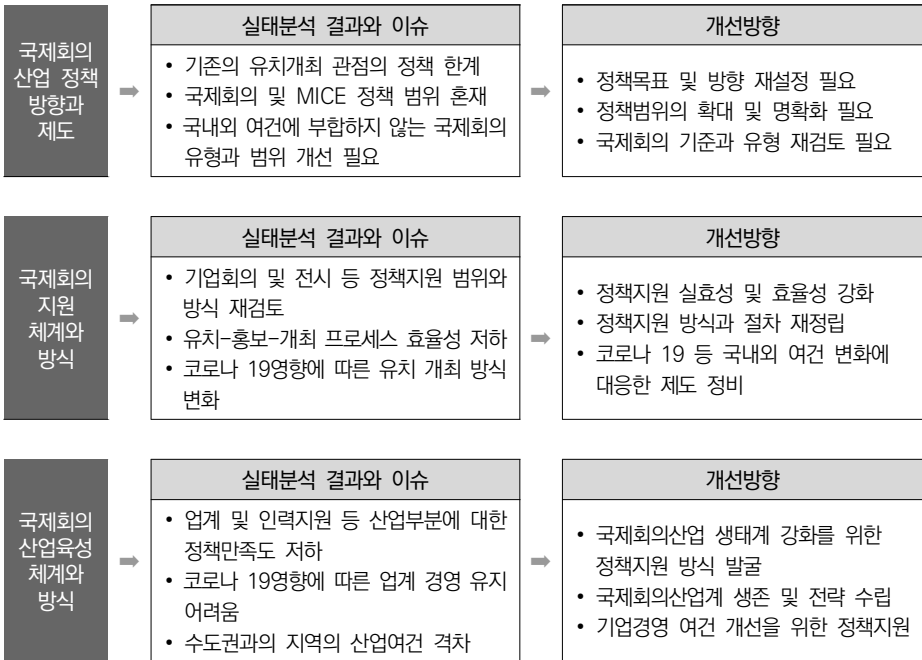
첫째, 그동안 국제회의산업 양적 성장을 위해 정부는 유치개최를 중심으로 지원을 주로 해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19 영향 및 산업 연건 변화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양적 성장에 한계에 대해 정책변화 요구가 있다. 이와 연계하여 현 국제회의의 유형과 관련 기준개선과 관련 정책 범위의 확대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목표 및 방향에 대한 재설정과 국제회의

유형과 기준 및 정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 국제회의 정책 지원체계는 유치-개최-지원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원 체계와 형태, 방법 등에 따라 지원 수혜자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어 단계별 지원방식이나 절차와 규모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영향을 등으로 고려하여 지원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현실화 이슈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슈진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지원 예산에 대한 실효성과 효율성 강화가 요구되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지원방식과 절차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정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책 지원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실효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업계에서 높게 나타나며 정부와 산업계의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종식 이전까지 업계의 생존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지역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의 산업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 발굴 등이 요구된다.

[그림 5-1] 국제회의산업 실태분석 결과와 개선방향



제2절 국제회의산업 정책과제

1. 국제회의산업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내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고 국제회의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켜 각종 정보의 교류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시키고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목적 하에 법률 제정 이후 정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회의산업 국내외 여건은 국가 간 국제회의 유치경쟁 심화 되고 참가인원은 감소추세에 있어 기존의 유치와 개최 중심의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산업의 중심이 되는 국제회의기획업은 국내 대행업무 중심의 사업영역에 머물러 대형·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전문인력의 유출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영향으로 인하여 2020년도 예정행사의 약 79.8%가 취소·연기(문화체육관광부, 2020)되어 국제회의산업 상생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선 이슈와 개선방향을 토대로 정책목표와 가치의 재설정과 이에 따른 방향과 과제를 [그림 5-2]와 같이 제시하였다.

국제회의산업의 태동기와 성장기 관점에서 기존 정책 추진은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서 구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수의 지역에 국제회의 도시 지정과 컨벤션 센터 건립 등 전국국가적 차원의 산업육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과 2017년에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회의산업의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 추진 방향도 이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재 국제회의산업이 당면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 사회·문화·정치·경제 환경 변화를 상징하는 ‘뉴노멀 시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필요성 및 가치에 대한 재논의와 관련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된다.

국내 국제회의산업계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국제회의산업 선진국이나 선진도시들이 국제회의산업이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로부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를 넘어 국제사회의 지식과 자본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향력 경제(Influence economy)’로 진화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 역시 국제회의 개최의 핵심 가치를 국제회의 주제와 관련한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타산업 보조 기능 → 타산업 육성 기능으로’ 발전해야 함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과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 제약은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만남과 교류’를 통한 영향력 경제측면의 국제회의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 개최 장소 선정 및 대면 참가 의사 결정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목표를 해외 국제기구 주최자를 기반으로 ‘유치된 국제회의의 국내 개최에 따른 외국인 입국 증대’의 기존 정책 이외 국내 지역 산업 및 여건을 기반으로 ‘발굴·개발된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화하는 ‘국가 및 산업발전 전략형 국제회의산업 육성’으로 정책 중심의 축과 목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림 5-2] 국제회의산업 정책목표와 과제



2. 국내외 여건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과제

본 연구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의 대응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 등 국제회의산업 정책 위기대응력을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정의와 기준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예산투입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중앙과 지역의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산업발전 분야 지원 등에 대한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가. 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 조정 및 유형 다양화

국제회의를 규정하는 기준은 회의 성격이나 외국인 참가국 및 참가자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를 의미하며 국제회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법제정 당시(1997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회의 개최건수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발표하는 기관의 UIA나 ICCA 등에 따르면 국제기구는 참석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상 국제회의는 최소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회의 유치개최나 산업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다. 앞선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최근 코로나 19영향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의 변화’, ‘국제회의 개최 장소 및 시설 관련 변화’ 의견이 제시되면서 참가 방식 등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 국제회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기준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앞선 전문가 조사 의견을 살펴보면 참가국 수, 외국인참가자 수, 개최기간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현행보다 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참가국 수는 3개국 이상(45.5%), 외국인 참가자 수는 50명 이상(42.4%), 개최 기간의 경우 2일 이상(48.5%)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여 소규모와 비대면 국제회의에 대한 개최 지원 근거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 개선방안과 유치개최 효율성 측면의 영향 등과 정책방향

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장기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단기방안으로 국제회의 특성상 감염병 및 재난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참가가 어려운 경우에 개최 등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2개 유형과 기준은 유지하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국제회의의 참가자 수 및 개최방식 및 지원기한 등의 기준을 별도 고시하여 외부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방안으로는 현재 2개의 국제회의 종류와 규모에서 참가국 수와 외국인참가자 수를 국제기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마이스 산업에 대한 현 정책적 영역에 대한 근거 부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정책유형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명시하여 지원의 근거와 효율성 제고 및 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회의와 마이스 개념과 기준이 상이하여 개념 중복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이나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추진에 있어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의서, 2019). 따라서 국제회의산업 육성가치 및 정책목표 재설정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마이스 개별 항목에 대한 산업육성 차원에서 현재 ‘국제회의’ 명칭과 ‘MICE’ 명칭의 혼재에 대한 일원화 및 법률 내 규정화하는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의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개선안은 실제 지원 집행 및 수혜 측면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국제회의 및 마이스 유형별 행사 개최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등을 통해 개선 방향과 세부기준을 도출하여 주최자, 개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측면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1〉 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 개선 방향(안)

구분			방향	세부 내용
개선 (안)	[단기]		재난재해시 지원가능한 근거와 종류 추가	- 시행령 3호에 감염병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준을 완 화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정하여 기준과 기한을 별도 제시
	[장기]	1안	전체 기준 완화	- 기존 2가지 유형은 유지 하되 외국인참가자수(50명)와 참 가국수(2개국) 및 개최일수(2일)를 완화 * 세부 연구 등 통한 완화 수준 제시 필요
		2안	국제회의 종류에 마이스 유형 근거 마련	- 단기 예외 조항 3호 신설 이후 시행령 4호를 신설하여 시 행령 1,2, 3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회의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기준(MICE 유형 및 기준)을 별도 명시

나. 정책위기 대응력 강화를 통한 산업 성장동력 기반 마련

사람의 '만남'과 '교류'를 전제로 한 국제회의산업은 감염병 및 재난재해 등 외부 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향후 유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실효성 있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야기된 현재의 국가 재난 상황은 국제회의산업 관련 기업의 생존의 위기이자,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위기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97.9% 방한 외래관광객 감소라는 2015년 메르스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충격을 관광산업과 국제회의산업에 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가 간 이동제한, 14일간의 격리조치는 외국인인 물론 내국민의 국제관광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고, 철저한 방역 여부와 상관없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예정된 행사의 대부분은 전격 취소되거나, 연기 후 취소 또는 팬데믹 종식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는 현실이다. 국제회의 개최 취소로 인해 국제회의 시설업과 기획업은 물론 연계된 관광 서비스업의 수익 창출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급기야 폐업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을 병행하는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디지털 활용 항목 지원 및 참가자 확대를 위한 등록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산업생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회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항목 확대, 국제회의 개최 특별지원금 확대, 국제회의기획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회의 유치 특별지원, 기업회의 및 포상관광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시와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고용유지지원금, 고충센터운영 등의 특별 구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을 지지하는데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유치한 국제회의 연기를 결정한 경우에도 산업의 특성 상 연기를 결정한 시점에 이미 다른 국제회의들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개최가 어려워 현재의 경제적 손실을 코로나19 종식 이후 추가적으로 수익화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 향후 국제회의산업 정상화까지 최소 2년의 시간이 예상되는 현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제회의산업 관련 법률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의 관련 사안 발생 시 산업 내 관련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관련 조항 및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연계하여 감염병, 재난, 재해 발생시 국제회의 행사는 계약기간이나 피해금액이 산

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하여 손실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위기에 따른 상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기능 강화 및 전담기관 지정과 위기 단계별 피해 기업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응조치 지침 등의 위기상황에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비한 국제회의산업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여력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별도의 위기·재난기금 설립 근거와 운영 제도 검토가 요구된다.

끝으로 현재 국제회의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기준 안내(문체부)’, ‘마이스행사 방연관리 가이드라인(한국PCO 협회)’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5)’ 세분화 단계에 따른 마이스 유형별 개최 및 참가자 세부기준(비대면 포함 등)과 대응태세 상황 측정 등의 세부적인 개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정책 지원 효율성 제고와 검증 체계 구축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대한 성과 증대와 효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유치 및 개최 지원 체계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재정 투입의 실제 성과 및 효과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시기와 기간, 규모와 방법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앞선 조사결과에서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의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소규모 지원으로 인한 효과 미흡’이며, 국제회의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의견으로 ‘지원 규모 증대’, ‘지원 유형 확대’, ‘지원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에 높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 분야 이외 유치개최 및 연계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 절차와 용도 등의 현황 재검토를 통한 정책 예산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회의 분야

5)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으로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임(보건복지부)

집행 예산규모를 파악하였으나 공공에서의 업계까지의 예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사업비와 매칭되거나, 공공의 예산을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실행, 사후 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의산업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최상위 정책부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하위정책 등 정부 수준에 따른 위계적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과 지역으로 연차별 단계적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는 정책 수립을 기반으로 종합 계획, 기본 계획, 실행 계획 등이 수립·추진하여, 지역의 부처장이나 자치단체장의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한 정책 사업 추진의 중단 및 지연, 변경과 같은 정책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국제회의산업육성 지원체계 전환 과제

국제회의산업 관련 기업의 생존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확대 측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확대의 필수 조건은 신규 국제회의 개최 증대이나 기존 유치 중심의 국제회의 수요 창출에 기반한 나눠먹기 형태의 공급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산업발전 전략형 국제회의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재설정 필요에 부합하면서, ‘국제회의산업 공급 혁신’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증대 구조를 만들어 근본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확대 및 육성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가. 국제회의 개최 역량 강화 및 지원 다양화

현재 국제회의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 개최 장소 선정 및 대면 참가 의사 결정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대면의 니즈가 커지면서 IT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행사는 MICE 산업에서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0). 이를 위해 국제회의산업 업계에서는 수준 높은 행사 개최를 위해 기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행사에 방문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들이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기본적인 기술사용 이외에도 갖춰야 할 것들이 많으며 특히, 인적노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ICE 산업에서 서비스는 행사 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만큼 e-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가 요구된다(한국관광공사, 2020). 따라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국제회의업을 대상으로 기획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회의기술 및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개발 등 국제회의 R&D 사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회의기술을 적용·활용한 국제회의의 기획 및 개최 지원 확대를 통해 한국형 첨단 마이스 행사 육성·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제회의 유치단계 - 해외홍보 단계 - 개최 단계별 정책에서 유치에 따른 대응 업무에서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의기획과 개최역량 강화 및 국내회의 육성 정책사업을 확대하여 '발굴·개발된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증대'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림 5-3] IT 기술을 접목한 주요 회의 기술

「주요 회의기술」

- 참가자 정보 데이터화로 현장 등록 편의제공: RFID 등록, 얼굴인식기술 등
- 온라인 기반 실시간 행사 정보제공과 네트워킹을 통한 참가 확대: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 소셜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킹 등
- 다양한 콘텐츠 활용 마케팅 전략의 다변화: VR·AR 마케팅 콘텐츠
- 개인화된 행사 정보제공 및 데이터 분석: RFID, 비콘 등 근거리 기술과 인공지능 활용
- 행사 통합관리 시스템: 온라인 메뉴 예약 및 관리시스템 등

자료: 윤은주(2019). 미팅 테크놀로지 기술동향 및 수요연구. 한국관광공사



〈홀로그램 토론〉



〈가상회의 플랫폼: 컨퍼런스홀〉

자료: 대한민국 MICE대상 시상식(좌), 제8회 국제협회연합(UIA) 아시아태평양 총회(UIA아태총회)

출처: MICE산업신문(<http://www.micepost.co.kr>)

수도권 이외 주요 지역의 다양한 국제회의시설업 개최공간에 온라인 화상 회의(웨비나), 홀로그램 촬영·송출 등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인원이 쌍방향 온라인 네트워크가 가능한 디지털 회의 공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의 국제회의업계의 공유 사용 지원 등의 시설 기능 강화방안도 요구된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국제회의 참가자의 성향, 관심도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제회의 기획, 고객 유치 마케팅, 수익률(ROI) 분석 등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컨벤션학과 등 관련 대학(원) 전공생, 국제회의업계 및 회의기술 분야 재직자, 경력자,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기술 콘텐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단계별 제공 등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뉴노멀 시대의 국제회의 기업 경영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개최 예정이던 국제회의의 취소 및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국제회의 관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큰 변화 양상이 예상되는 국제회의 개최 환경에서 국제회의 산업 관련 기업이 생존, 나아가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즉, 뉴노멀 시대에는 국제회의 기업 경영에 있어 생존과 혁신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우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다음 생존한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단계별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회의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은 변화무쌍한 국내외 환경에서 국제회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 정책이다.

국제회의산업계로부터 요구되는 기업 경영 여건 개선에는 공정거래 정착, 근무환경 개선, 인적 자원 전문성 강화이며, 이는 대부분 안정적 수익 구조 구축과 연결된다. 국제회의 업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국제회의 용역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및 보급과 같은 국제회의산업 공정거래 정착은 제4차 국제회의 기본계획의 9대 전략과제에도 포함되었으나, 아직 산업 내 도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회의 개최 수요 급감에 따라 경쟁 입찰제 하에서 국제회의 기획업의 과당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국제회의 용역 대가로 사용 중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는 국제회의 용역에 대한 현실적인 대가 기준으로 부적합

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표준가격제나 적정 수수료를 기준도 없어 국제회의의 용역 수수를 위한 업계 간 저가출혈경쟁과 불공정계약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마이스(MICE)분야 공정거래 지침(가이드라인)’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문제 해결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형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한 ‘뉴노멀 마이스(MICE)분야 공정거래 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국제회의의 주최자 대상의 수시 교육 및 국제회의의 기업 대상의 온·오프라인 정기 교육, 공정거래 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

국제회의의 기업 근무 환경 개선과 인적 자원 전문성 강화는 국제회의의 기업의 핵심 인력인 경력직 인력의 잦은 이직 및 이탈로 인한 경영비용 부담 증가와 전문성 축적 제한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리랜서 인력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 인력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통한 국제회의산업 노동환경 점검 및 불합리한 처우 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회의의 패러다임 변화로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역량의 다변화에 따른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된다.

앞서 제시한 공정거래 환경조성과 인력 전문성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의 보완 및 개선과제 이외 이전과는 다르게 리스크테이크에 의한 혁신과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벤처형 마이스 육성이나 마이스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M&A) 등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의 직접 지원이 아닌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에 따른 간접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기존 기업 창업방식과 유사한 정책 사업인 벤처형 국제회의의 개발 및 개최 지원 체계 구축은 국내 각 지역별로 육성 중인 전략산업 또는 지역만의 특화 자원과 연계된 신규 국제회의를 발굴 또는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K-컨벤션(K-MICE)’ 육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초점이 해당 국제회의의 개최 시의 연사 및 참가자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증대에 맞추어져 있다면, 벤처형 국제회의의 개발 및 개최 지원은 신규 국제회의의 발굴을 위한 국제회의산업과 타산업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에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벤처형 국제회의의 규모와 지원 기간을 구분하고 협력 체계 구축 수준을 타산업과의 단일 협력, 다중 협력 또는 국내 협력, 국제 협력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투자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허준, 2020). 국제회의산업은 하이브리드화 등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력 투입 중심의 실행 단계 비즈니스가 축소 또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제회의기획업계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사업발굴이 요구된다(손정미, 2020).

다. 민관협력 국제회의 거버넌스 강화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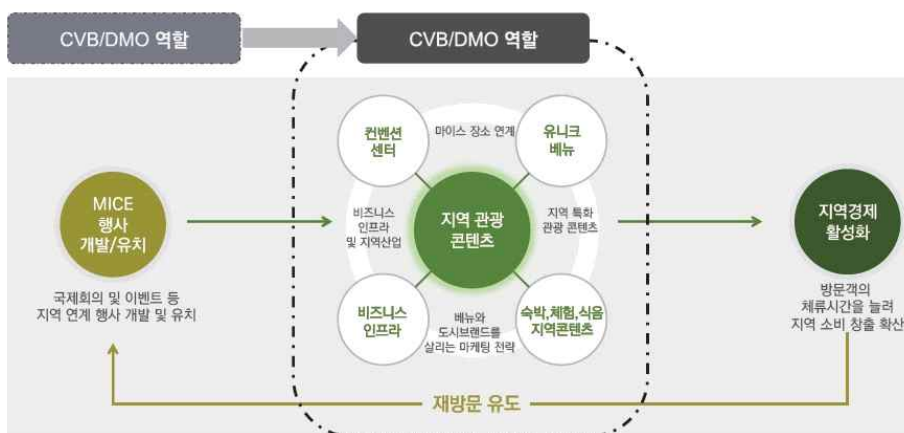
국제회의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현재의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의 문제점은 ‘정책 지원 효과 미흡’과 ‘추진 거버넌스 체계 미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부족’과 ‘추진 거버넌스 체계 미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양쪽 모두에서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현재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거버넌스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국가 국제회의 전담기구로 지정된 한국관광공사 MICE부로와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라는 3가지 큰 접근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코리아MICE부로와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는 각각 국제회의 유치·개최 활성화와 국제회의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부여받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와 한국PCO협회 경우는 민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MICE부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한국MICE산업발전협의회(Korea MICE Allian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지역관광공사를 포함한 중앙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과 국제회의 시설업, 기획업, 호텔업, 여행업, 학계 등이 참여한다. 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와 지역협력위원회로 구분되며, 각 지역은 지역 내 국제회의 공공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MICE육성협의회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중앙과 지역 MICE육성협의회와 국제회의 전담기구인 지역컨벤션부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

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컨벤션뷰로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차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이를 민간차원에서 보다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역 컨벤션뷰로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미국, 유럽 컨벤션뷰로들은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이형주 2020). 이제는 국제회의 행사의 유치지원 업무에서 벗어나 마이스 참가자들의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국제회의복합지구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컨벤션뷰로 내 MICE산업육성지원센터(가칭) 등을 설립하여 기존 지역의 홍보 기능과 창업 및 기업상담 등의 산업육성 기능과 유치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의 국제회의산업 역량강화 거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5-4] 국제회의의 CVB/DMO 역할 확대 방향(안)



자료: 이형주(2020), MICE 기업의 경쟁우위 전략(2020 MICE 정책포럼), 한국마이스관광학회

끝으로 최근 컨벤션센터, 호텔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 아닌,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행사 개최지의 문화와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니크메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0). 본래 메뉴 설립 목적과 달리 마이스 행사에 관련 시설 등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의 영역 확장과 마이스 개최지로서의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로써 다양한 메뉴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국제회의산업 정책추진 실태를 진단하고자 그 간 관성적으로 진단해 오던 연구 분석과 해석 방법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정부의 정책 실태를 진단하는 새로운 연구 프레임워크를 관광정책 연구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진단해 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 관련 지원제도, 법률 등 정책 추진 실태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관련 예산과 수요규모를 재분석하고 연도별 정책 변화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성과와 지원 제도 간 영향 관계 등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집행 기관 및 수요자 측면의 국제회의산업 정책 관련 인식조사를 시행하여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회의산업 관련 법제도와 산업현황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유형과 범위를 4개 분야로 재설정하여 예산과 규모 및 성과와의 영향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자료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국제회의산업 정책예산 항목과 규모를 도출하였다.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관련 정책 예산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약 3,28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과 광역자치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20년까지의 약 5년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MICE 인프라 구축이 약 10,063억 원(5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MICE 인프라 구축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부처 예산의 경우 5개년 누적의 경우 MICE 유치·개최 지원 예산의 약 6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5개년(2016~2020) 정책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MICE 인프라 구축 예산이 63.3%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존 MICE산업의 수요 규모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제회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계를 활용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수요규모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팅부분에서 약 1,240억 원, 컨벤션 부분에서 약 4조 3,488억 원으로 총 국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총 수요 규모는 약 4조 4,728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예산 및 성과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정부의 MICE산업 지원 예산이 MICE 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본 결과 6가지 MICE 산업의 지원예산 유형 중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은 MICE산업 주요성과변수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절한 계량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중 ‘MICE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MICE 전문정보 제공’ 예산이 성과 변수들과 지속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MICE 산업에서 정부의 지원 역할을 기존의 직접적인 지원인 유치개최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과 MICE 산업의 전문적인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지자체들 예산만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전담조직 지원이 높게 나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추진체계에 있어 지역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MICE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집행기관 및 수요자 측면의 국제회의산업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효과는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와 ‘국제회의 개최의 지역 경제파급 증대’ 순으로 국제회의 개최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효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산업 정책 중요도와 만족도는 모두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이 높게 나타났고, 정책 중요도 대비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단기간으로 활용·효과 미흡’,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흡’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회의산업의 정책방향과 제도, 지원체계와 방식, 산업육성체계와 방식으로 구분하여 이슈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개선방향 결과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의 역할을 기존 ‘타산업 보조 기능→ 타산업 육성 기능’으로 전환을 위해 ‘국가 및 산업발전 전략형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2개 분야 6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지금까지의 국제회의산업의 주요 정책 부문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산업 구조 역시 유치된 국제회의로부터 파생되는 수요가 떨어뜨리는 수익 창출에 맞추어 발전하여 의존적 형태를 보이는 경향이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산업의 구조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국제회의를 이루고 있는 산업 발전을 위한 대상과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에 대한 전국단위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실제 중앙과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대한 명확한 실태와 규모를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최자, 개최자 등의 개최금액과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와 연계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지원이 확대·축소가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매년 실태와 분석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미스 참가자 조사'와 연계하여 국제회의가 집중되는 시기에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의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과 지역의 공통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의 협력과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및 지역 의견수렴 시 지역 간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해서 중앙차원에서 일부조정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국가 전반에서는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지역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되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단위와 지역 간 목표가 상이하여 지역 간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중앙단위와 지역의 권역단위의 목표와 방향을 연계성 있게 설정하여 유치·개최 및 인프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부처 차원에서 5년마다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차원의 계획으로는 지역별 또는 회의유형별 유치개최 및 지역산업발전 전략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일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광역시 단위에서는 국제회의를 포함하여 마이스 전반의 예산확보를 위해 선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법정계획이 아닌 한계로 인하여 예산이 연동되지 못하여 실행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계획수립을 통한 실태 진단과 안정적인 정책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회의산업 조사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MICE산업통계, MICE참가자조사,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의된 국제회의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조사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통계조사 중심 사업으로는 국제회의산업 현안 및 국제적 동향 관련 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피해규모 산출시 국제회의기획업 이외 시설업 등에 대한 국제회의 취소·연기 및 매출액 영향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향후 관련 표본 및 정책범위 등에 대한 재설정과 상시 조사를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전반적인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외 국제회의 산업 최신 지식 및 정보를 수집하여 업계 등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UIA, ICCA 조사는 건수중심으로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조사시간이 필요한 MICE산업통계조사와 통합조사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 조사통계와 연계하여 회의개최 실적을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회의산업계의 생존과 혁신의 공존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회의의 개최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회의 공급 규모의 유지는 국제회의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국제회의산업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관광산업의 보조적 성격으로 추진할 것인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의 촉매제 또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것인지, 국가와 지역의 특화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측면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 이에 따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소 1~2년간의 국제회의산업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더욱 요구되며 적극적으로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산업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 한계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에 대하여 법제도와 예산 현황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크게는 관광정책분야에 있어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실태를 진단하는 연구의 틀을 모색해 봄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의 결과를 비교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회의 분야 집행 예산규모를 파악하였으나 공공에서의 업계까지의 예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본 연구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수행 방법에 있어 예산 실태, 수요규모 산정, 성과영향력 검토 및 인식조사 등 광범위하여 자치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대한 전수 조사적 성격과 전문가 협동연구를 통해 전문성 확보와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다만, 국제회의산업으로 추진되는 예산과 정책이 명칭이 일관성이 있지 않으며 지역의 경우 소관부서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광 또는 무역, 경제 부서로 분리되어 있어 실제 국제회의에 투입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광역시 및 시도의 경우 예산 세목 중 필요한 항목만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이 이루어진 점은 예산 비중 등에 일부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마이스산업 유형에 따라 주관부처가 달라 데이터 수집 한계로 제한적 데이터가 사용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중앙 및 지역예산, 유형별 지원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다양한 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 및 광역시의 예산을 토대로 가용 가능한 5개의 성과 데이터와의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향후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예산과 성과 데이터를 확보하여 국가 단위에서 국제회의 유형 전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마이스산업 경제 영향과 성과 분석’ 등의 성과측정 관련 심층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2016), 「정책교육 표준 교재」.
- 국회예산정책처(2012), 「환경분야 재정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 경기관광공사(2019), 「2019년 경기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
- 김동한·김하얀·김대관(2015), 수정된 IPA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수용
태세 개선 방안-인센티브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4(4), 145-159.
- 김철원·허준(2011), 한국 컨벤션 산업의 역사적 고찰, 「관광학연구」 35(10), 517-533.
- 신윤성·박광순·조은정·심우중(2013), 「로봇산업의 R&D 투자성과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4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박경열(2012), 「중앙 및 지방정부 관광개발계획 수립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 박순애·최경희(2020), 「한국행정학 좋은논문 제5편」, 박영사.
- 박의서·장태순·이창현(2019), 「MICE산업론」, 학현사.
- 서승진·윤은주(2018), 「컨벤션산업론」, 세림출판.
- 성상문(2013), 「우리나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국회사무처.
- 손성규·김태동·신일항(2016), 노동조합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회계저널」 25(5), 1-32.
- 손원익·박태규(2012), 「민간비영리조직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문화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손정미(2020), 「대한민국 마이스산업 신가치 창출 전략」(2020 MICE 정책포럼), 한
국마이스관광학회.

- 신용석(2010), 「지역 CVB 역할정립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신용석(2013),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신용준·나영(2015), 기업지배구조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4(2), 183-205.
- 윤수재(2019),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윤은주(2019), 「미팅 테크놀로지 기술동향 및 수요연구」, 한국관광공사.
- 이동수(2020), 「통계기반 정책평가 표준화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 이형주(2020), 「MICE 기업의 경쟁우위 전략」(2020 MICE 정책포럼), 한국마이스관광학회.
- 인천광역시(2018),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종합 육성 계획 2019-2023」.
- 임현(2014),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공법학연구』 31(2), 285-307.
- 정광민(2017), 「인센티브 관광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광민(2020),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MICE 정책 방향」(2020 MICE 정책포럼), 한국마이스관광학회.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2011),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차재권(2010), 「융합환경에서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와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하명희·김철원(2020), 지방자치단체 마이스 (MICE) 산업 조례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전시연구, 15(4), 81-103.
- 한국관광공사(2019), 「국제회의 유치매뉴얼」.
- 한국관광공사(2019), 「2018 컨벤션 유치 경쟁력 조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2019a), 「2018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2019b), 「2018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한국관광공사(2019c), 「2018 MICE 참가자 조사」.
- 한국관광공사(2018a), 「2017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2018b), 「2017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한국관광공사(2018c), 「2017 MICE 참가자 조사」.
- 한국관광공사(2017a), 「2016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2017b), 「2016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한국관광공사(2017c), 「2016 MICE 참가자 조사」.
- 한국관광공사(2008), 「국제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마이스관광학회(2020), 「2020 MICE정책포럼 자료집」.

-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9a), 「2018 국내전시산업통계조사」.
-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9b), 「2018 국내전시산업주최자조사」.
-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8a), 「2017 국내전시산업통계조사」.
-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8b), 「2017 국내전시산업주최자조사」.
- 황희곤(2010), 「MICE산업 기본법 제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황병상(2019),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발전방향 논고: 정책문제 정의 및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2(1). 5-30.
- 허준(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K-MICE 산업생태계 확장 및 포용적 성장촉진: 벤처형 PCO창업 클러스트 조성을 중심으로」(2020 MICE 정책포럼), 한국마이스관광학회.
- Dunn, William N(1981), An 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reinovich, V., Sriboonchitta, S., & Huynh, V. N. (Eds.). (2017). Robustness in Econometrics (Vol. 692). Springer.
- Launer, R. L., & Wilkinson, G. N.(Eds.).(2014). Robustness in statistics. Academic Press.
- Wooldridge, J(2009).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 Western, Cengage Learning.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2020).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 (2020).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Meetings Market. ICCA Statistics Report.
- UNWTO(2008). Global Meeting Initiative. 1. 2-3.
- UNWTO(2006). Measur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Meeting Industry. 4.
- K-MICE 홈페이지(<https://k-mice.visitkorea.or.kr>)
-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사전(<http://terms.naver.com>)
- MICE산업신문(<http://www.micepost.co.kr>)
- 마이스인텔리전스(http://k-mice.visitkorea.or.kr/mice_intelligence_KR/intelliMain.kto?func_name=main)

ABSTRAC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olicy in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is a high added-value industry having a huge ripple effect on relevant industries, as well as the tourism industry. Korea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support policie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while establishing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Basic Plan in 2019 since the enactmen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in 1996. As a result, the domestic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MICE) industry has enormously grown and achieved the second global ranking in term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hosting count based on the 2019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

The MICE budgets of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are being consolidated. However, most international conferences are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554 international conference planning companies (64.8%) or representative relevant businesses being unequally distributed in Seoul and rendering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of the MICE industry as a significant case. As COVID-19, which occurred in December 2019, spreads worldwide beyond the Asia-Pacific region, many changes are projected to happen in the policy direction and industry operation structures, including international conference attraction, hosting, and marketing.

This study examined the budgets, support ordinances, and step-by-step support system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Also, it diagnosed policy implementation by including a survey on people's perception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and budgeting situations, sizes, and performances. Based on these data, the issues 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olicy were evaluated, through which policy directions for system reorganization, support system improvement, and sustainable international conference promotion to cop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 changes were presented.

Now is the time when the co-existence of survival and innovation is need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Based on the study results, mor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MICE industry policies are necessary and a new type of industrial development support business should be actually searched and implemented. While the effects of COVID-19 are prolonged, relevant policy direction shift and innovat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t a government level.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lead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fter the end of the 2019(COVID-19) pandemic through preparation of a stable promotion system for the industry.

Keywords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olicy, MICE Industry, COVID-19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부록

【부록】 설문조사지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 분석』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 분석』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앙 및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 및 MICE산업 정책분야인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국제회의산업 인력 및 업계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실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회의 산업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이시지만 시간을 잠시 내시어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정책 수립 자료 등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정광민 부연구위원 (02-2669-9873, jkmin@kcti.re.kr)

조사 담당 기관: 00000 (02-2669-8412)

회송 방법 및 기간	<p>◆ 회송방법: 담당 연구원 E-mail 송부</p> <p>※ 담당자분들께서 작성하셔서 송부(bbin6715@kcti.re.kr)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회송기간: 2020.9.21.(월) 18:00 까지</p>
공지	<p>◆ 동 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분들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핸드폰으로 발송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010 - _____ - _____</p>

■ 다음은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된 국제회의산업 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그간 추진된 국제회의산업 정책이 국가·지역의 국제회의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①-----②-----③-----④-----⑤

1-1 세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경제 및 지역 산업 발전 견인	①	②	③	④	⑤
2)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 증대	①	②	③	④	⑤
3)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수 증대 기여	①	②	③	④	⑤
4) 국제회의 개최의 지역 경제파급 증대	①	②	③	④	⑤
5) 국제회의 도시(지자체) 육성	①	②	③	④	⑤
6) 국제회의 산업 생태계 강화					
7) 기타 ()					

2. 그간 추진된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의 절차 및 방식(법제도 기반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①-----②-----③-----④-----⑤

3. 귀하께서는 다음의 MICE 산업 유형별로 정책지원 성과의 효율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전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보통이다	상당히 높다	매우 높다
1) 국제회의 (합·단체 컨벤션 및 컨퍼런스 등)	①	②	③	④	⑤
2) 인센티브관광	①	②	③	④	⑤
3) 기업회의	①	②	③	④	⑤
4) 전시	①	②	③	④	⑤
5) 축제 및 이벤트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 다음은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4.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으로 추진되는 항목 중 다음 항목이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 업계 및 인력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산업 관련 연구·통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으로 추진되는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 업계 및 인력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산업 관련연구 통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산업 전담 조직 지원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된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주요 문제점 관련 사항입니다.

6. 귀하께서는 다음의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책지원 체계(법령 등)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정책 지원 절차나 과정이 불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정책의 지원 대상이 분산되어 중복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책의 지원 규모가 소액, 단기간이 대부분으로 활용 효과가 크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원 우선순위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 효율성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책 지원의 수혜자가 한정적이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실효성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					

7. 귀하께서는 국제회의산업 정책 지원 정책이 미흡한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법률 및 관련 제도 장치 미흡
- ② 유형별 지원 규모 부족
- ③ 추진 절차 및 방식 미흡
- ④ 추진 거버넌스 체계 한계(수행기관, 부처 협력 등)
- ⑤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부족
- ⑥ 기타 ()

■ 다음은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의 추진 정책 개선 사항입니다.

8.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 다음 정책 추진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국제회의의 정의 및 명칭 개선(회의, MICE 등)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의 유형 확대(이벤트, 비대면회의의 포함 등)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의 지원 기준 개선(참가자수, 국내 등)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의 지원 절차 및 과정 개선(입찰 공모 등)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의 지원 대상 확대(연관 업종, 창업자 등)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의 유형별 지원 금액 확대(액수, 횟수 등)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의 관련 거버넌스 확대(조직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의 시설 및 종류 확대(시설 지정 등)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의 관련 통계 개선(데이터 공유 등)	①	②	③	④	⑤
국제회의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근무 여건 등)	①	②	③	④	⑤
기타 ()					

9. 국가가 추진하는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① 국제회의의 정의 및 명칭 개선 | ② 국제회의의 지원 유형 확대 |
| ③ 국제회의의 지원 기준 개선 | ④ 국제회의의 지원 절차 및 과정 개선 |
| ⑤ 국제회의의 지원 대상 확대 | ⑥ 국제회의의 유형별 지원 금액 확대 |
| ⑦ 국제회의의 관련 거버넌스 확대 | ⑧ 국제회의의 시설 및 종류 확대 |
| ⑨ 국제회의의 관련 통계 개선 | ⑩ 국제회의의 업계 경영 환경 개선 |
| ⑪ 기타 () | |

10. 현재 국제회의산업 정책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제회의를 정의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회의산업 정책에서 국제회의 및 MICE 명칭 사용을 통일함에 있어 다음 항목 중 무엇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서로 3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국제회의산업(International Meeting Industry) 유지
- ② 회의산업(Meeting Industry)
- ③ 마이스(MICE)산업
- ④ 비즈니스트레블마이스(BT-MICE)산업
- ⑤ 비즈니스 이벤트(Business Events) 산업
- ⑥ 비즈니스 관광 이벤트(Business & Tourism Events) 산업
- ⑦ 국제이벤트(Int. Event) 산업
- ⑧ 국제비즈니스이벤트(Int. Business Event) 산업
- ⑨ 회의 및 컨벤션(M&C) 산업
- ⑩ 기타 (생각하는 명칭을 직접 적고 순위 부여)

11. 현재 국제회의산업 정책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회의의 종류·규모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구분을 개선** 한다면 다음 항목중 적정한 개선 항목에 대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법령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구 분		개 선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	참가국수 (현행 5개국 이상)	5개국 이상 ()	4개국 이상 ()	3개국이 상 ()	2개국 이상 ()	1개국 이상 ()
	회의전체 참가자수 (현행 300명 이상)	400명 이상 ()	300명 이상 ()	200명 이상 ()	100명 이상 ()	50명 이상 ()
	외국인참가자수 (현행 100명 이상)	200명 이상 ()	150명 이상 ()	100명 이상 ()	50명 이상 ()	10명 이상 ()
	개최 기간 (현행 3일 이상)	5일 이상 ()	4일 이상 ()	3일 이상 ()	2일 이상 ()	1일 이상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외국인참가자수 (현행 150명 이상)	200명 이상 ()	150명 이상 ()	100명 이상 ()	50명 이상 ()	10명 이상 ()
	개최 기간 (현행 2일 이상)	5일 이상 ()	4일 이상 ()	3일 이상 ()	2일 이상 ()	1일 이상 ()
	회의전체 참가자수 (신설)	400명 이상 ()	300명 이상 ()	200명 이상 ()	100명 이상 ()	50명 이상 ()
해당 개선 유형을 선택한 사유						

■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관련 사항입니다.

12. 코로나 19에 감염 확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피해 여파가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는 국제회의 개최 정상화가 어느 정도 시점부터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21년 상반기 중 (지금으로부터 0.5년후) 2021년 하반기 중 (지금으로부터 1년후) 2022년 상반기 중 (지금으로부터 1.5년후) 2022년 하반기 중 (지금으로부터 2년)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

①-----②-----③-----④-----⑤

13. 귀하가 생각하기에는 국제회의산업 수요(개최건수, 산업체 매출 등)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야 2019년의 동일기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21년 하반기 (지금으로부터 1년후) 2022년 상반기 (지금으로부터 1.5년후) 2022년 하반기 (지금으로부터 2년후) 2023년 상반기 중 (지금으로부터 2.5년)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

①-----②-----③-----④-----⑤

14. 코로나 19에 따른 마이스산업 변화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주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방식**(대면, 비대면, 혼합) 관련 ② 국제회의 **유치 방식** 관련
 ③ 국제회의 **활용 기술** 관련 ④ 국제회의**산업 구조**(입찰, 수익구조, 인력 등) 관련
 ⑤ 국제회의 **개최 장소 및 시설** 관련 ⑥ 국제회의 **마케팅 홍보** 관련
 ⑦ 기타 (_____)

15. 향후 코로나 19 영향 따라 국제회의 개최시 온라인 국제회의 개최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국제회의 개최시 온라인 형태가 기존의 대면방식 오프라인형태의 국제회의 형태를 얼마나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전혀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대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상당히 대체 될 것이다 매우 많이 대체 될 것이다

①-----②-----③-----④-----⑤

16. 하이브리드 형태 등의 온라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17. 평소 국제회의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곳은?	① 시·도	② 사·군·구	③ 공공기관	④ 대학교
	⑤ 연구기관	⑥ 기타()		
귀하의 관공업무 근무기간은 ?	① 1-2년 미만	② 2-3년 미만	③ 4-5년	④ 5-10년 미만
	⑤ 10-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 관련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집필내역

연구책임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2장, 제3장 일부, 제4~6장, 연구총괄

공동연구

김봉석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제2장 3절 일부, 제5장 일부

이원석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제3장 3절

연구참여

김동한 한남대학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 교수: 제2장 3절 일부

김은희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제3장 1절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교수: 제2장 2절 일부

허 준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교수: 제2장 1~2절 일부, 제5장 일부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2월 18일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40-9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31>

www.kcti.re.kr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olicy in South Korea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31>

Kwang-min Jeong

